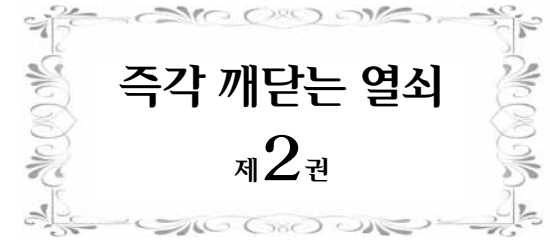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쇠 제2권



즉각 깨닫는 열쇠
제 2 권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SM출판사

사랑의 길을 걷다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의 발자취

우리는 작은 사랑을 찾아
높고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세상 곳곳의
모든 존재와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만나거나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들에게 다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칭하이 무상사는 사랑의 길을 걷자는 메시지로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주의자이자 예술가, 영적 지도자인 그녀의 사랑과 도움은 모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어려운 이들과 노숙자, 에이즈와 암 연구 센터, 미국 참전 용사, 불우한 노인, 심신 장애인, 난민, 그리고 지진·홍수·화재 등 천재지변을 당한 이재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녀의 친절에 축복을 받은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의 동물 역시 그녀의 무한한 자비심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자선 활동 속에서 우리는 이 자상한 여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자비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국제협회는 그녀의 사랑을 본받아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때 우리는 뭔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힘과 무한한 사랑, 창조성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초기 시절

칭하이 무상사는 어울락 중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병원의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돕고 다친 동물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그녀는 그곳에서 적십자사의 번역 일을 하며 계속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곧 아픔과 고통이 모든 문화 속에,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책을 찾는 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독일 의사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남편은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영적 깨달음을 찾아 2년이 걸린 구도의 길에 올랐습니다.

히말라야 순례

마침내 그녀는 인도의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깨달은 스승을 만나 내면의 빛과 소리를 관하는 명상 기법인 관음법문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녀는 얼마간 수행한 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신실한 요청에 따라 칭하이 스승은 관음법문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해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관음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큰 성취와 행복, 평화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 미국과 유럽·아시아·호주·아프리카·남미,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 칭하이 스승에게 강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인도적인 도움을 베푸는 숭고한 귀감이 되고 있는 칭하이 스승은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관음법문 명상을 통해 자생적인 재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창작 예술품(아름답고 정교한 등불과 음악, 시 등), 미적 감각이 뛰어난 보석·의상 디자인을 통해 당신이 접한 사람들과 문화의 내적·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1995년, 대중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의상 디자인은 런던·파리·밀라노·뉴욕을 순회하는 국제적인 패션쇼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칭하이 무상사의 자선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재정원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신의 자녀를 돕는 그녀의 고귀한 임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정과 스승님의 꿈

칭하이 무상사는 그 어떤 형태의 인정도 바라지 않지만 전세계 많은 정부와 개인 단체들이 그 사심없는 지원을 인정해 다음과 같은 수많은 상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평화상, 세계 영적 지도자상, 인권 신장상, 세계 시민 인도주의상, 인류를 위한 뛰어난 공익 봉사상, 2006 구시 평화상, 로스 앤젤레스 음악 주간 표창장, 2006년 제27회 텔리상 은상 등등. 미국에서는 2월 22일과 10월 25일을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하와

이 호놀룰루 전임 시장인 프랭크 파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자의 빛이며 모두를 위한 자비의 천사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 데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에게 꿈이 있었듯이 그녀 또한 그렇습니다.

“난 모든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꿈꿉니다.

나는 모든 살생이 멈추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아이가 평화와 조화 속을 거닐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국가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길 꿈꿉니다.

나는 이 행성이 파괴되지 않길 꿈꿉니다.

수억 수조 년이 걸려 만들어진 이 행성은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나는 이 행성이 평화와 아름다움, 사랑 속에 지속되기를 꿈꿉니다.”

머리말

칭하이 무상사는 강연하실 때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평이한 구어체만 사용하십니다.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스승의 가피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범부의 두뇌로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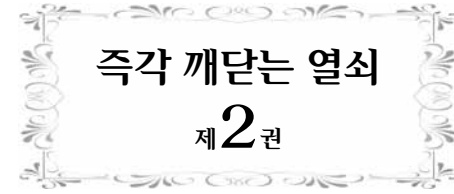
CONTENTS

차례

	사랑의 길을 걷다.....	3
	머리말	7
1장	신을 깨닫기 위해 내면의 스승을 찾아라.....	13
2장	전쟁의 원인	33
3장	위대한 성인의 완전한 모범.....	59
4장	내면의 소리는 무한한 사랑을 창조한다.....	71
5장	깨달은 스승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81
6장	구원자는 세세생생 존재한다	97
7장	신을 사랑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105
8장	신을 깨달은 자와 신의 메시아.....	127
9장	1부: 예수는 구세주 중의 한 분이다.....	141
9장	2부: 내면에는 남자,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149
10장	지금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자	155
11장	닫혀 있는 내면의 힘을 열어젖히자.....	177
12장	지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	193
13장	어디에서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209
14장	이 세상을 새 시대로 이끌자.....	227
15장	이 세상 너머의 신비.....	249
	관음법문 입문과 5계	297
	간행물 안내	300
	주요 연락처	302

도움말

영적 스승이자 예술 디자인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을 사랑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의 뜻을 가진 ‘포모사’는 그 섬나라와 국민들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A decorative rectangular border with intricate floral and scrollwork patterns, framing the central text.

즉각 깨닫는 열쇠
제 2 권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1장

신을 깨닫기 위해
내면의 스승을 찾아라

1장

신을 깨닫기 위해 내면의 스승을 찾아라

1991. 3. 9. 미국 보울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미국인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놀랍기도 하고요. 이 방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모두들 아름답다고 밖에서 들었는데, 이제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콜로라도의 보울더가 매우 영적이며 에너지가 상서롭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수년 전에 콜로라도 보울더에서 발행되는 영적 잡지를 통해서 알았지요. 사실 나는 지난 2년 동안 간혹 콜로라도로 부터 초청을 받았습니 다. 처음엔 텐버였고 그 다음은 보울더였습니 다. 초청을 여러 번 미뤘는데 이번에 미국을 순방하게 되면서 이곳에 들러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안녕 하십니까? (대중: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수백 년 또는 수많은 생애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는 아무

도 모르지요. 우리가 다른 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스승님 웃으심)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식, 신성神性 또는 선禪이나 도道를 체득하고자 다양한 법문을 수행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에 문제가 생김) 내 목소리가 이제 괜찮습니까? 잘 들립니까?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소리칠 때가 아니면 아주 작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여자들이 다 그렇듯이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때로는 여성의 모습으로 내 의무를 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여성적이 되어야 하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남자만이 부처(완전히 깨달은 존재)나 예수, 무상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박수) 여성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희소식입니다. 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여성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처, ‘개발되지 않은 부처’입니다. 마치 나라는 다 같은 나라라도 미개발 국가와 선진국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특정한 기법이나 특정한 생활 방식 또는 일상생활을 바르게 인도하는 특정 방법을 따르면 개발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바람직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웃으심)

다양한 수준의 삶이 존재하지만 모두들 신의식(神意識) 속에 살거나 진정으로 불성과 만나거나 깨닫는 삶이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명상법으로 이 신의식, 또는 불성에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명상을 통해 내면을 관하는 것은 우리의 참되고 위대한 본성을 깨닫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명상에도 많은 방법이 있으며, 올바르게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어도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명상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명상을 하거나 우리 내면의 본성에 다가가는 올바른 길을 찾았다면, 우리는 즉시 어떤 깨달음을 발견하거나 위대한 진아(眞我)에 대한 즉각적인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물질적인 육체뿐만이 아닌 그 무엇이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됩니다. 마냥 고양된 느낌일 것입니다. 진짜 흥분된다는 건 아니고요. 언어의 힘은 극히 제한돼 있어서 신의식을 향해 바른 환경이나 바른길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신성한 황홀경을 표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즉각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일 그 방법이나 그 길을 따라 신에게 다가간다면 매일 진보하고, 우리의 해탈과 위대함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자신에게 "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그것이다." 또는 "나는 부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때 우리에게겐 자만심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진정으로 깨달은 자신을 발견했고 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참모습을 이제는 안다는 극히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

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자랑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저 알았다는 것이 행복할 뿐입니다. (스승님 웃으심)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칭 부처라고 하거나 부처라고 불리면 오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는 아주 특별한 경우, 즉 제자들이 요구하거나 확인을 필요로 할 때를 제외하고는 "내가 부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추종자들이 그를 그리스도나 부처 또는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부처, 스승이 매우 거만하며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주장하고 싶어한다고 오해하거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의대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이제 난 의사가 되었다!"라거나 "나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여 의사 자격을 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해 온 목표를 달성해서 행복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성불한 후에는 성불했다는 것을 대단찮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며,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느낍니다. 부처가 된 사람은 곧바로 세상에 나가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비심을 잃었거나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부처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놀랄 것입니다. 그러다 점차 이 세상에 대한 현실감을 다시 찾게 되고, 자신이 부처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깨닫지 못한 이들, 즉 자신의 위대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부처라는 사람에게 가서 성불하는 길을 보여 주고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부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무런 우월감이나 자만심 없어요. 다소 놀랄지는 몰라도 (스승님 웃으심) 자만심은 없습니다. 아마도 “왜 그걸 모를까? 왜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모를까?” 하고 놀라기는 할 겁니다. 예, 부처, 스승들은 가르침을 전하는 동안 항상 놀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해하리라 생각하지만, 내가 부처를 일컬을 때는 그리스도나 구세주, 살아 있는 진정한 큰스승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불경을 읽는 데 보냈습니다. 다른 경전들도 읽지만 어릴 적부터 불교 용어와 친숙했기 때문에 자주 부처와 불경을 언급하게 됩니다. 내가 불교만 지지하고 기독교나 다른 위대한 종교들은 존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종교를 찬성합니다. 나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모든 종교가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가 “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나 손가락은 달이 아니다.”라고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나 교리는 달, 즉 진리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는 바로 신성, 신의 왕국, 불성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뚜껑을 열어야만 합니다. 곧바로 그럴 수 있는 기법

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 스스로 신의 왕국 전체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법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의 행복이나 지혜를 위해서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수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물질적인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준으로 일생을 보냅니다. 물질적인 수준에서는 대개 감각적인 쾌락을 좋아합니다. 먹고 자고 온갖 물질적인 행복을 누리기를 좋아하며, 게으른 성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뿐, 우리의 마음과 이상을 일에 쏟아 붓진 않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예, 이것이 물질적인 수준입니다.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 힘들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상관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거나 인류 대중을 위해 보다 유익한 일을 하는 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걸 일반적인 관점의 이야기일 뿐, 좀더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위 감정적인 수준입니다. 이 감정적인 수준에서는 자기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대단히 거만하거나 권위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즉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고 바르다고 여기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수준은 많은 독재자들과 급진적인 ‘지도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감정적이라서 감정적인 수준의 삶을 삽니다. 그들이 옳은 길을 추구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 길이 틀

렸을 때에도 그들은 고치거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험합니다. 융통성이 없으니까요.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수준은 지성, 물질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마음은 원래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컴퓨터로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온갖 데이터를 어떤 지성이나 판단 없이 아주 충실하게 출력합니다. 만약 여기에 영혼의 지혜를 불어넣지 않는다면 마음은 자동 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바로 이 자동 기기, 즉 깨닫지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자동화된 수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욱 몰입하게 되어 세상이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도달하고는 동굴 같은 곳에 숨어 버리거나 어떤 이상 속에 파묻혀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이나 자신을 바꾸려 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현재 모습이 그대로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함 없이 함(爲無爲)’의 길은 이와는 다른 수준으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일에 상관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러 과정의 경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매일 각기 다른 깨달음을 체험하고 지혜를 넓히게 되며 결국 언젠가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좀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이른바 영혼, 자아의 수준, 자아를 깨닫는 수준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영혼이며, 영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영혼의 빛 때문에 우리가 총명하며, 영혼의 힘이 뒷받침되어 있기에 자비심과 느낌 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돕고, 스스로 기쁨과 행복, 인류로서의 고귀한 목표에 맞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수준, 자아를 깨닫는 수준입니다. 이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자신을 영혼과 동일시하며, 우리와 영혼, ‘영감靈感의 근원’이 같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최고의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직 무엇과 무엇을 동일시하고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나와 나의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에고ego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너무 번잡하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우리가 비록 “나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말해도, 거기에는 아직 ‘나’와 ‘아버지’가 있는 것이므로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예, 모순적인 말이지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나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그 이상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가 하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스승이건 지구에 오면 자신의 수준을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 낮춘 후 서서히 사람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ABC 쓰는 법을 가르치려면 그의 손을 잡고 쓰는 것을 도와주고 여러분 자신은 이제 배울 필요가 없는 많은 문장을 가르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아를 깨닫는 단계를 지나면 신의 경지, 신의식(God-consciousness) 또는 신을 깨닫는 수준(God-realization)에 이르게 됩니다. 신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자아를 깨닫는 경지에서조차 그 사실을 모른 채 신이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습지 않나요? 무신론적으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설명하기가 참 어렵군요. 좋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스승님 웃으심)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기가 어려울 따름입니다.

신을 깨닫는 수준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한다는 생각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할 일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며, 그냥 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며 만물의 근원, 모든 행동과 모든 결과의 근원이지만 그에 따른 업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자 했지만 아직

은 미흡한 것 같군요. 그렇지만 더 이상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깨달음에 따라 나도 더 ‘깨닫게’ 되어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감정적 또는 자동화된 지적 수준, 혹은 기껏해야 자아를 깨닫는 수준에 있습니다. 신의식의 수준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느님의 신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한 “신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신의 왕국은 관찰이나 추리, 지적인 분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대화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성경을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길은 그것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도로 잡아채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선사(禪師)들이 경전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신론적인 것 같지요. 때로 석가모니불 또한 언더리가 났을 때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하곤 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의 말은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런 신은 없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구절에 집착한 나머지 부처가 신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스승님 웃으심)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신이 있다거나 없다고는 말하지 않

겠지만, 만물이 생겨나고 만물이 돌아가는 하나가 존재한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는 어떤 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한 한두 문장만을 분석해 그것으로 ‘그 사람은 이렇고, 그 사람은 저렇고, 그 사람은 또 다르다.’라고 구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때로는 이 ‘주의’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종교’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라져 싸우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슬픈 일이지요.

예전의 예언자나 스승들은 이런 분열이 생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을 깨닫고 나면 아마도 언어의 표현력을 뛰어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해한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승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다면, 그가 각각의 제자들을 몸이나 말로 항상 돌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깨닫고 스스로 이해하면서 서서히 스승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면의 스승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고 바로 신이며 부처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우리 내면의 부처, 스승이 깨어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내면의 스승이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많은 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깨어나서는 일하게 되지요. 물질적인 수준에 있으면 몸만 움직이고 몸이 요구하며 행합니다. 몸은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지만 내면의 스승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수준에서도 내면의 스승이 아닌 마음의 형태를 띤 습관이 지시합니다. 욕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서 지시하지요. 또한 지성적인 수준에서는 마음, 즉 지성이 사물을 분별하고 몸에게 지시를 합니다. 동굴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고 명상하고 이런저런 것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도 아니고 신도, 스승도 아닙니다.

오로지 진정한 스승을 만났을 때라야 진정한 스승이 알아볼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화하고 왕은 왕과 협상하는 법이니까요. 왕은 다른 나라 장관을 찾아가서 나라의 일을 의논하지 않습니다. 왕은 경찰을 찾아가 양국의 중대사에 대해 협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경찰 부서나 장관급의 일이라면 대통령이나 왕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왕이 왔을 때만 왕이 나가서 영접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진아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진정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은 오직 왕하고만 말하니까요. 우리는 많은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온갖 것을 다 하고 수백 년 동안 동굴에 은거할 수도 있지만 내면의 스승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스승의 일이 아니므로 내면의 스승은 나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왕을 만날 적당한 때까지 기다립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명상하고, 소위 ‘스승’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따르고 온갖 고행과 채식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를 성불이나 신의 왕좌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다른 부처를 만나거나 그의 도움을 받아 우리 내면의 스승을 일깨울 때라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되지요.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많은 수행법에는 서로 다른 이로움이 있습니다. 이롭지 않은 길

은 없습니다. 어떤 이로움이든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왜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아무런 인도도 받지 않고 기도해도 이로움이 있으며, 교회나 절에 간다거나 예배나 순례를 해도 정서적으로 고양감을 느끼며, 그를 통해 어떤 행복감을 느낍니다. 보통은 신앙심이 깊은 일을 한다거나 채식을 한다거나 매일 교회를 간다거나 성지 순례를 한다거나 하는 뿌듯함이 있지요. (스승님 웃으심) 그것은 우리의 예고, 우리의 자만심을 키울 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행히도 영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어린아이들을 실컷 놀게 놔둬라. 놀다 지치면 어머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거지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스승이 조급해하거나 제자들을 붙잡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이들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이 마땅한 도리대로 살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식대로 사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언젠가 성장하고 나면 그들도 어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온 스승, 부처가 여러 수준의 삶과 깨달음의 사상을 전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선택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선택하지요. 하지만 스승은 서두르거나 초조해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힘이 없이 합니다. 노자가 “힘이 없이 하라(爲無爲).”라고 했듯이요. 그것은 산속에 은둔하거나 남들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 지적

인 수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스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으며 이 세상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면 알 겁니다.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죽으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영광과 생명에 대해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의 뜻을 가르쳤고, 항상 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신의 뜻을 따르려면 신이 어디에 있고,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나 부처가 했던 것처럼 신을 깨닫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애쓰기만 할 것입니다. 예고를 가지고요. 하지만 크게 깨닫고 나면 힘이 없이 하며,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일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상상이나 겁니까? 수천억 가지 일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내다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존재가 됐을 때 나타나는 진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힘을 발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을 모릅니다. 그뿐입니다. 우리는 과학이나 문학 분야 또는 과학기술 면에서 성공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힘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발휘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 그게 유일한 이유이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해요.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힘을 발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도 가고 절에도 갑니다. 수없이 염주를 돌립니다. 그럼요! 채식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수백 가지 주문도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횃수를 세어 놓은 장부도 있는걸요.” (대중 웃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저런 신들에게 경배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절을 하며, 여기저기 순례를 다니고 온갖 예배와 의식을 행하고, 심지어 명상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아주 공덕이 많다고 생각하지요.

나도 한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그러다 얼마 후엔 지쳤습니다. 내 내면의 열망을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직접 가리키는 이 법문 아닌 법문, ‘관음법문 觀音法門’을 수행한 후에야 비로소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모든 게 떨어져 나가자 진아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예. 우리도 알아요!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 자신이 부처라는 거지요.” 그러면 깨달은 거겠지요. 그러나 그건 조사들이 수백, 수천 년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성(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직접 가리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떤 건지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지성으로써 불성을 이해하고, 손으로 만지고, 유추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은 우리가 상상하고, 만지고, 느끼고,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성은 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것으로, 이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하고 동물들이 서로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언어를 사용하듯이 부처는 진동과 빛으로써 우리 내면의 부처를 가르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부처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으며,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언어는 부처를 위한 게 아니니까요. 마치 동물들의 짖는 소리나 지저귀는 소리로는 인간을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동물의 언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말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그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나 우리를 반기는 소리를 좋아한다 해도 그 소리로 우리를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이해력을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면의 부처(무상의 힘)에겐 진동과 빛으로 나타나는 부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음법문이 법문 아닌 법문인 것입니다. ‘관음觀音’은 진동을 관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내면의 진동이지 외부의 진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며, 일단 그것을 지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신의 왕국을 찾아라. 그

려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의 왕국은 온통 빛과 음악, 아름다운 음률로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여기까지는 도달해야만 뭔가를 이해할 수 있고 서서히 절대자에게 이를 수 있습니다.

신은 이 세상 혹은 다른 많은 세상의 길 잃은 영혼과 소통하기 위해 빛으로 화현하며, 이에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빛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층에 따라 구름의 성질이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햇빛이 안경을 통과하거나 다른 곳에 반사되면 빛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요. 우리는 아름다운 음률로 나타나는 신의 갖가지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불성을 알고 신의 왕국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추측하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겠지요.

우리는 진실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케이크를 먹어 봐야만 그것이 달다거나 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즉각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왕국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반겨 주거나 대화할 만한 다른 왕이 없으면 왕은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른바 스승이라는 존재는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장 높은 경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아는 그 외의 경우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아니까요. (스승님 웃으심) 그래서 우리가 많은 법문을 따라 수행하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고, 그것 때문에 진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스승님 웃으심) 동등한 상대가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언제든 우리 자신의 진아가 나타나면 우리는 또 다른 진아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을 알아보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백 가지를 가르쳐 온통 분주하게 만들 수 있다 해도 그건 시간만 보내는 것일 뿐, 그것으로는 진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최고의 삶의 방식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말한 것을 믿는다면 시도해 봐도 됩니다. 만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길을 가면서 나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다음까지요. 아마 백 년이나 천 년 후가 되겠지요. 여러분은 아직도 잠자고 싶어하니까요. (스승님 웃으심)

자신을 깨닫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동에 옮겨 이 세상의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모든 고통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지하다고 생각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상과 맞지 않다고 생각 되면 이생에서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잠든 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지요. 아마 다음번엔 깨어나겠지만 그건 우리가 얼마나 잠을 자고 싶어하는지에 따라 지금부터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묻고 싶어하는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성원해 주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2장

전쟁의 원인

2장

전쟁의 원인

1991. 3. 6. 유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고귀한 사업과 사명이 모두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평화를 위해 잠시 기도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각자의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신과 만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곳에 와서, 각 나라에서 선택된 가장 지적인 분들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유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엔은 아마도 ‘썰어 놓은 빵(sliced bread)’ 이래로 가장 훌륭한 것 같다고 이곳 의장에게 말했더니 그런 찬사는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나 역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썰어 놓은 빵’보다 훌륭한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곳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정말 훌륭합니다. 전세계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읽었는데,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 지혜를 주시

기를 신께 기도합니다.

여기 온 것이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처음 같지가 않습니다. 매우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 보십시오. 내가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입구가 보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전에 운전기사에게 “입구가 어디인지 알아요?”라고 물었더니, 그 기사는 “예, 예. 이제 다 와 갑니다. 입구는 이런저런 곳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기사가 이곳이 처음이라서 입구를 제대로 못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선 잠시 잠이 들었는데 ‘방문객 입구’를 보았습니다. 아마 나는 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었거나 많은 전생 중에 유엔 회의에 참석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일이지요! 여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에서 입구를 보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유엔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곳 모임에서 연설을 해 달라고 나를 초청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8개월은 됐을 겁니다. 당시에는 여기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부탁을 받고선 “글쎄,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나와는 관심사가 다를 거야. 나는 일개 수행자일 뿐이고 그들은 정치적인 일을 할 테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에 나는 그렇게 ‘깨닫지 못한’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선 나는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다. 정치가 유엔의 유일한 과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유엔은 인도주의

적인 활동과 더불어 세계 평화와 수많은 구호 활동을 위해서도 일해 왔습니다. 또한 나중에 들은 얘이지만 명상도 합니다. 그때 중동 전쟁이 터졌고 어울락 난민 및 정책에 대한 많은 쟁점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어울락 난민들 중에는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고 자살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참에 유엔에 와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좀더 이해하고, 또한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유엔에 모든 짐과 책임을 떠맡기고 유엔을 비난해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유엔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계의 시민이니까요. 어느 누구도 밖에서 유엔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참여해서 일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의 뜻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과 뜻을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나온 책과 팸플릿 등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해서 공부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 봉사자 회원이 되어 유엔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자원 봉사자이니까 여러분은 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나는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평생회원인 셈이지요. 자원 봉사자는 해고할 수 없다는 걸 알 겁니다. 영원토록 자원 봉사하려는 회원은 해고할 수 없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고, 어쨌든 여러분에겐 새 회원이 생긴 셈입니다. 환영합니까? (스승님 웃으심) (청중 가운데 누군가 “환영합니다.”라고 대답함) 고맙습니다.

오늘날 세계적 당면 과제인 전쟁과 평화에 관하여 연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나는 전쟁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고 평화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전쟁에 대해서는 알지만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없앤다는 말이 소설이나 동화 같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승자도 패자도 모두 전쟁에 지칠 테니까요.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인도의 아르주나 등과 같은 역사상 유명했던 정복자들도 마침내는 전쟁에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현대의 전사들인 우리가 왜 전쟁에 지치지 않겠으며, 왜 이런 일들을 피하는 방법들을 배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긴 여러분이 전쟁을 피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뜻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의 뜻이 있어야 하지요. 우리는 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말이 아닌 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신구의身口意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해 신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전쟁을 그만두고 세계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러길 원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엔은 전쟁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 힘껏 노력하고 있는 최초의 기구입니다. 유엔은 창설된 이래로 줄곧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약 유엔이 없었다면 과연 세계가 오늘날과

같았을지는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세계에는 아직 전쟁·기아·난민 문제들이 있지만, 유엔이 없었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나빠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여러분의 일이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직도 전쟁과 다른 정치적 사안들, 미해결된 수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그것이 유엔의 잘못만은 아닌 것입니다. 세계의 몇몇 구성원들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런 몇몇 회원국들은 어린아이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을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나라 일만 자기 방식대로 하려 하므로, 유엔과 같은 단체가 전세계를 움직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 유엔의 일이란 매우 고달프고 어렵고 미묘해서 많은 인내와 외교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자신의 두 손을 편 채로 관에 넣으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는 후세들에게 전쟁을 하지 말고, 죽을 때는 빈손이므로 어떤 재물도 축적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어떤 사람들, 어떤 나라들은 이 교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교훈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하들의 확실한 경호를 받으며 자신의 거실이나 소파에 앉아서 지휘만 할 뿐, 절대 위험한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국민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재앙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어떤 위협이 도

사리고 있으며, 전쟁의 재앙으로 부상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터에서 사상자들을 보고 심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양편의 전사자 수는 무려 만 오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절박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평화를 이룹시다. 제발 전쟁을 끝냅시다.” “당신은 나처럼 전쟁터에 있어 보지 않아서 만 오천 명의 전사자들에 둘러싸여 매일매일 병사들이 고통 받는 광경을 봐야 하는 나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대부분이 ‘7월 4일생’이라는 영화를 봤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럼 그 상황이 어떻다는 게 짐작이 갈 것입니다. 전쟁은 그 당시뿐 아니라 전쟁 후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느 방송국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 나는 텍사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는 내게 “전쟁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수행자들도 중동에서 하듯이 전쟁으로 해결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결과보다는 원인을 막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과를 멈추려면 너무 늦다고요. 우리가 오렌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오렌지 씨를 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물을 주지 않거나 씨가 아주 작을 때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러분도 알 만한 어떤 이유들로 전쟁의 싹을 키우고 싶어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 나라 국민들을 보살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익이 되

도록 전쟁을 일으켜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훌륭하고 애국적인 생각 같지만, 긴 안목으로나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결국엔 손해입니다. 업은 되돌아오니까요. 업業이란 뿌린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원인이 좋지 않으면 결과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쟁으로 명리를 얻거나 전쟁으로 인한 이익으로 국가, 일부 국민을 부강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나중에 그 원인이 우리에게 되돌아와서 우리는 그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오렌지 씨를 뿌려서 사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계의 물질 법칙입니다. 물질세계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물리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나 예수라도 어쩔 수 없으니 범부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가바드기타』, 즉 업의 법칙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며,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성경 구절을 본 적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 부처가 살아 있었을 때, 그는 전쟁이 시작된 유래에 대해 매우 흥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이 땅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쟁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으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일 겪는 일들은 그것의 지속적인 결과 혹은 불가피한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이 세계가 파괴된 이후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생전에 가졌던 소망과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세계로 가 버렸습니

다. 어떤 사람들은 좀 비참한 상황으로 보내졌고, 어떤 사람들은 긴 잠을 잤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천국이란 곳으로 갔습니다.功德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광음행성光音行星이란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광음光音’은 우리의 관음법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광음이라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긴 세월을 축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후 이 행성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성운星雲 상태여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과 같은 세계가 되었습니다.

점차 광음행성이라는 곳에 있던 사람들 중 최초의 무리가 이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이 세계에는 지도자도 없고 아무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 높은 행성에 있던 존재들 중 하나가 이 세계가 텅 빈 상태인 데다 왕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브라마Brahma라고 부르는 최초의 존재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요,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처가 말한 것입니다. 알겠지요?

그는 순간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광음행성에서 온갖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행성이 광음光音이라고 불린 것은 그 행성에서는 사람들이 빛과 소리만을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의 우리와는 달리 고형화된 음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서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로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

지만 그들이 여기 왔을 당시에는 빛과 영광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즉시 날아갈 수 있었으며, 물질적인 교통수단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언어도 필요 없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들 나름대로 영광스럽고 매우 자유로웠으며, 그렇게 수 천억 년을 살았습니다. 그 뒤 이 세계는 차츰차츰 형태를 갖춰 가면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장엄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중 몇 명이 바다를 돌아다니거나 해변을 날아다니다가 바다 위에서 거품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거품은 매우 아름답고 빛났으며 냄새도 좋았습니다.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이 거품에서는 매우 기묘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몇 명은 호기심에 이끌려 내려와 그 거품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보기만 하다가 너무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서 한번 먹어 보았는데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았고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으므로 그렇게 맛있고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바다 위의 아름다운 거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요. 그 거품이 맛있고 향기가 좋으며 보기도 좋아서 모두들 바다로 내려와서 먹었는데, 거품을 먹을수록 그들의 몸도 점점 무거워져 모습도 변하고 힘도 변하여 그들은 서서히 멀리 날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빛과 오라Aura도 점점 짧아지고 색깔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그다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바꾸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지요. 거품이 너무 맛있었으니까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먹어 버린 탓에 마침내 그 거품은 동이 나 버렸습니다.

그때 어디서나 자라는 풀 같은 것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자 모두들 그것을 갖다 먹었습니다. 땅에 퍼지는 덩굴로 된 풀 같은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것도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거품이 없어서 풀을 먹어 본 건데, 이것도 매우 맛이 있고 아름답고 훌륭하며 향기로웠기 때문에 모두들 먹었습니다. 그들이 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들의 몸과 정신도 조잡해졌습니다. 더 이상 날 수도 없게 되었고요. 그들의 몸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나쁘게 변했습니다. 전에는 아름답고 장엄했지만 지금은 모습도 더욱 거칠어졌고,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는 옆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어떤 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웅얼거림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중독이 된 거지요. 아! 풀이 너무나 맛있고 좋아서 그들은 계속 먹었습니다.

그 이후엔 또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그 맛있는 풀이 없어지자 그들은 다른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대지는 쌀과 밀 같은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땅에서 이런 것들이 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들판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걸어가서 쌀과 밀을 집으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예전과는 달리 아무데서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먹어야 했지만 모두들 매일 맘껏 먹었습니다. 그러다 차츰 게을러진 사람들은 '왜 매일 들에 가서 가져와야 할까? 2, 3 일분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으면 매일 갈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흘분을 가져왔습니다. 이웃들도 그것을 보고는 똑같이 했으며, 다른 이웃들도 따라했습니다. 좀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열흘분을 한꺼번에 가져왔고, 어떤 사람들은 20일분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쌀과 밀도 차츰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쌀과 밀을 훔치러 오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법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리하여 최초의 정부가 생겨났습니다. 고상한 목적이라곤 없이 먹는 것 때문에 생겨난 거지요. 그후 사람들은 땅을 나누었습니다. 여기는 아무개 땅, 저기는 아무개 땅 하는 식으로 나누었으며, 누구도 이 경계를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거칠어졌고 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변하여 오늘날의 남자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외형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영광과 사랑 속에 더불어 살았으므로 똑같았고, 서로 육체적인 이끌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은 후에는 싸움과 도둑질, 분쟁이 생겨났고, 사태가 아주 참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놀라움과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적게 먹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많이 먹은 사람들은 더욱 못생겨졌습니다. 못생긴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쫓아다녔

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여자였겠지요. 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적게 먹었을 겁니다. (스승님 웃으심) 그래서 여자는 오늘날까지도 미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남자들은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아름답게 태어났고, 아름다움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며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 깊이 자신이 아름다웠고 자신의 진아가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외모의 여성이든 만족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남자들은 다른 미인들을 쳐다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엔 그들 모두가 자신의 아내보다도 아름다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인 한 사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지요. 이것이 바로 부정 不眞의 원인입니다. 그가 정말로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본능인 탓입니다.

탐욕, 돈과 재물의 축적,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보다 영광스런 세상에서 살았던 고귀한 근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고, 우리 모두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보석이나 화장, 아름다운 남성·여성을 좋아하며, 화려한 삶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것들을 가졌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능력이 허락하는 한 그것들을 되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나쁜 습관'이나 '본

능'은 바로 고귀한 근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거나 아름다움이나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단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런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놓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갖고자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갖고자 애걸복걸하거나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으며,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이끌림이 생기기 시작하자 부부가 생겨났습니다. 이 일을 보던 다른 사람들은 왜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의아해했고, 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의 육체에 이끌려 육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부끄러워져 주민들이 사는 도시에서 떨어져 자신만의 움막이나 동굴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독립된 주택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역사가 생겼고,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비난하려면 부처를 비난하고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나는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때 그곳에 없었으니까요. (스승님 웃으심) 내가 그곳에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잊어버렸어요. 어쩌면 그때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수천억 년이나 지난 오래전의 일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기억하고 싶어하겠어요? 그런 일 말고도 중동 전쟁, 어울락 난민 등 할 일이 넘쳐나는데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땅을 나누기 시작한 후로 사태는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많이 심고 많이 수확했으며, 게으른 사람들은 이것을 훔치려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너무 적게 가진 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많이 가진 이는 적게 가진 이와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운이 없어서 못 가진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전쟁의 원인은 사람들 사이의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 내면의 탐욕 때문인 거죠. 지나치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선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과학자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전쟁의 원인이 굶주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반면에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가진 것을 잘못 사용하고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또 다른 연구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채식 식당을 경영하면서 채식에 관한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연구에 따르면 북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끼만 채식을 한다면 1년에 1천6백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

러니 문제는 식량이 아니라 식량과 관련된 많은 것들입니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간되어야 할 토지가 지금은 소를 사육하는 데 허비되고 있습니다. 물과 약품들과 교통수단 등 모든 것이 소, 돼지나 기타 가축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육식에 따른 이 모든 것이 인류의 무수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나라에서 기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 막대한 식량과 단백질·약품·교통수단·물 등이 들어가는데, 이들 자원은 후진국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단백질과 식품이 다른 방법으로 분배됐더라면 소를 먹이는 대신 온 세상을 먹여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채식이 이 세상을 구하고 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도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최소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도라도 해본 다음에야 뭐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이 견해를 지지하고 협조한다면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협조하리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대장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태초가 생긴 이래로 모두가 협력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우리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대장이 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힘이 있었고, 우리가 성인, 천사였던 고귀한 근원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니까요. 우리는 천국에 있었고,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명령 하에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을 잃고 이 물질세계로 떨어져 대부분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을 갈망하는 거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릇

된 방식으로 힘을 갈망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제공하기보다는 우리를 해치게 됩니다. 그뿐입니다.

우리의 힘을 되찾는 방법은 자신을 정화하고 신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빈말이 아니라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시도해 보기를 원한다면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보거나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진정한 힘과 만나도록 인도해 줄 충분한 지혜와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누군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진정한 힘을 갖추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설령 다른 것들이 없다 해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진정한 힘을 갖는 것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손안에 온 세상을 거머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이 가진 것들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지만 충분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선 “먼저 신의 왕국을 찾아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였습니다. 불교의 『능엄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함으로써 이 내면의 불성과 만나면 세상이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다른 것도 얻을 수 있다.” 이것 또한 진리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모든 경전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인도 경전이나 유대 경전, 다른 경전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꼭 신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전생에 공덕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가 신의 힘과 접하기만 하면 설령 공덕이 없어도 신의 축복이 직접적으로 생겨납니다.

이제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느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곧 하느님이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음품'이고, 진동, 道道, 불교의 불성佛性이며, 힌두 용어로는 음류 音流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말씀'과 만나면 말씀이 곧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과 만나게 됩니다. 신은 수염이 길고 지팡이를 짚고서 여러분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신은 힘이자 사랑의 흐름으로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삶의 형태를 잡아 나갈 수 있으며, 이 창조적 본질로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만난 사람은 바라는 모든 것이 실현되는 반면, 신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말하고 싶은 대상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우리가 친구와 대화하고 싶는데 전화가 연결돼 있지 않거나 전화기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화기를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친구나 경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연결을 한 다음 소원을 빌어야 합니다. 지금 얘기가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중인데, 이번 유엔 강연을 하

러 오기 전에 제자들이 소원이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이를테면 비행기가 이미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탑승하지 못하고 뒤에 남아 있던 한 제자가 기도하자 비행기가 다시 돌아와 그를 태웠다고 했습니다. 예!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들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농담합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란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에게 "좋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건 너무 이기적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고 묻기에 나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나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어울락 난민 같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업장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울락 난민들은 아직 신과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른바 나의 제자들은 (나는 그들을 친구들이라고 부르곤 하지만 내가 '친구'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테니 '제자'라고 하겠습니다.) 신과 만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어디에다 대고 기도해야 할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기도를 실현시킬 힘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를 알아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힘은 우리 내면에 있고 모든 것은 이미 내재해 있으므로,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찾아 사용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곳을 모릅니다. 나는 “먼저 신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라는 말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의 왕국은 관찰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왕국은 이미 가까이,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모을까요? 그건 우리가 ‘내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심장이나 폐, 정맥, 아니면 간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의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배웠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매일 그 힘을 사용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과 만나 모든 소망을 이루고 지상 천국을 이루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잇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줄곧 말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 우리 단체 내에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문 후에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다투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을 두고 논쟁하거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고 바라지 않습니다. 수천, 수만 명에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나 효과가 있으므로 나는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러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

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에 늘 놀라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들이며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불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모두는 알라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같은 힘 혹은 최소한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깁니까? 우리는 신의 공주, 왕자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란 뜻 아닌가요? 빈말같이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왕의 아들딸이라면 여러분은 자신의 힘과 지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두들 ‘아! 우리는 신의 자녀들이다. 신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신과 닮았다’고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선 한 푼이라도 벌려고 아등바등하고 온갖 기도를 하지만 결코 실현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근원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인데도요. 너무 쉬운 탓에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지만 나는 참고 인내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이 평화롭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신의 왕국을 체험해야 하며 신의 힘과 만나야 합니다. 아주 쉬운 일이지요. 신이 우리 내면에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의 왕국은 우리 내면에 있는데 왜 그것을 구하러 멀리 있는 교회나 절에 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

것을 얻는 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법문을 ‘돈오頓悟(instant enlightening)’ 또는 ‘즉각개오(immediate enlighten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스턴트instant’는 내 제자가 붙인 말인데,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원래 썼던 말은 ‘즉각적인 깨달음(卽刻開悟), 영원한 해탈(一世解脫)’이었습니다. 일단 깨닫고 나면 깨달음과 해탈은 영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해탈하느냐고요?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고통 받고 또 고통 받는 생사의 윤회에서 해탈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엔에서 하는 일은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며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한두 회사나 한두 가정을 위해서가 아닌 전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은 최고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유엔을 떠나지 말고 계속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고통과 좌절, 골칫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으니깐요.

내면의 삶은 더 낮고 더욱 완전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완전해지면 우리의 외적인 삶도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내면의 지혜와 힘을 사용해 일을 좀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세상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지위를 얻고 싶거나 어떤 방면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작용해 줄 적당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두뇌말고요. 힘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낮은 단계의 힘은 두뇌로서 자동적인 작용과 반작용을 뜻합니다. 예, 두뇌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높은 단계의 힘은 온전한 은총, 사랑, 기적입니다. 여기서 기적이라 함은 날씨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 제자는 기도만 했는데도 비행기가 다시 돌아와 혼자 남아 있던 그를 태웠습니다. 공항 측에서는 그 제자가 가지고 있던 비행기 표에 요금이 적혀 있지 않다면서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긴 했지만 어쨌든 비행기 요금은 지불했으니까 절차상 뭔가가 잘못된 것뿐이었지요! 그래서 비행기는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과 연결된 사람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무엇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과 파장이 맞지 않다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는 최소한 유대인들을 위해서만이라도 기도했을 것이고, 부처도 인도인을 위해서만이라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깨달았다 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여 그들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지 앉아서 기적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설령 수천, 수만의 부처나 예수가 온다 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그들은 진작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기적은 업이 연관된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씻어내야 합니다. 자

신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약을 먹어야 합니다. 제아무리 용한 의사가 해도 처방전을 줄 수 있을 뿐 우리 대신 약을 먹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실현시키는 근원과 파장이 맞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란 매우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신과 만난 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체험했고, 수천 명이나 되는 나의 제자들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전쟁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 우리 내면에 평화가 깃들게 되면 이 세상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각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세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더라도 약간의 햇불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평화는 더욱 커지고 전쟁은 줄어들겠지요. 이 자체가 위대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옛날에 비해 더 나아진 것은 많은 스승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문명화된 많은 훌륭한 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수천 년 전보다 더 문명화되고 더 밝아지고 더 안락해진 것입니다. 바로 수많은 깨달은 큰 스승들이 우리의 이해력을 고양시킨 덕분이지요. 비록 그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만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남긴 가르침과 진동, 그 씨앗들은 계속 자라나서 전세계를 두루 이롭게 하고 온 인류의 의식을 높이 고양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은 나날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위대한 스승들과 그 제자들 덕분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와서 공부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느끼기에 가장 깨달은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확실히 길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우되, 자신의 지혜와 힘과 접촉하여 그걸 자신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매일 두뇌라는 컴퓨터를 어설프게 사용하면서 골치 아파하며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두뇌 컴퓨터의 작은 지능이 아닌 우리의 위대한 지혜를 활용한다면 어떤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장

위대한 성인의
완전한 모범

3장

위대한 성인의 완전한 모범

1990. 12. 24. 코스타리카

이것은 이천 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부분을 읽어 주겠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갑자기 섬광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사람들은 눈을 가려야 했다.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하느님의 사자인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려워 마라! 나는 너희와 온 세상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왔다. 구세주가 오셨다! 하느님이 약속하신 왕이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너희는 말구유에서 잠들어 있는 그 아기를 볼 것이다.”

그때 양치기들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영광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천사들이 가고 나자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다. 양치기들은 서로 얘기하며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자고 했다. 구세주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셨다. 하느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광! 아멘.

이제 이천 년 전에 우리들 가운데 태어나신 위대한 존재를 기억해 봅시다. 그는 너무 위대해서 어떤 말로도 그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그의 위대함을 알고 있을 뿐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위대해졌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그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종종 궁금해합니다. “왜 예수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시점에 그렇게 빨리 죽어야 했을까?” 만약 그가 그렇게 짧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의 이름은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신이 그를 그런 식으로 희생시켰기에 온 세상이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갖고 오든 신의 사자(使者)를 소중히 여기게 됐을 겁니다.

예로부터 이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죄를 짓고 신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사자들을 보내 우리를 일깨워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자가 된 것은 그가 너무나도 위대했고 우리와 함께 지낸 시간이 짧았으며 우리 곁을 떠난 후 다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의 위대한 아들인 예수는 큰 힘을 지니고 많은 기적을 행했으면서 왜 자신의 운명은 바꾸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어야 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이 세상이 영원히 다거나 스승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도 여러 스승들이 있었으나 예수만큼 지금까지 기억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기억할 때 우리는 신을 기억하고 어떤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는 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달리 말하면 예수는 지구에 인격체로 나타난 신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곁을 매우 일찍 떠나야 했던 것은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지상의 덧없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신의 아들조차 죽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결국엔 가야 합니다. 예수처럼 위대한 사람조차 이 덧없는 육신을 보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폭력과 무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자신에게 걸맞지 않은 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통 받았던 거죠!

예수가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세상과 육신의 덧없음을 기억하고, 이토록 위대한 사람도 그런 고통을 받아야 했다는 것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그는 너무도 겸손한 나머지 스스로 신께 복종했으며,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는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에게 은신술을 비롯해 많은神通력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는 신의 안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면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토록 거만하고, 신의 뜻을 잊고 복종하지 않는가?’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들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모든 이들이 이러한 교훈들

을 제대로 배운다면 예수의 희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의 추종자나 숭배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름의 목적 때문에 신이 안배하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노력해야만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계율과 명상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쏟는 노력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은 마침내 예수가 그랬듯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치 않음을 배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순종의 완전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잘 배운다면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명을 수행했던 위대하고도 짧은 기간 동안 항상 이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의 왕국을 찾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만을 돌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계곡의 백합꽃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계곡의 백합꽃을 보살핀다면 어찌 우리를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백합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 중 예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을 자칭하면서도 예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가 신께 순종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 신께 순종하거나 적어도 신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은 우리 안에 있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원하

느라고 정신없으면 신은 우리와 연결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속의 침묵이나 살아 있는 사자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도 갖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가 자신을 희생한 것은 다음의 교훈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썩먹고 녹슬 것이니.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그곳에서는 영원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금고를 만들어 돈을 넣어 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천국에선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풍족히 주어집니다. 그러면 왜 예수는 천국에 재물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의 말은 공력을 쌓고 신을 사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을 사랑하느냐고요? 그의 계율을 지키십시오. 열 가지 밖에 안 됩니다. 몇 개밖에 되지 않는 데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이나 어려움과 비교하거나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직장이나 학업을 유지하느라 어마어마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비하면 지키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하루에 세 끼밖에 안 먹고 몇 벌의 옷만 입을 뿐인데도 그 모든 것을 유지하느라 너무 고생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지속하거나 사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직장의 온갖 규칙을 지킵니다. 그렇다고 사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계율을 지키면 신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율을 무시합니다.

신은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는 매일 우리를 찾아와 “이봐, 너는

계율도 지키지 않았고, 또…….” 하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상사나 친척, 친구, 아내, 남편만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까다로운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괴롭더라도 우리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나 두려움 때문에 참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의 계율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왜 채식을 하느냐고 묻는데, 그것은 첫 번째 계율이 “죽이지 말지어다.”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신이 창조하셨습니다. 신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동물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허락할 리도 없지만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신은 우리에게 동물을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스려라. 그들이 너희의 친구가 될 것이다.”라고만 했으며, 또한 각 동물들에게 맞는 갖가지 양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들판의 모든 풀과 나무에 열매를 만들었으니, 이는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다. 이것들이 너희의 양식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동물들이 너희의 양식이다.”라고 말한 구절을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신은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아마 동물을 죽이는 것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서로 죽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만! 그만! 차라리 동물을 죽여라!”라고 했던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죽이지 말라고는 할 수 없었으므로 살생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신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지구를 파괴했던 겁니다. 적어도 국소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파괴했습니다. 자! 인

류의 역사를 보면 신이 세상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파괴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이 모두 살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병자나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신의 분노를 샀을까요? 그들 중 그 누구도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말지어다.”가 살인만을 뜻한다면, 어떻게 늙고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살인을 했겠습니까? 그럼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동물을 죽였고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 틀림없습니다!

“암염소나 수소를 죽여 나에게 바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손은 무고한 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멈추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니라.”라고 신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신의 계율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이런 재난들을 이용해 우리를 일깨우고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맛들을 좋아한다면 이는 우리를 또 다른 욕망으로 이끌어 우리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세상에 더욱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지어다.”가 첫 번째 계율인 것입니다.

예수가 매우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난 것은 신의 왕국에는 보다 영원한 세계들이 있으니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고 좋은 모범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나의 왕국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신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완전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다”고 했는데 왜 괴롭고 텅텅만 한 이 세상에 연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많은 방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놀라운 의미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보다 많은 결론에 도달하고 더 많은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매우 젊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애인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유명해진 후에는 이 세상을 즐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가야 할 때 바로 떠났습니다. 그는 명성에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처럼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예수보다도 높고, 그만큼 잘생기거나 지혜롭지도 않으며, 그만큼 사랑과 존경을 받지도 않고 찾는 이도 없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이토록 집착해야 합니까?

예수는 십여 년 동안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룰 수 있는神通력도 아주 많았으며, 심지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해 봤자 주스나 조금 얻으면서 왜 이 세상을 놓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는 말없는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이며, 그래서 나를 포함해 많

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예수가 당한 대우를 읽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번은 방에 혼자 있을 때 큰 소리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크게 울었지요. 물론 나는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나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신의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율을 지켜라.”라고 했으니까요. 예수가 원하는 것은 이게 다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신이나 예수가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역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신과 예수는 우리가 계율을 지키면 이 세상이 더 나아지고 더 많은 이로움과 평화, 더 많은 행복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도 고통 받고 불행하기보다는 기쁨과 편안함을 누리면서 우리 자신이 영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신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낀 탓에 계율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의 계율을 무시하여 재난을 당하고 고통 받으며 울부짖고 난 후에야 신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를 일깨우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자 아마도 이름은 다르겠지만 다시 한 번 ‘사자’를 내려보내야 합니다. 예수 또한 “신은 우리에게

게 위로자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위로가 필요하거나 삶의 방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같은 영혼이 각기 다른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념을 가르치고 똑같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신이 우리에게 보낸 위로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 중 누구 하나를 찾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의 사자나 위로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신의 계율을 지키고 신을 생각하며 늘 신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의 은총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그의 희생은 헛될 것이며, 우리는 그에게 감사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는데, 무엇 하러 회개하고 신을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라고 했듯이 우리는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면 신은 “귀찮게 일부러 두드리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아라. 아무튼 줄 테니까.”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신은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것을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신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 고난을 통해서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빨리 배워서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구해야 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은 그냥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예수가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씻었다고 믿는다면 왜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까? 뭔가가 부족한 게 분명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신실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면의 신의 왕국을 찾지 못한 탓에 내면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는 “신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의 왕국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을 남겼어도 열쇠가 있는 곳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겐 보물이 있다. 내겐 보물이 있어. 보물이 있단 말이야.”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지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묻고 또 물어서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문이란 문은 다 두드려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올바른 문을 찾을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은 매우 짧고 무상하며 늘 위협스러운데도 의지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말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쉬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남아서 더 즐겨도 좋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4 장

내면의 소리는 무한한 사랑을 창조한다

4장

내면의 소리는 무한한 사랑을 창조한다

1989. 6. 15. 브라질

최소한 4, 5개국은 되는 여러 나라에서 오신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런 국제 모임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오늘 이 국제적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집에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그 행복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예,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신의 축복이 이 모임에 두루 퍼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이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첫째, 나는 내 제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스승’인 나를 매우 만나고 싶어하는 아주 신실한 제자들이 있어서요. 중국어로 스승(師父)은 출가 스승을 뜻할 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큰스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는 내면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영원한 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이 힘과 만나야 할까요?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일명 ‘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천국을 불성佛性, 도道, 조물주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이나 서양에서는 내면의 신의 왕국 혹은 신이라고 하고요. 우리 모두는 이 천국,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발견하여 사용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일은 너무 많고 압박감도 너무 큰데 우리 힘은 너무 미약하다고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이 방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힘은 소위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이 힘을 꺼내 사용하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이나 직장, 가족 관계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을 찾거나 성불하고자 명상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세상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산에 은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많은 요기yogi들이 인적이 드문 히말라야 같은 조용한 곳에 은둔해 수행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사업이나 가족에 대해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히말라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높은 산으로 안거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부처나 그리스도나 스승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신, 천국과 소통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진정한 본성과 만날 길이 달리 없다는 뜻입니까?

가톨릭에서는 “신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며 불교에서도 “부처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찾으러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합니까? 예, 우리는 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편이 가장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직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모두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히말라야로 간다면 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아이들도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논리적일뿐더러 대를 이어야 하는 중국의 전통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광활한 땅에 비해 인구가 적어서 아이들이 더 많이 필요한 브라질 정부에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국가 계획과 대를 잇는 중국의 전통, 여러분의 일, 그리고 사회적 여건에도 도움이 되는 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문은 중국어로 ‘관음觀音’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본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 내면의 본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진동으로 불교의 ‘불성’, 가톨릭 성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이나 ‘목소리’로 나와 있지요. 우리가 내면의 진동, 즉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곧 신, 그리스도, 부처와 소통한다는 것을 뜻하며, 자신의 불성, 또는 내면의 신의 왕국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많아질수록 내면의 신, 또는 내면의 스승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한정된 마음만을 사용하고 내면의 무한한 힘을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발견하기만 하면 결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자신의 힘을 발견했고, 예수 또한 그 내면에 있는 최고의 힘을 찾아서 위대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온 세상의 숭

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나 석가모니불을 숭배해도 좋지만, 우리 자신도 그들처럼 위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불은 “나는 부처가 되었으니 너희도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예수 또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 동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동등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수행했던 똑같은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법문이 바로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귀기울이는 관음법문입니다. 이 본성이 곧 신의 왕국, 신의 힘, 또는 불성이며, 이 내면의 힘과 교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위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더 많이 배울수록 더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중국말에 “부처와 더불어 쉽 없이 공부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내면으로부터 배우라는 뜻입니다.

나는 중국인 청중들에게 포르투갈어나 영어를 모르면 그냥 내 눈을 쳐다보기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눈으로 이해할 테니까요. 통역은 단지 두뇌를 위해 필요할 뿐, 눈은 메시지를 영혼에 바로 전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언어를 몰라도 내 눈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무언가가 느껴질 것입니다. 깨달음·평화·복·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 언어이자 사랑과 행복의 언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영어 등 이런 복잡한

체계가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 품에 안으면 그들은 서로 완벽하게 통합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도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고양어도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둘 중 누구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언어, 마음의 언어를 일깨워 주려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든 이런 언어로 서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모성애와 부부애, 우정에서부터 나라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물과 꽃·벌레,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보이지 않는 귀신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온갖 중생을 위한 사랑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귀신들도 우리를 사랑할 테니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이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써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 모든 존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신으로서 동양에선 이를 '내면의 부처'라고 부릅니다. 사실 부처와 신은 같습니다. 동양의 부처는 사랑, 자비를 뜻하고 서양에서의 신은 사랑을 뜻하므로 둘은 서로 같은 것입니다. 예. 부처와 신이 사랑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발견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고 있긴 하지만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가 내려와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부처·모하멧·소크라테스·노자·장자도 모두 같은 것을 가르쳤

습니다. 나 역시 똑같은 고대의 메시지를 일깨우고자 이 나라에 왔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위대한 사랑을 계발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이 사랑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단히 위대하여 우리는 이 사랑을 느끼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이 위대한 힘을 왜 사랑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이 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씻어 주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떤 나쁜 일을 했든 이 사랑을 만나서 알게 되면 우리는 아기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한계·과거도 모르고 오직 현재만을 압니다. 예수는 이 사랑으로 제자들의 죄를 씻어 주었으며, 부처는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불국토로 돌려보냈습니다. 인도의 크리슈나도 이 사랑을 지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도 사람들의 사랑과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큰스승들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의 스승들을 모두 열거하려면 하루, 이틀, 사흘을 가지고도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알고 숭배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스스로 스승이 되라고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여러분 또한 예수·크리슈나·부처·모하멧·노자·장자 등과 같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위대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찾지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주거나, 예수나 부처가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지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를 일깨워 주고, 우리의 지혜를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손을 잡고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며, 계속 나아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찾은 후에는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신의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왕국의 진정한 의미이며, 축복·행복·성인의 상태를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면 기록하고 행복하며 환희에 차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의 왕국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환희에 차고 행복하므로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는 신의 왕국도 정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국토·정토·천국·신의 왕국 등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때마다 행복하고 더없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이 갈수록 더욱 지혜롭고 더욱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신의 왕국, 불국토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국토를 여러 번 보고 나면 부처와 같이 현명해지고 부처가 됩니다.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신의 왕국에 자주 갔다 오면 신과 하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왕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선언했던 거지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예수

를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나는 신과 하나가 되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하거나 “나는 부처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역시 이해하기도,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목적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국토가 있는지, 신의 왕국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문 때 이러한 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 성인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 주위에 후광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내면에서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의 전류로 충전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역시 이 전류로 충전된다면 빛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는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천국에서 흰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빛이나 최소한 그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의식儀式일 뿐 더 말할 게 못 됩니다. 입문 때 여러분은 예수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도 누군가 신을 보았을 때 “하느님은 큰 불기둥과 같고, 천둥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입문할 때 우리는 이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높은 수준의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과거의 성인들처럼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믿

을 수 있으며, 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경에서도 보살이 서로 다른 소리를 듣고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입문할 때 이 빛을 보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바른길로 들어섰고, 진짜 깨달았으며, 부처 생전의 제자와 같은 보살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장

깨달은 스승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5장

깨달은 스승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1989. 6. 16. 브라질

여러분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낮에 바빠 일하고도 저녁에 또 이곳에 와 주신 여러분의 신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루, 즉 스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스승이 되는 길은 어렵지만 스승을 찾기로 그보다 더 어려우며, 그 스승을 믿고 신뢰하며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는 위대하고 완벽했지만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스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천 번도 더 야단쳤습니다. (대중 웃음) 심지어는 한두 제자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요기인 밀라레빠와 그의 스승 처럼요. 아마도 여러분은 밀라레빠의 이야기를 잘 모를 테니 나중에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스승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일을 그

스승은 모두 했습니다. 가령 사람들이 와서 “스승님은 절대로 화를 안 낼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는 마치 정반대임을 보여 주려는 듯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스승이 되려면 미쳐야 합니다. (대중 웃음) 여러분이 정상이라면 여러분은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대이고 거꾸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을 우리는 칭찬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의 우스운 면을 보게 되어 여러분은 아주 행복하게 미칠 수 있습니다. 아주 균형이 잘 잡힌 상태로 미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이 ‘미친’ 스승은 한 제자에게 감자 두 개를 주며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반드시 감자 두 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자를 다시 불러서 말했습니다. “감자 두 개를 꼭 먹어야 한다.” 그래서 그 제자는 스승에게 감자 두 개를 받아 들고 시냇가에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감자 두 개를 먹는 건 아주 쉬운 일이잖습니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될 겁니다. 누구라도 감자 두 개는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제자는 감자를 먹으면서 “스승님은 무슨 생각이신 거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승을 따른 지 오래됐기 때문에 스승의 말씀에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를 다 먹고 나서 다른 감자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자 굶주림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

지가 와서 애걸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 감자를 주세요. 당신은 한 개라도 먹었지만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 감자를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승을 따라야 할까요, 자비심을 따라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스승은 감자 두 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어떤 일에서든 결코 스승의 뜻을 어겨선 안 된다’는 규칙을 따라야 하니까요.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우리는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건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스승과 거지 사이를 오가며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지가 울면서 땅에 쓰러지더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재빨리 감자를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후 제자는 집으로 갔고 거지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이날 겪은 일을 스승에게 보고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큰 소리로 야단쳤습니다. 스승은 괴로운 나머지 소리쳤습니다. 제자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이지요. 제자가 자기 말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두 번째 감자는 최고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축복이 담긴 감자였던 반면, 첫 번째 감자는 세속적인 부와 성공, 명성을 얻을 축복이 담긴 감자였던 것입니다. 스승은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너의 운명인가 보다. 네가 박복해서 그것을 못 먹은 거지!”

그후 그 제자는 속세에서 성공하여 많은 돈과 명성을 얻었지만

스승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이자 궁극적인 목표에는 끝내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부분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며 아무 예고도 없고 스승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주 쉽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겨우 감자 두 개를 먹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대중 웃음) 그러니 다른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겐 수천 년 동안 굳어져 온 많은 선입견과 편견, 사회적 관습, 여러 형태의 교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세뇌당해 와서 짧은 시간에 씻어 내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옳고 그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픈 얘기가 우리의 깨달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환상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스승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킬 때마다 우리는 딴 짓을 합니다. ‘이건 아냐, 나는 알고 있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고,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스승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항상 우리의 편견과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장님이고 병어리이며 귀머거리입니다. 오직 스승만이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흐릿하게 보거나 반만 보거나 전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환상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환상, 마야의 거대한 세계는 진실

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여서 믿어선 안 되는 것들을 믿도록 만들며, 깨어난 깨달은 존재가 와서 이 환상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까지 우린 아주 충실하고 착하게, 순종적으로 그것을 따릅니다. 그때가 돼도 우리는 빨리 깨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아침에 자명종이 울려도 “아~ 졸려~” 하면서 그냥 울리게 내버려두거나 끄고 다시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종교가 많고, 소위 해탈에 이르는 길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지요. 이 세상의 인구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에서 누구도 구원 받지 못했으며, 받았어도 아주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많은 사람들이 해탈하여 고향으로 갔거나 천사나 신의 조수, 아들딸이 되어서 천국이나 어떤 곳에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의 인구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큼 위대한 스승이든 부처·노자·장자·크리슈나·소크라테스 등과 같은 과거의 큰스승만큼 위대한 스승이든, 아무튼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는 완전히 깨달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해탈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외 다른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엔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판 길을 어슬렁거릴 뿐이지요. 걷는 건 괜찮지만 바른길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의 은총으로 완전히 깨달은 스승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예수는 생전에 “나는 길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또한 부처도 “너희가 부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일천제(一闍提)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될 수 있고 해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그들이 살았을 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진리였고,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참 스승에게도 진리입니다.

자, 이제 스승이 되는 법을 말해 주겠습니다. 스승을 찾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자신이 스승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스승을 볼 때마다 스승이 되는 길을 요구해야지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가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는 모두에게, ‘스승의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 왔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이 되는 길’ 말입니다. 예수 또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행하는 어떠한 기적이든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처 또한 “내가 부처가 되었으니 너희도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부처(Buddha)’란 깨달은 스승을 뜻합니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인 ‘보리(Bodhi)’에서 유래되었는데, 보리는 지혜를 뜻합니다. 보리를 가진 사람이 ‘부처’인데, 이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스승을 뜻합니다.

왜 ‘깨달았다(enlightened)’고 할까요? 깨달을 때 빛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에 빛이 생기고, 온 우주에 여러분의 빛이 있게 됩니다. 이 빛은 너무나 커서 밖으로도 빛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나 부처, 위대한 성자들의 주위에 빛과 후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승이 되고 싶다면 빛이 있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후엔 두 종류의 ‘삼매’, 즉 여러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법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삼매에 들 때 지혜와 희열을 얻고, 삼매에서 나올 때는 이 희열과 지혜를 세상과 여러분을 필요로 하거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줍니다. 어떤 스승은 삼매에 깊이 빠진 나머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려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스승의 훌륭한 제자들도 또한 스승 곁에 있거나 명상할 때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깊고 심오한 삼매에 있을 때는 자신에게 육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리하는 도중에 삼매에 빠지기라도 하면 냄비가 타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대중 웃음) 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때려도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야단을 맞아도 그들을 껴안고 키스를 합니다. (대중 웃음) 예.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분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좋고 나쁜 것,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 등 분별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먹지 않아도 되고 어떤 욕구나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며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온 세상이 행복에 차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느낍니다.

나의 일부 제자들은 이런 삼매를 많이 체험하는데 나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스승님이 표정을 흉내내심) 함께

일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내가 부르면 “예, 스승님.” 하고 대답을 하는데, 내가 뭔가를 시키면 또 “예.”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만히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혼내거나 두들겨서 삼매에서 나오게 합니다. (스승님 웃으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삼매에 집착하게 되어, 가족도 잊고 처자식이 굶는 것도 모르며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통 받는 중생들도 잊어버립니다. 설령 우리가 희열의 상태에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삼매는 좋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삼매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이와는 다른 삼매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종류가 있지만 나는 여러분이 스승이 되거나 스승의 경지에 거의 근접했을 때 알게 될 대표적인 두 가지 삼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스승은 진정한 스승, 힘이 있는 스승으로서 신과 하나가 된 스승이지, 오늘날 많이 있는 ‘세칭 스승’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스승은 예수나 부처와 같은 사람입니다.

부처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려 나서기 전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첫 번째 종류의 삼매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49일 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 또한 진리를 전도하러 나가기 전 이런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는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 40일간 사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하멧도 대중을 도우러 나서기 전 동굴에 앉아서 이런 삼매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후엔 삼매에서 깨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삼매를 즐기고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하자 신이 누군가를 내려보내 “안 된다! 안 돼! 일어나 나가서

세상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후에도 그들은 매일 명상을 했으나 정상적인 상태의 또 다른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건 24시간 동안 삼매에 들어 있으면서 동시에 24시간 동안 삼매 밖에 있는 것입니다. 법열 속에 있되 동시에 세상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삼매인데 얻기가 힘듭니다. 첫 번째 삼매도 얻기 힘든데 두 번째 삼매는 얼마나 얻기 어렵겠습니까!

첫 번째 삼매에 들 때는 법열에 잠겨 있지만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가르치는 데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신만 즐길 뿐이지요. 설령 여러분이 원한다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고,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일의 방식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승이 되어 다른 중생들을 돕고 그들이 해탈하도록 도와주려면 삼매와 두뇌의 기능이 모두 필요합니다. 삼매는 여러분에게 내적인 힘을 주어서 원하는 누구에게든, 혹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든 축복을 줄 수 있게 해줍니다. 삼매 없이는 누구를 축복하거나 도와줄 수 없으며 무소부재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두뇌의 기능이 없으면 고통 받는 평범한 중생을 이해하거나 그들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고 삼매에 있되 삼매에 있지 않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스승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진정한 스승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스승들은 첫 번째 삼매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척 보고 삼매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스승들은 성스럽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스승들은 꽃을 던지며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눈을 번쩍 뜨곤 “오,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첫 번째 형태의 삼매에 든 사람들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한 기록한 성인입니다. 그런 성인이 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명상할 때 삼매에 들지도 못하고 세상사를 잊지도 못하니까요. 산속에 있어도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온갖 잡념과 번뇌, 갈등으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깊은 삼매에 든 채 아주 평온해 보이고 늘 미소 띠는 얼굴로 우리를 축복해 주는 사람을 보면 그가 아주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1분이나 5분만이라도 그런 깊은 삼매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삼매, 평온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큰 성인으로서 위대한 힘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매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런 내면의 평온을 갖고 있으면서 온갖 사람들을 접하며 그들을 환상에서 끌어내기 위해 외적으로 활동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수나 부처처럼 완전히 깨달은 스승의 경지입니다.

따라서 스승이 되기도 어렵지만 스승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스승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온갖 사람들과 온갖 기질, 온갖 정신적 장애들을 다루며 그에 상응하는 각기 다른 약을 주어야 하는데, 그때 그는 보통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꾸지람이 필요한 제자는 꾸짖고 사랑이 필요한 제자에게는 사랑을 줍니다. 두 제자 다

사랑을 받지만 상자와 포장지 다른 것입니다. 포옹은 한 포장지에 싸인 사랑이고, 꾸지람도 포장지는 다르지만 사랑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깨닫지 못해서 그런 스승의 특별한 점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스승은 몇 시간씩 앉아서 깊은 삼매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상상하듯이 항상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달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스승이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평범한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스승이 여전히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스승의 반응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감자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만약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지 못한 데다 스승을 처음 보았거나 스승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스승이 감자 두 개를 주고, 게다가 다 먹으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지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자라면 우리 집에도 많아. 큰 축복과 영적인 재산을 구하러 스승을 찾아왔는데 겨우 감자 두 개를 주다니!’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돌아서서 푸념을 할 것입니다. “감자라니! 나는 감자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감자를 싫어하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깨달은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 내 마음을 읽기는커녕 감자나 두 개 주다니! 감자를 한꺼번에 다 먹으라는 말을 왜 몇 번 씩이나 반복하는 거야? 감자를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나?” 예.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따지거나 하면서 감자 두 개에 담긴 뜻을 모릅니다.

스승이 사랑과 축복을 담아 주는 선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세계, 영

적인 힘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포모사와 다른 나라의 내 제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든 얼른 받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라면 그들은 항상 매우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함께 나갈 때면 그들은 땅콩이든 사탕이든 뭐라도 받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있는 대로 함께 나눠 가지는데, 그들은 그것에 매우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밖에 있을 때 외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도 있는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받는 것을 보고는 다가와서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비록 그들이 입문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요구하면 나는 그들에게도 줍니다. 나에게서는 입문자와 비입문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 다 신이니깐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재미있어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땅콩이나 사탕을 받고는 당황해합니다. ‘뭐야, 땅콩 하나? 집에도 많은데!’ 하고 생각하겠죠. 심지어 도로 던지기도 합니다. (대중 웃음)

그래서 나는 때로 공공연히 주는 것을 꺼리며, 제자들이 대중 앞에서 축복을 요구할 때 거절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여기거나 비판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지요. 그건 그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나에게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들의 미래엔 장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중국어로 ‘업장’, 또는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하는데, 이는 여러분이 행하는 선악이 여러분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스승이 되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포스터나 전단에는 ‘즉각 깨달음’과 ‘일세해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

리는 ‘이생에서 스승이 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승도 될 수 있지만 그건 더 어렵고, 최소한 해탈하거나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이나 성인, 보살의 경지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스승의 생전에 후계자가 나온다면 아주 운이 좋은 것이라고들 합니다. 미국에 인도에서 온 요가난다Yogananda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는 생전에도 아주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하지만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제자나 추종자들 가운데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와 똑같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요.

따라서 해탈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완전히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나 스승, 그리스도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예. 나는 어렵다고만 했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쉽고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승을 믿고 따르며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에고는 우리의 지혜와 스승의 경지에 이르는 데 있어 가장 나쁜 적이며, 죽이기도 어렵습니다. 남을 다스리기는 쉬우나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복한 자가 최고의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관음법문으로 명상하면 이렇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해탈의 관음법문, 신의 내적인 힘은 서서히 우리의 장애를 없애고 선입견을 씻어 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명성·부·권력에 대한 갈망도 없어질 것이며, 이 세상의 고통·슬픔·행복 등은 여전하겠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갖되 아무것도 없으며,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 그릇처럼 되어 신의 지혜와 사랑으로만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비어 있을 때라야 신이 지혜와 사랑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서 신이 채워 주시려는 신의 모든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신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예수의 말처럼,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 노자의 말처럼 말입니다. 두 성인의 말씀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6 장

구원자는
세세생생 존재한다

6장

구원자는 세세생생 존재하다

1989. 6. 17. 브라질

신의 이름으로 이 국제적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을 기억하고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 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은 누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이 원하면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되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신은 인간으로 화현하여 우리가 삶의 신비를 알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속박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2,000년 전 그는 나자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드러냈으며, 2,500년 전에는 고타마 붓다란 이름의 한 인도 남자로 화현하셨습니다. 고타마는 그의 이름이고 붓다는 그의 직함이었습니다. 마치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며, 바오로가 이름이고 '산타', '산', '상'은 그 직함인 것처럼 말입니다. 상파올루, 산호세라는 지명이 있는데, '상'이나 '산'은 이미 성인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일컫는 직함

입니다.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 사람들이 '아무개 박사'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지요.

수백 수천 년 전 신은 중국에서는 노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와 인도, 다른 나라에서는 각각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크리스나 등으로 많은 남녀의 몸을 빌려 화현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의 현신이었기 때문에 위대했으며, 보통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초인(超人)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수백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신은 당신의 자녀인 인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몸을 계속해서 바꿔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경전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미륵불이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재림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아무도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은 항상 우리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신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치고, 해탈시킬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신의 왕국을 갈망해야만 이 위대한 존재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나 다른 많은 곳에서는 “제자가 준비되었을 때 스승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스승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찾았는지 모르겠군요. 찾았습니까? 제2의 그리스도, 미륵불, 여호와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으며 아직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일

어나지 않았다고 믿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교인들 또한 미륵불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크교도들도 구루 나낙(Nanak) 이후 아홉 명의 후계자 이후로는 맥이 끊어져서 구루 나낙이 남긴 책을 숭배하고 거기에 돈을 바칩니다. 그들은 이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고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신은 것처럼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천 년 혹은 수백만 년에 한두 사람만을 보낼 정도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나쁜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며 그전에는 없었고 그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나 부처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요? 신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나 부처를 볼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그들은 모두 지옥으로 갔나요? 그럼 ‘중간 존재’인 우리 인간은 미륵불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너무 기운 빠지는 얘기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성이 있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하고도 무한한 신의 은총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인이라도 신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소리쳐 외치면 그 소리를 듣는다고 믿습니다.

나는 신이 언제나 우리를 도울 누군가를 계속 내려보낸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이 매우 자비로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나는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부처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럼 부처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성인들을 만났을 때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를 살아 있는 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위대한 존재로부터 많은 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는 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입문(세례)시켰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죄를 씻어 주고 그들을 대신해 죄를 짊어짐으로써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 늘 함께했던 베드로나 시몬 등 열두 제자들에게 스승이 되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들은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고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스승이 되기 위한 요건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규율을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는 그들도 구원했습니다. 심지어 창녀도 추종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추종자와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과 더 가깝고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아 예수처럼 진리를 전하도록 선택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신자나 추종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총에 의지해 세상을 떠난 후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도 옆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를 입문시키거나 어떤 의식을 행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은 채 “좋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것을 간청했으니까요.

그러므로 큰스승에게서 이로움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제자가 되어 스승이 되는 훈련을 받거나, 추종자가 되어 그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즉 하나는 스스로 훈련해 스스

로 스승이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귀의하는 길입니다.

인도에는 자기 수양과 훈련을 하는 제자보다는 귀의하는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 이런 헌신적인 신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스승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곳으로 몰려가 꽃과 과일을 바치고 스승을 안마하면서 은혜를 입기를 청합니다. 아주 약았습니다. 스승이 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승의 힘에 의지해 구원과 축복을 얻는 거지요. 만약 성인이 이런 과일이나 꽃, 안마 등과 같은 공양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규율을 잘 지키지 않아도 성인은 자비와 힘으로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돌아다니다 목이 마르자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나중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줄 터이니,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구원받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말한 귀의의 길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성인을 믿고 그에게 축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구원받는 거지요. 두 번째는 스승에게 입문하여 스스로 스승이 되는 것으로서,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다른 중생들도 구원할 수 있으므로 이 편이 보다 이상적입니다. 이 길이 더 고귀하고, 신이나 스승이 우리에게 바라는 길입니다. 스승이 되면 천당과 지옥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중생이든 구할 수 있고 어떤 세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더 수지맞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이 외 구원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이미 죽었지만 입문한 사람의 친척이나 친구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있더라도 우

리의 몇 대 손녀가 큰스승에게 입문을 하면 그 즉시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천당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입문한 사람의 친구인 경우에도 그 스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세 가지 길입니다. 물론 나는 자기 수련의 길을 강조합니다. 일단 우리가 입문하고 깨달음을 향한 자기 수련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수많은 과거·현재·미래의 세대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이 세대들과 친척들이 우리와 ‘업의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업의 법칙’이란 수많은 생과 세대 동안 계속되어 온 ‘주고받음’, ‘원인과 결과’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빚졌는데 생전에 못 갚으면, 우리는 한두 번 이상 그 사람의 아내나 아들딸로 돌아와서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되었다면 우리는 빚을 갚을 대상이 없으니 우리도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 죄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많은 동료 부하들과 은행털이를 모의하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다른 강도들도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은행털이에 연루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대통령이나 왕이 사면을 베풀어 강도 두목을 풀어주면 다른 강도들도 같이 풀려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면 여러분과 관련된 일가친척과 많은 세대들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친구, 배우자까지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다. 더불어 나는 이 세 가지 길을 이루

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현세와 내세에서 신의 왕국을 경험하도록 보증한다는 겁니다. 신은 내게 이런 식으로 당신 자녀들에게 봉사할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 제자가 나를 브라질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녀 자신이 이미 이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기회가 닿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로움을 얻으리란 걸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지금 바로 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강연은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제 못다 한 여러분의 질문지에 대답을 해 두었는데, 그것을 복사하러 가 보니 복사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그 가게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었는지 문이 닫혔습니다. 필요하다면 나 자신은 밤새 자지 않고 일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필요한 다른 장비들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행 중이라서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있진 못합니다. 제자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꼭 하고 싶은 질문은 오늘 다시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대부분의 질문은 이미 내면으로부터 답을 얻었을 것 같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7장

신을 사랑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7장

신을 사랑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1989. 11. 29. 파나마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밤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영광을 주신 신께 감사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경청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모임에 오기 전, 나는 나자렛 예수의 진실된 생애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못다 읽긴 했지만 그의 삶과 지혜, 희생이 나의 가슴을 숭고한 감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소중한 모임에 올 때까지도 나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 눈물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벅찬 사랑과 존경의 마음에서 우리나라 온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와 같은 숭고하고 보배로운 존재를 만나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예수가 수세기에 걸쳐 수백만 명의 마음에 영원히 남게 된 이유는 그가 행한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혜와 자비, 너그러움, 정의로움 때문이었지요. 그가 행한 기적은

찰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기적들이 위대했다 해도 우리 지성에 그리 큰 감동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논리와 지혜와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악이나 미술, 글쓰기에 대해 좀더 많은 재능을 부여받듯이 어떤 사람들은 치유력을 부여받습니다. 의사라고 해도 어떤 의사는 다른 의사보다 더 재능이 뛰어납니다. 예수가 병자를 치료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사람들은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 자신조차 그가 행한 기적은 그 이전에도 행해졌으며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고통과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신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갈망을 가져 봅시다.

예수는 위대한 신이 한 분 있으며, 이 신은 영원토록 자비롭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이 신을 '나의 아버지' 또는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여러분의 신앙이나 믿음, 이해력, 또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형제자매입니다. 사람들의 신앙과 이해력이 서로 다른 것은 제한된 지혜나 주위 환경의 영향 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와 이해력을 고양시키면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해탈시킬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원칙이므로 우리는

이를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을 일부만 검토해 보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예수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당신은 유대인이므로 물을 쥐어도 안 되고, 당신과 어울려서도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녀에게 모습은 다를지언정 우리는 모두 같은 아버지, 신을 모시고 있으므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를 보살피고 돕는 것이 형제자매의 의무이며, 만약 목마른 형제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을 신께서 보신다면 무척 언짢아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깊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계급·국적·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근절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항상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칙이 전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인류는 형제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를 형제자매로서 대하면 머지않아 모든 차별심과 증오, 오해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신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신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일까요?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없애고 그들의 친구의 身口意를 깨우치도록 도와주며 그들을 해치지 않는 행위라면 모두 신을 기쁘게 합니다. 이걸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얘기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아는 바를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는 것이며, 이 세상에 엄

청난 유혈 사태와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생애를 읽고 매우 감동했으며, 인류의 순수성에 대한 그의 통찰력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한편 그의 숭고한 이상이 너무 빨리 끝난 것이 슬펐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는 우리가 따를 영원한 원칙들을 남겼습니다. 그런 원칙 중 가장 으뜸가는 최고의 가르침은 “먼저 신의 왕국을 찾아라. 그러면 다른 것이 모두 더해지리라.”입니다.

나는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이자 최고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는 “먼저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인 공자도 “먼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수양하라. 그리고 나면 가정을 돌볼 수 있고 그후엔 국가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종교의 가장 으뜸가는 원리는 ‘먼저 자신을 알라. 우리 내면의 신의 왕국을 찾아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신의 왕국이 있고, 우리가 신의 사원이며, 우리 안에는 오로지 ‘신’만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 교리에서도 “부처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즉 우리 내면에 있다는 뜻이지요. 만약 우리가 내면의 이 부처나 신을 잇는다면, 우리는 자연 법칙을 모르고 신이 부여하신 지혜가 부족한 탓에 많은 불행과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내면의 신은 왜 우리의 무지가 온통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둘까요? 왜 우리 안의 부처는 잠든 채 우리가 이른바 ‘악행’이라는 것을 저지르게 내버려둘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래 갖고 있던 영광을 잊고 신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갖 세속적인 상황에 깊이 빠진 나머지 이 모든 놀이 속에 자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 이 영광, 이 자성을 되찾는다면 우리는 삶을 다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써 얻은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해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의 왕국은 이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다룰 수 있으며, 가장 고귀한 생각과 감성으로 그 지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요. 우리가 신의 왕국을 알 때 그 법칙도 알게 됩니다. 그 법을 알지 못하면 나쁜 행동을 저질러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나라에서 살 때는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곤경에 처하게 되고 삶에 장애가 생기며 삶이 어려워지게 되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예수가 말한 신의 계율을 예로써 살펴보면, 그 모두가 우리의 기대와 이해력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계율나 다른 위대한 종교의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깨우치며 인류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계율은 모두 신의 계율이며, 신의 계율은 결코 사람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신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이 생겼습니다. 교통이나 운송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속도로

나 길을 낼 때는, 사람을 보호하고 운전자나 보행자를 보호하며 교통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일정 교통 법규가 집행되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이 법규에 따라 운전하면 사고가 나지 않지만, 이 법규를 어기면 문제가 생겨 다치거나 생명을 잃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신과 친척 친지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신이 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신은 우리의 신앙과 관심을 시험하려고 불행과 고통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처에서 온갖 일로 신을 비난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술을 잔뜩 마신 채 우측통행 대신 좌측통행으로 운전해서 사고를 내고선 교통 법규를 만든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잘못입니다. 법에는 분명히 음주 운전을 해선 안 되며 운전할 때는 좌측통행이 아닌 우측통행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계율에는 “죽이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수십 세기 동안 해 온 일들을 보십시오. 일부 형제들은 지금도 신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서로를 적대시하며 전쟁을 하고 있지요.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신의 뜻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며,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복수를 하니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슬한 재난을 동반합니다. 전쟁은 한 나라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힘을 약화시키며, 그 도덕과 신앙심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또 신을 비난하겠지요. 그들은 “신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지속되게 내버려두며, 왜 서로를 죽이게 내버려두십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기상 이변과 기근,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을 주는 온갖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신을 또다시 비난합니다. 내가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정말 신이 계시다면 왜 이런저런 재난이 일어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신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나라에서는 대기의 구조를 흔들어 지구의 안정을 뒤흔드는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중이나 바다에서 폭탄을 터트리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고형의 물질과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종류의 물질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폭탄 실험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을 교란시키면 우주의 안정을 깨트리고, 자연의 순환을 방해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창문과 방문, 방이 있는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만약 집의 한쪽 모퉁이가 부서지면 방의 온도는 변합니다. 그 부서진 틈을 고치지 않으면 여름이라도 밤엔 추울 것입니다. 찬기와 비바람이 그 구멍을 통해 들어올 테니까요.

신은 우리에게 원자 폭탄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어

떤 경전에서도 신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라거나 서로 살육하는 무기를 만들라고 한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신이 자녀의 적을 파멸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구절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그런 품성을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신의 자녀의 적들도 신의 자녀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들입니다. 신이 스스로를 ‘질투하고 분노하는 신’이라고 가리킨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조차 그런 ‘신’보다는 훨씬 자비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내지도 않고 질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신을 사람보다 더 나쁘게 묘사한다면 어떻게 그런 신을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분노와 질투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가끔 실수하고 화를 내거나 질투할 때면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가 그런 거슬리는 성품을 가진다는 건 있을 수 없으며, 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소한 잘못을 했다고 수천 명의 자녀들을 죽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일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상상력이나 속성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진정한 신께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신은 완전한 사랑이고 지혜이며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 주고자 했던 신이며, 내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는 신입니다. 진정한 신은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모든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지혜인 진리로 되돌아가고, 무지 때문에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누

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면 신의 빛은 다시 싹트고,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입니다. 물이 아닌 성령과 지혜의 빛과 논리에 의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신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고통에서 벗어난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지혜가 열리지 않았으며, 깊은 참회가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세례, 혹은 소위 ‘입문’을 하는 순간에는 신의 빛을 보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신이라고 언급돼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니라.” 그래서 진정한 세례는 우리에게 이 말씀과 신을 만나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세례와 일반적인 세례의 차이입니다. 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례가 우리 내면에서 불려일으키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가 설교했을 때 다른 성직자가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영감과 신실함, 신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가르침을 설교할 때 신에 대한 깊은 확신과 깨달음, 신에 대한 아주 순수한 사랑과 지혜에서 영감을 받아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평범한 성직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지혜는 세상의 이득이나 명성과 권력에 대한 욕심

에 전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하고 진실했으며, 그가 설교하는 말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했던 까닭은 유명해지거나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참 사랑, 인류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에게 참 빛을 가져다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런 이유를 이해하기만 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만 계속 고통 받는 거지요.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여 어디에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치료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위생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과 운동법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의 계율과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가 건전해지고 신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신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요. 성경에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 충고를 따랐다면 이 세상은 진작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계율을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나라에서 우리 스스로 많은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가장 중요한 계율이자 첫 번째 계율은 “죽이지 말지어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율을 오해하고 있으며 첫 번째 계율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 감사절에 제사장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수많은

은 어린 양과 어미 양, 염소, 오리들을 신성한 사원에서 죽임으로써 신의 거처를 도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항의하며 “누가 이 모든 양과 염소를 죽여 내 제물로 바치라고 했느냐? 너희는 이 무고한 피로 젖은 손을 씻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기둥과 빛나는 지붕, 큰 방과 공간, 산뜻빛 정원 과 눈부신 구조를 가진 아름다운 사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곳은 지혜를 구하는 모임 장소이자 가장 높은 이를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당시에는 도살장이 되어 모든 제사장들은 피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를 맡았습니다. 지성인이라면 이것을 성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신으로부터 온 것을 “죽이지 말지어다.”라고 계율로 적어 놓았는데 그들은 이 계율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불행에 대해 신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 신이 살기 위해서 구운 쇠고기와 어린 양과 어미 양이 필요하고, 우리의 땀과 노동과 소득으로 살아야 하며, 너무 가난해서 고기를 사 먹을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산다면, 과연 그런 의존적인 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착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종종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만 하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데, 신이 늘 금과 은, 구운 쇠고기만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다는

게 상상이나 갑니까? 뭔가를 베풀기 전에 쇠고기를 요구한다면, 이는 틀림없이 성직자들이 만든 속임수이지 신이 한 게 아닙니다. 만약 신이 정말로 그런 것을 원했다면 쇠고기나 닭고기 같은 것을 받은 다음에는 그 대가로 은혜를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평하게 뭔가를 줘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이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제물을 바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병과 불행, 고통 등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원의 성직자조차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신을 바보 취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지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신이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항상 제발 이것을 해야 한다거나 저것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신을 위해서(For God's sake)”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우리를 위해서(For our own sake)” 이것을 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For your sake)” 저것을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제발’이란 말을 할 때 “신을 위해서(For God's sake)”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합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 질서 있

는 사회가 필요한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계율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우리의 참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이 올바른지를 배우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이 나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약을 처방해 주면서 담배를 줄이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잠을 푹 자고, 많이 걷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신의 계율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위한 것이며, 이 질서 안에 있는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의 평화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계율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이든 아니든 어기게 되면 우리는 그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업, 인과응보이며, 성경에서 말한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뜻입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 계율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계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의 계율을 어기는 실수를 많이 저질렀더라도 구제책은 있습니다. 뉘우치고 다시 노력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신의 왕국의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진정으로 참회하면 효과가 있다는 나의 말이 진실인지 시험하고자 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세례라 할 수 있는 입문의 순간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무지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신

에게 돌아가길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요. 그래서 이것을 ‘즉각개요’ 또는 ‘신과의 즉각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빛을 보고 신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말한 참회의 힘, 신과 선함에 대한 신실한 갈망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과거의 모든 불행과 죄를 깨끗이 씻어 냅니다.

이것은 자신이 먼지와 오물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폭포 밑에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폭포수는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묵은 먼지와 오물일지라도 모두 깨끗이 씻겨 냅니다. 폭포 아래에 잠깐만 있어도 완전히 깨끗해지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갖 먼지와 오물을 버리고자 하니까요. 그러니 신의 은총과 자비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회개하고, 지혜와 신의 왕국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나 불교 경전에서 읽었거나, 내가 승려라서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대로 설교하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체험했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며, 내가 그것을 시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쁘게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자 이 희망과 영광된 이상과 경험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쳐 있고 온몸으로 신의 은총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의심도 하지 말고 주저 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의 말이 그 당시의 성직자들의 말에 비해 보다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지닌 내적 확신과 내적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신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했다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도 얻었던 겁니다. 예수가 우쭐대거나 뽐내거나 거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졌던 확신과 내면의 힘, 최고의 지혜를 상기시켜 주리라는 걸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이상을 기억할 때 그들 자신의 가장 높은 이상과 확신과 지혜도 되살아 깨어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지,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과 그 자신을 존중하고 숭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매우 겸손하고 이기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언제나 신, 언제나 아버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모순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향이 매우 크며, 한 사람의 내적인 힘이 갖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 보면 많은 현자들이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소명과 지혜로 인도하는 반면, 많은 사악하고 무지한 자들은 사람들을 파괴와 어둠의 함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개성과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렇지요? 예.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고결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의 왕국을 찾아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라고 한 것이며, “먼저 부처가 되라. 그러면 중생은 스스로 제도될 것이다.”라고 부처가 말한 것입니다. 또한 공자가 “먼저 자신을 수양하라.”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지요.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먼저 정화하고 수련해서 품위와 고결한 지혜를 갖춘 ‘인간’이라 불릴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신修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먼저 자신을 닦아라. 그리고 나면 가정을 돌볼 수 있고, 그후엔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지요.

우리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훌륭한 도덕을 설파하고, 신이나 성인을 숭배할 사원을 짓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자선을 베풀고, 모든 나라에 평화를 요구하는 것 등의 고귀하고 칭송받을 온갖 활동을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확실히 효과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상황이 성공적이 될 것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우 운이 좋습니다. 어떤 믿음을 선택하든, 어떤 이름의 신을 숭배하고 어떤 교리를 따르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존중과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지요. 그는 혼자였고, 무지한 사람들과 교활하고 잔인한 성직자들에게 대해 속수무책이었으며, 그를 보호해 줄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처럼 되거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아주 기회가 좋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내년이나 다음 세기에 세상이 어떻

게 될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손자들, 대대손손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좋은 토대를 세워야 합니다. 훌륭한 부모라면 자녀가 좋은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힘과 청춘, 지혜를 모두 희생하지요. 그러나 자녀에게 교육이나 돈을 남기는 것과는 별개로 나는 우리가 자녀에게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세상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독교 신자들에게 불교 교리를 설교하려 한다거나 여러분을 내 종교로 개종시키려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아닙니다. 나는 오직 미래의 세대와 지금 세대 모두에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선사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나는 불교·기독교·힌두교, 또는 다른 종교의 배타적인 점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좋은 점을 보니까요. 또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세상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교리에 충실하고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고 원수를 사랑하도록 일깨울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세대들의 고통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조화로운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해 신의 계율과 영원한 원칙에 대해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원칙이란 곧 우리가 자비롭고 전지전능한 유일신에게서 왔으며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능력이 닿는 한 도와야 하며, 매일 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을 기억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순조로워지기 때문이죠. 신을 기억하는 것은 또한 그의 계율을 지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율을 지켜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채식은 남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은 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평화롭고 자비로운 방법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구약에 보면, 하느님은 들판의 모든 풀과 과일 나무를 우리의 양식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은 동물을 사람의 조력자와 친구로 만들었다”고 하지요. 이는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리되 죽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계율이 “죽이지 말지이다.”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생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빼앗으면 그것이 바로 살생입니다. 우리가 육식에 의존해 살아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입맛을 위해 살생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살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리란 건 압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내 의견도 아니고 내 계율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계율입니다. 신은 성경에서뿐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 심지어 이슬람교의 교리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이 계율에 별 관심이 없으며, 그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지만 어디를 읽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제나 승려와 같은 성직자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깨우치려

는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가끔은 힘이 듭니다. 사람들을 다소 불쾌하게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며, 권위와 무지에 항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용감해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완전하다는 것은 지혜롭고 자비롭고 영원토록 사랑이 넘치며 끝없이 창조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같이 완전하기를 바란다면 지혜를 찾고 무지를 버려야 합니다. 지혜롭고 성스러운 자에게서 그것을 구해야 하며, 우리는 사랑이 넘치고 자비롭고 창조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만물을 창조할 권리와 자녀들을 창조할 권리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어린이들과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합니다. 신은 당신이 구상한 창조적인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동업자인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신의 지혜를 얻지 못했으므로 신의 계획과 의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신이 최고의 우두머리이니깐요. 그는 뇌를 것과 버릴 것, 고칠 것, 파괴할 것을 압니다. 신은 파괴하고도 또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를 파괴하면 다시 만들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지혜롭지도 않고 힘도 강하지 못하니깐요. 언젠가 우리가 신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면 우리 손으로 파괴하고 창조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의도로 창조된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

다. 모든 생명이 고통과 죽음을 피하려 발버둥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이 죽는 광경을 보면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도망가려 합니다. 이는 신이 그들에게 살려고 하는 본능을 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개입해 그들의 생명을 억지로 뺏는다면, 그것은 신의 뜻을 훼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만물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은총과 장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깐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에 대해 신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덜 불행해지기 때문이지요. 수양을 하면 할수록 신구위가 깨끗해집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나 자신의 경험과 이른바 동료 수행자들, 즉 제자들의 체험을 통해 압니다. 우리는 매일 신과 접촉하니깐요. 입문식이 끝나면 우리는 신과 다시 연결되고 매일 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신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압니다. 신과 우리는 같은 본능,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평화에 기여하며 신의 계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장

신을 깨달은 자와
신의 메시아

8장

신을 깨달은 자와 신의 메시아

1991. 5. 29. 코스타리카

신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코스타리카 제자들의 요청으로 오늘 이곳에서 위대한 국가의 시민인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밤 우리가 같은 길을 생각하고 같은 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신을 알기가 왜 이렇게도 어려울까요? 왜 예수는 신에게 가는 길을 보여 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당신 아들을 희생시킬 필요 없이 신이 직접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압니까?

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왜 신은 우리가 당신을 알아보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복잡해서 신조차 어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이 이러저러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 이런저런 것을 해 달라고 신에게 지시했지만 정작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참된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신실하지만 신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더라도 모든 주의력과 신실함을 다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에게 최고의 신심을 바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물질세계에는 유혹과 편견, 선입견, 그릇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생활 방식, 인식과 신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최고의 신도 우리에게 직접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리에 다리를 놓기 위해 예수 같은 분이 와야 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는 예언이 많았는데도 마침내 그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의 환상, 즉 신의 아들이 온다면 그는 장엄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며 코가 머리 위에 있을 게 틀림없다고 믿는 환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불경에 묘사된 부처의 모습을 떠올리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모르는 게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스워 죽었을 것입니다. 부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나를 원망하거나 내가 불교를 설법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는 80가지의 특이한 형상과 32가지의 중요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자,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

요. 괜찮지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고 대부분은 잊어버렸거든요. 또한 그런 것이 부처라면 어떻게 생겨야만 한다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테니 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른바 경전에 따르면, 부처의 혀는 매우 길고 귀는 대단히 크며 양처럼 곱슬곱슬한 털이 온몸에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콘의 뿔처럼 머리에 큰 혹이 돋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처가 말할 때 이렇게 길게 혀를 내미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스승님이 흉내를 내심) 이러면 무섭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는 거위같이 걸었다고 합니다. 거위가 어떻게 걷는지 알지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성스러운 표시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자와 같고 어깨는 곰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동물과 같은 표시가 더 있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는 매우 이상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만났더라면 나는 아마도 “아니오, 됐어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가 지금 이 세상에 내려온다 해서 이런 표시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도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은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예수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 3년 반 만에 죽은 게 다행입니다. 더 오래 살았다면 아마 예수도 부처처럼 꾸며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약속대로 다시 나타나길 길고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할 테니까요.

우리는 예수나 부처가 인격체, 또는 육체로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영

혼으로 올 것입니다. 신이 보낸 영혼은 지상에 내려올 때 어떤 몸에도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크게 깨달은 성인이었으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한 일은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유일한 존재였지만 그 시대에만 유일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다른 누군가가 오게 마련입니다. 아니, 사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같은 힘과 같은 영혼을 가진 또 다른 몸입니다. 알겠습니까?

신의 이 힘을 담고 있는 자를 우리는 선택받은 자,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신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메시아를 선택합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열망하고 그럴 준비를 하고 정화하며 대기할 수는 있지만 선택은 신이 합니다. 각 시대마다 선택받은 자는 한두 사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드문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고 성스러워질 수 있으며 깨달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메시아, 예언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온 세상과 온 우주에 막대한 이로움을 줄 수 있으므로 굳이 공개적으로 신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즉 선택받은 자와 깨달은 사람 간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신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신의 힘이 있고 신의식이 있지만, 선택받은 자에게는 온통 인류를 돕고 고통을 받고 신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부처의 시대에 다른 많은 성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처럼 고통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떠난 후에는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낼 테니 슬퍼하지 마라.”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신을 깨닫고 예수처럼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될 것인지 여부는 전능하신 신의 뜻에 달렸습니다.

사실 예수나 부처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고귀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예수, 부처가 유일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은 사실이지만 또한 아니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나 부처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길 꿈꿀 필요는 없지만, 신을 깨닫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길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문이나 수행을 하든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신을 깨닫기 위한 것이지 부처나 예수처럼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걸 거부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진실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예수나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건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예수와 같은 신의 독생자가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을까요? 아니, 부처와 같이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당시 사람들의 온갖 오해와 모욕·공격을 견뎌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당시 대중들의 무지함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스승의 몸이 제자들의 업장을 일부분 견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승은 육신이 있을 때에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 당시 사람들을 위해 고통 받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나도 목에 하나 걸고 있지요.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스승님께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함)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인정의 표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매일 이것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스승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스승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과일과 꽃, 사랑을 가지고 오지만 또한 그 스승의 발에 자신들의 빛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신의 바다와 같은 자비가 사람들이 가져온 파편의 대부분을 씻어 내린다 해도 찌꺼기가 조금은 남기 때문에 스승의 육신이 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만이 사람들로부터 끔찍한 형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대나 인도의 많은 성인들의 삶에 대해 공부한다면 그들의 운명이 같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중 몇몇 스승들은 심지어 산 채로 불태워지거나 작열하는 태양 아래 뜨거운 철판 위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스승들은 산 채로 불에 구워졌고, 생체 해부하듯 조각조각 잘리기도 했습니다. 성스러운 땅이라고 하는 인도에서도 이러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채식의 하고 성스럽고 경전에 대해서

도 잘 아는 그 인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나 부처의 지위는 즐거운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고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 스승은 정신적인 고통도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많은 이들을 선택하지 않은 점에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스승이 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럼 내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합니까? 왜 신에 대해 명상해야 하지요?”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온 인류가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고대로부터 이 세상이 엄청난 진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처럼 문명화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큰스승의 가르침을 따른 덕분입니다.

스승이 이 땅에 오면 제자들이 고양되고 지혜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정화되고 일정 정도 의식이 고양되기도 합니다. 많은 스승들이 우리 지구를 축복한 결과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아져 오늘날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아직 천국의 이해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우주의 다른 많은 세계와 같은 의식에 이른 게 아니지요. 우리는 다른 세계에 비하면 아주 아주 어리고, 영적인 이해력에 대해서도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으로 생긴 공덕으로 가끔 천국의 세계를 방문할 수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영적인 공부를 계속해야 하긴 하지만 매우 진보돼 있고

매우 총명하므로 그곳의 스승들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과 공부하고자 하면 스승이 함께 있기만 해도 충분히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의심도 없고 질문도, 답변도 없으며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스승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지요.

하지만 이 세계를 보면 아무리 많은 강연을 하고 논쟁을 하고 사람들의 많은 갈망과 소망을 이루어 주고 수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도 우리는 그다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은 계속해서 여러 스승들을 이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는 스승은 누가 됐든 언어 문제와 사람들의 뒤떨어진 정신 능력으로 인한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 모든 스승들이 이 세상에 가르치러 내려오길 자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예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스승이든 이 세상에 내려오면 온 우주가 찬탄하고 환호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한 가족 구성원처럼 일종의 형제애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 어떤 별이 영적으로 뒤쳐져 있으면 다른 별들도 어떤 면에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족의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다른 식구들도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온 나라가 한 사람의 행동 결과를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쳐진 영적 가르침을 따라잡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이해력을 발전시킨다면 이 세상과 우주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 발전에 알맞다고 생각되는 길을 이미 찾았다면 매우 좋은 일이며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

택한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 그 길이 우리에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훌륭한 스승을 선택했는지, 훌륭한 법문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스승 또한 훌륭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훌륭한 제자이고 믿음이 강하며 제자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고, 그 길이나 스승의 가르침이 만족스럽고 더 많은 사랑과 지혜, 평화를 준다면 그건 정도正道입니다. 알겠습니까? 단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노력했고 온갖 수행을 하느라 노력했는데도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이 길을 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길이 아주 빠르고 신속하며 간단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선 너무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고 어려운 법문을 따를 만한 에너지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 삶이 예측 불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얻을 수 있는 것이 최상인 것입니다.

신을 깨닫기 위해 출가하기 전 나는 오직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저를 도와주소서. 아니면 저를 통해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소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당

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숭배하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선 그들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아마도 그 신실함이 신의 자비심을 감동시켰는지 나는 내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개성과 인간의 심리를 공부한 후 나는 신실함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을 깨닫지 못하는 건 오직 하나, 이 때문입니다. 신은 매우 가깝고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가까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이 이 세계의 물질적인 겉모습에 너무나도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신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설령 신이 우리에게 그러기를 바라다 해도 말입니다. 바로 이 유일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을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질세계를 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건 우리의 강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대단히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과 재물을 함께 숭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 집착하는 영혼, 간혀 있는 영혼들을 돕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몇몇 무리에게만 알려져 있다가 현대에 와서야 그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부처나 예수의 시대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 말 뜻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전세계에 널리 전해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달 수단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예수와 부처의 시대에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불평했으며, 또한 그 당시 예수나 다른 스승들을 믿었던 사람들은 박해받고 쫓기고 심문당하고 투옥되고 처벌받을까 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매우 강했으며, 오늘날의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더 감사했습니다.

메시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현대인들은 메시지의 가치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더 자유롭게 쉽게 얻을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비판도 받게 되므로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지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메시지를 얻고 스승을 만나고 수행하기도 어렵습니다. 함께 구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스승에게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우며, 스승의 영적 운동을 발전시키고 전개해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에 접근하기가 쉬워지면 “아, 이렇게 쉬워? 좋은 게 아닌가 봐.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걸! 아니면 다음에 하든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지요.

그래도 신은 늘 인류를 사랑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스승들

은 이 땅의 형제자매들에게 신성한 메시지, 최고의 방안, 최고의 법문을 가져다주고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환상을 갖습니다. 스승은 이러저러해야 하고, 신을 깨닫는 방법은 어때야 하며, 그런 방법은 아주 어렵다든가 어떠해야 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선입견과 외부 환경은 우리가 진리를 깨치는 데 종종 방해가 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물질계가 우리에게 너무 벅차기 때문이지요. 물질계는 우리에게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우리를 세뇌시켜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승의 일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신을 깨닫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긴 해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만약 쉽다면 뭔가를 깨닫는 게 그리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이 무엇인지, 아니 최소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여기에 있고 몇 년 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며, 왜 우리가 고작 몇 년, 몇 십 년을 위해 이곳에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의 쇠고기나 돼지고기, 야채를 먹고 이렇게 크게 자랐으면 적어도 그 이유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에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간단하고도 유일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깨닫고 신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죠. 우리가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의문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지위에 있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왕이라 해도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행복했으며, 우리 법문을 수행하는 제자들도 행복합니다. 그들은 정말 내면이 행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돈을 주거나 칭찬하거나 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그들이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인간의 몸을 받은 것은 오로지 신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 삶에서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삶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것이 인간이 고통을 겪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고, 전생의 잘못을 얼마나 참회했으며, 이생을 신을 섬기며 의미 있게 살겠다고 신에게 약속했던 일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생각에 일분일초도 낭비하지 않고 신을 깨닫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잊습니다. 그 기억을 지우는 것이 이 물질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했던 신과의 약속을 기억해 낼 때까지 스승이 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물질적인 두뇌는 기억하지 못해도 영혼, 지혜의 힘은 기억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생에서 가장 운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행운의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9장 1부

예수는 구세주 중의 한 분이다

9장 1부

예수는 구세주 중의 한 분이다

1989. 6. 9. 코스타리카

명상을 배우고 신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스승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내 제자들이 만든 나의 강연집을 읽으면 스승의 존재가 수도관에 비유되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수도관은 물을 집으로 운반해 줍니다. 수도관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물은 더러워지거나 집에 도달하기 전에 땅속으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우리 세상은 환상의 세계이고 물질의 세계입니다. 신이 이 세상에 내려온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신을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세상에 오려거나 그의 영靈이나 사랑을 세상에 보낼 때는 그것을 육체 안에 포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향수가 담겨 있는 향수병과 같습니다. 향수병이 등글거나 네모나거나 길쭉하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향수이지요.

그렇지만 향수병이 망가지면 향수를 다른 병으로 옮길 수 있습니

다. 예수는 하나의 병이었습니다. (대중 웃음) 예수를 놀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뜻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부처 역시 하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둘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처도 병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나 또한 하나의 병입니다. 아주 작은 병이지요. (대중 웃음) 그러나 그 안에 들어 있는 향수는 바로 신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것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못 깨닫고는 신의 은총에 달렸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원할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헐박할 수도 없고 신에게 한탄하거나 원망할 수도 없으며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릴 수도 없지만, 헌신하고 신실하게 갈망하면 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갈망은 때로는 아픔과도 같고 고통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아픔보다도 더 지독하지요. 그러나 일단 깨닫고 나면 그 아픔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선 그 아픔이 점점 더 커져 더욱 원하게 됩니다. ‘편안한 아픔’으로 변하지요. 내가 왜 ‘편안한 아픔’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이것은 마치 중독과도 같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신과 관련된 것들을 묘사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이런 셈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 마을에 예쁜 소녀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녀를 보고 싶어합니다. 이전에 그녀를 본 적이 없었지만, 여러분은 동경하게 되고 강한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녀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들은 나머지 보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욕망이지만, 가끔 그 욕망은 매우 절박해

져 ‘그녀가 거기 있는데 왜 난 못 보는 걸까?’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일단 그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와!”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 후엔 그녀가 더 보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그 소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재능이 있으며 얼마나 고결한지, 그리고 자기의 취향에 꼭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을 보기도 전에 이미 그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경전에는 신이 사랑, 영광, 영원한 기쁨이며, 신을 보면 그에게 빠질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을 본 적이 없고 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빠지지 않았습다. 단 한 번이라도 도취되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신에 대한 도취가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떨쳐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과 함께하기를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 결과 마침내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신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는 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예수만이 그 경지에 도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신을 깨닫는 경지에 도달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대단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전 시대의 수만, 수억, 수조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지옥으로 갔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합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말해 보세요. 예? 아니오? 좋습니다. 두 가지 대답을 다 수용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왜 “예.”입니까? 내게 설명해 보세요. 누가 “예.”라고 했습니까? 왜 신이 예수 이전의 수억 수조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을지 일어서서 설명해 보세요. 무자비하신 신이군요! “예.”라고 한 사람은 왜 신이 그토록 지독한지 설명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설명하지 못함)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성급히 말하지 마세요. (대중 웃음)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 자신과 다른 이들을 다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아니오.”라고 말한 사람은 어떤 이유인가요? 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는 신이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단지 그것을 아는 게 문제입니다. 신은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이 수용 능력을 키우고 영적 수단을 사용해 신과 접촉해야 합니다. 즉 내면의 존재를 이용해 내면의 눈과 귀를 열어 보고 듣고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함) 내면의 존재요. 예. 맞습니다. 알겠어요! 훌륭합니다. 내면의 눈과 내면의 귀를 열어 신을 보고 들으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신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모두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하이 스승이 신을 만나는 법을 알려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우리 대부분이 예수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오.”라고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동감입니다. 신은 항상 자비로워서 태초부터 늘 인류를 돌보아 왔습니다. 예수 이전의 사람들도 죄를 짓고 고통 받고 신을 필요로 했

으므로 신은 모세나 세레자 요한, 또는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모세 또한 신의 사자였습니다.

모세 이전, 수많은 영겁의 세월 이전에도 신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우리를 구해 신의 왕국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 네 명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만이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 이전의 수십억 년 전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이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나요? 이진 논리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신을 숭배하고 이해한다면 예수가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부처가 유일한 존재라고 믿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교인들은 서로 다툽니다. 우리가 사려 깊게 생각하고 깨달으면 예수나 부처는 둘 다 각기 다른 시대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신이 보낸 존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깨달은 후 신과 깊은 유대를 갖게 되면 매우 재미있어집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을 읽든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이 완전히 똑같은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읽었고 어떤 사람은 읽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은 조금 깨달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놓고서만 이야기하더라도 그가 유일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유일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예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했으며, 그의 축복은 그후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

터 이전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절반가량 잘렸고 검열을 받고 바뀌었으며, 많은 부분이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의 진실된 말과 잘못 해석된 부분을 서로 분별하고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 스스로 자신이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밝힌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는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기적은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러니 우리는 예수가 한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도 자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신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이 신의 독생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한 말과 “너희 모두는 신의 자녀이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도 앞으로 더 위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 모순된 게 아닙니다. 예수가 뜻한 바는 그가 이미 신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당시의 일반 대중들은 같은 신의 자녀였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 또한 “내가 부처가 되었으니 너희도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에겐 불성이 있다.”라고도 했는데, 이는 모든 중생이 그와 동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불성은 신의 영靈이나 ‘아버지’, ‘아들’, ‘성령’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신의 영

이고 아들은 그의 창조물입니다. 신이 만든 것은 모두 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자녀를 만들고 그 안에 성령을 심어 주는 거지요. 성령은 신의 본질로서,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신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부처·모하멧은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이 성령을 깨달았으며, 그 밖에 성 베드로·성 바오로·성 프란시스코·성 요셉 등도 성령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면의 성령을 깨달은 사람은 모두 신과 하나가 됩니다.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9장 2부

**내면에는 남자,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9장 2부

내면에는 남자,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1989. 6. 9. 코스타리카

자, 또 다른 주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내게 질문한 것을 오늘 오후에 읽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가르침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여성이라서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대중 웃음)

만약 이 세상에 여성이 없었다면 질문한 그 사람은 어떻게 존재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가 이 세상에 오고, 어떻게 부처나 다른 위대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근본과 은인에 대해 곧잘 잊어버립니다. 만약 우리의 어머니와 누나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대한 여성들의 은혜와 보살핌과 헌신을 그렇게 쉽게 잊는다면 어떻게 신을 기억하겠습니까?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과 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고 우리와 매우 가까우며 매일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늘 여성을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져 있고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본 적도 없는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사나 비난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 이 세상에 대한 여성의 공덕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성은 모든 부처의 어머니이며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성인들의 어머니입니다. 왜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겠습니까? 그녀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성모 마리아는 기적을 행하거나 누구를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왜 존경을 받을까요? 그건 예수를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게 한 공덕과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인을 낳은 여성은 존경하면서 왜 성인聖人인 여성은 존경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녀 테레사와 다르게 보입니까? 내가 성모 마리아보다 더 나쁜가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나쁜 일을 했나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나 잘못된 일을 가르쳤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내면으로 모두 같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그저 인식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인식입니다. 내가 '성인'인 여성이라고 한 건 우쭐대려 했던 게 아닙니다. 서양 용어로 묘사된 성인의 범주에 따라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난 어떤 범주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성인은 덕이 있는 사람이자 남을 사랑하고 도우며 신에게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달았고 자비롭고 신에게 헌신적인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성인인 것

입니다. 따라서 여기 서양의 개념에 따르면 나는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리가 있지요? (대중 박수) 고맙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니까요. 나는 단지 모든 것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진리를 확실히 납득시키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여자, 또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남자처럼요. 그들은 모두 같은 의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들은 둘 다 “나는 의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지요. 그저 졸업했다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예수가 자신이 성인이라거나 ‘형이상학 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겠습니까? 만약 의사가 자신이 의사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환자가 그에게 가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직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는 것도 일종의 직업입니다. 형이상학적 직업으로, 보수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안전, 칭찬도 없으며 때로는 감사의 말도 못 듣는 직업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보면 알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자신을 희생했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갚았는지를 말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몇 번이고 읊니다. 그의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람들의 무지와 잔인함에 읊니다.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며, 그가 위대한 성인이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불교 신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는 예

수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찬양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금기시합니다. 그들은 내가 불교의 출가승이므로 부처만을 찬양하고 불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모사에 있는 많은 출가승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중 웃음)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뇌당한 탓이지요. 마치 우리가 예수만이 유일한 존재이고, 신은 아주 무자비해서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했거나 그를 믿을 기회가 없었던 예수 이전의 수천, 수억의 사람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냈다고 믿도록 세뇌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교인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즉 깨달은 스승이 될 수 없다고 세뇌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든 관념을 거부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종교는 인류에게 희망·신앙·자기 신뢰를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든 잘못된 해석은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되 잘못된 해석과 세뇌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합니까? (큰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신을 찾고 진정한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은, 깨달음을 얻고 신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한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현금이나 조건, 구속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 절할 필요도 없고 나를 ‘스승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나를 친구나 ‘칭하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 가서 예전대로 성경을 읽어도 되고요. 그저 내가 입문식 때 알려 주는 방법으로 매일 신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좋습니까?



10장

지금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자

10장

지금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자

1989. 5. 28. 미국 새너제이

오늘 여러분을 보니 막 휴가에서 돌아온 것 같군요. 그렇습니까?
휴가 다녀왔습니까? 휴가를 즐겁게 보냈습니까?

가장 좋은 휴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신의 왕국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크고 작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짐·돈·휘발유·옷가지 등 가는 도중이나 여행지에서 필요한 물건을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의 마지막 날을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날을 준비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노후나 질병, 생명 보험을 준비할 줄은 알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필요한 보험인 ‘죽음의 보험’에 대해서는 누구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산모가 분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결혼할 때도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주며 이 경사 준비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을 떠날 때는 저승사자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불교 신자니까 내가 죽을 때는 부처님이 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고 불국토로 데려다줄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이라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와서 나를 하느님의 왕국으로 데려갈 겁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처가 해탈과 더불어 불국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말했으며 예수가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새로운 게 아니고 성경과 불경에 모두 언급돼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불국토와 신의 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충고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부처는 “만약 부처를 만나지 못하면 생사의 윤회를 거듭해야만 한다. 천인(天人)이나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이나 축생계에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국토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국토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지극한 기쁨과 최고의 행복, 즉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땅을 의미합니다.

부처란 무엇일까요? 다들 부처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이 말의 참 뜻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했듯이, 부처란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스승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스승을 만난다면 부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히브리어로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깨달은 성인,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며, 우리를 해탈로 인도하고 신의 왕국으로 되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처는 그런 스승이나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면 완전히 해탈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세계와 최고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기회가 아주 희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헤맬 것입니다. 팔만 사천 가지 존재의 세계를 헤매지만 결코 성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완전히 깨달은 완벽한 성인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부처의 말뜻은 이 려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은 예수가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한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말한 ‘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의 아들, 신을 완전히 아는 자, 자기 내면의 신을 인식한 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발견한 자를 뜻합니다. “보라, 신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지, 누구도 “신의 왕국은 밖에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 “신의 왕국은 가까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지요.

불교와 기독교의 경전뿐 아니라 다른 경전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시크 경전도 공부했는데, 그 경전은 정말 완벽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완벽하게 공부하지 못하고 조금만 공부한 게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이 책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언제 인도에 가면 한 권 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아디 그란트(Adi Granth)』라고 하는데 세계 곳곳의 고대 큰스승들의 말씀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적인 신의 힘과 내면의 빛, 내면의 진동, 우주의 소리

와 창조되지 않은 음악 소리를 찬양했습니다. 시크교를 창시한 구루 나낙은 예수·부처와 비슷한 말을 많이 하면서 성경에서는 ‘말씀’, 불교에서는 ‘음류·‘관음’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진동을 찬탄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 경전에서도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고 키워 내며 때가 되면 만물을 신에게 돌려보내는 이 내면의 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는 예고의 ‘나’, 거만하고 무지한 ‘나’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한 ‘나’는 진정한 존재를 뜻합니다. 이 진정한 존재는 모든 것을 알고 소유하고 만들고 성취하되 다스리지는 않는 존재입니다. 노자가 말한 “함이 없는 함(爲無爲)”과 같은 것이지요.

‘함이 없는 함(爲無爲)’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예고를 버리는 것으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경지에서 얻어지는 예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부처가 “자신이 보시한다는 것을 모른 채 하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이다.”라고 한 말이나, 예수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들은 똑같이 예고가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미 깨달은 상태였으므로 깨달은 ‘나’를 뜻한 것이었습니다. 깨달은 예수를 따르면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말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우리는 또 다른 깨달은 스승을 따라야 합니다. 그가 남자든 여자든, 인도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서 왔든 간에요.

최근 미국에는 에머슨Emerson이라는 위대한 깨달은 스승이 있었는데, 그는 예고가 없는 경지에 대해 이와 비슷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신에게 이 우주를 다스리도록 맡기면 우리 어깨의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지요! 우리는 하찮고 한정된 지능과 허약하기 짝이 없는 육체의 힘으로 모든 것을 떠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 지쳐 있고 머릿속에 걱정이 많습니다. 신에게 우주를 다스리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스리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매일 신께 “하느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야 하고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가게 도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좀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신까지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신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가 아무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낙담합니다. 때로는 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종교를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미신적인 사람으로 여기거나 그 종교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교에 귀의해도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를 믿든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힘일지언정 신의 힘, 어떤 해결 방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 성 요셉, 성 클라라와 같은 성인들에 대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큰스승들의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스페인어로 성 프란시스코가 맞습니까? 그들은 같은 사람으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성인이 되었습니까? 아마도 그는 아주 훌륭한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큰

성인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그가 혼자서 헌신적으로 수행했다면 매우 자비롭고 겸손하고 신에게 매우 헌신적이기는 하되 다소 낮은 등급의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등급의 진짜 성인은 부처·예수·구루 나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들의 모범적인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중생을 구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생사와 고통과 불행의 굴레에서 사람들을 구원했는지 압니다. 부처는 동시에 어디에서나 화현했으며 예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고통을 즉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며, 시크교의 구루 나낙과 힌두교의 크리슈나, 과거의 성인들도 그랬습니다. 과거의 성인들은 갠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높은 성인도 있고 낮은 성인도 있지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성인들의 힘과 행적을 통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명해져야만 큰 성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인들은 생전엔 유명하지 않았으며 질시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나 구루 나낙, 시크교의 10대 교주인 고빈 싱(Gobin Singh)과 같은 성인들은 사람들을 도왔던 일 때문에 여기저기 쫓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법했습니다. 이런 추종자들은 내적인 체험을 통해 이들 성인들의 말이 진실되고 진짜라는 사실과 이 성인들이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로부터 깨달음의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이 성인들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은 예수가 증거

를 주었기 때문이었으며, 사람들이 부처를 믿은 것은 부처가 깨달음의 증거를 즉각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들을 숭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질투심 때문에 그들을 곤경에 빠트렸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삶이 생존 당시에 꼭 순탄했다거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밑에 엎드려 숭배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스승도 있었겠지만 다른 스승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공개적으로 스승이 되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가 말한 ‘나’로 돌아가 봅시다. 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옥처럼 낮은 창조의 영역으로 간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깨달은 스승이 없으면 혼자서는 생존의 바다를 헤엄쳐 해탈의 피안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수영을 배울 수도 있지만 위험한 것과 같은 셈이지요. 수영을 잘하고 여러 번 강을 건너 봐서 어디에 소용돌이가 있고 어디가 위험하며 어디가 깊고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잘 아는 전문가에게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대양을 여러 번 항해한 선장처럼 여러분을 매우 쉽게 데려다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만이 유일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수천 년 동안 석가모니불만이 전무후무한 유일한 부처라고 믿습니다. 그건 내가 어제 말했듯이, 우리가 “나는 이미 부처가 되었으니 너희도 부처가 될지어다. 누구나 일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한 부처의 말을 잊고 있는 겁니다. 예수 또한 “만물은 신의 자녀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으며, 나보다 더 큰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했지 “나는 너희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며 너희는 할 수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들을 모두 잊어버린 채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은 거지요.

만약 천국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 내면에 있다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있는 곳을 찾아보거나 이미 내면의 왕국을 찾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일입니다. 또한 부처가 “불성은 너희 안에 있고, 모두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면, 절에 가서 나무 불상에 절하는 대신 우리 내면 어디에 부처가 있는지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성이 있는 곳을 안 다음에야 우리는 석가모니불을 더욱 경건하게 숭배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내면의 신의 왕국을 보고 난 후에야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그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알게 되며, 그러면 신을 정말로 숭배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무^無라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인 신을 아직 모르는 대부분의 우리는 신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만일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불행합니까? 우리가 빈털터리일 때 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곤경에 빠져 신을 부를 때 왜 도와 주지 않습니까? 신과 만나지 않고서는 신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서 이 사랑의 힘, 여러분 내면의 천국이나 불성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신이 수염을 길게 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 말입니다.

‘신과 접촉하면 녹아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순간부터 하루 24시간 내내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그 자리에 있고 사랑이 우리 주위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또한 그 사랑의 빛이 온 사방으로 뿜어져 나가 다른 이들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지 포옹하면서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함께 먹고 자는 우주적인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만 너무나도 순수한 나머지 말조차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필요 없어지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사랑, 사랑, 사랑, 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고 떠들고 다닌다면 금방 싸움이 날 것입니다. (대중 웃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돈, 돈” 하고 떠들지만 말만 많고 가진 게 없는 것처럼요. 백만장자는 “나는 돈이 많다!”라고 소리치며 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돈을 갖고 있을 뿐이며 그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으므로 웃고 다닙니다. 모두들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길거리에서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다투면, 그는 웃으며 “그럴 가치가 있나?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싸우다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몇 푼 때문에 다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달은 성인이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신이나 부처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과 함께 있고 신 안에 있음을 알지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예수의 말대로 “그와 신은 하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나와 신은 하나다.”라고 거드름을 피우며 다니거나 (대중 웃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눈치채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겸손하고 호감이 가며 지극히 평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평상심이 도道, 길 또는 부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좋아.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평상심을 가지고 있으니 명상을 안 해도 되고, 신에게 뭔가를 해 달라거나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진정한 의미는 도를 얻었을 때 압니다. 그때서야 여러분은 정말 평범해집니다. 매우 지각 있고 평범하고 정상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온갖 생각과 번뇌로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평상심’이 아니지요. 평상심이란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먹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번뇌가 없습니다. 그는 깨달았으되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부처이지만 자신이 부처임을 근심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남들처럼 먹고 자지만 그는 부처입니다. 그의 마음은 대단히 평상적이라서 아주 평화롭고 만물과 조화롭게 지내며 미움이나 근심·걱정·번뇌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상심이며 깨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밥을 먹고 있을 때조차도 온갖 중생을 구하기 위해 우주 안의 어느 나라에서든 화신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잠을 잘 때도 그의 화신은 지옥이나 천당을 가리지 않고 이 우주를 날아다니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은 아주 평상적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같은 범부에겐 이런 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도는 있지만 그것을 인식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내면이 그 정도로 조용하고 고요한 사람들은 도를 인식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깨닫게 되고 부처·성인·그리스도·신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평상심과 범부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에게 아직 에고가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진리를 말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그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건강을 해치며 무지한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나 또한 『바가바드기타』에서 “너희가 나를 숭배하면 진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 귀의하라. 숭배하라. 내 가르침을 듣고 내 규율을 지키며 나만을 사랑하라. 그러면 진정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커다란 ‘에고’를 가진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경우와 같이 ‘나’는 에고의 ‘나’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참 나’,

선종에서 말하는 ‘본래면목’입니다. 이 ‘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스승에 의해 입문식 때 깨우쳐지는 내면의 존재, 진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잠자는 공주’ 이야기를 기억하니까? 왕자가 와서 생명의 키스를 하자 공주는 깨어났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깨달음과 수행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 은근하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했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깨달은 스승을 따라 수행하기 전엔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기 이 집회에 모였습니다. 신 또는 최고의 신이나 부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런 자리를 통해 바쁜 생활 속에 단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실로 영광스럽고 뿌듯하며 행복합니다. 현대에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포모사에서 와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을 만났지만 집에 온 듯 아무런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이 느낌이 무엇인지도 모를 겁니다. (스승님 웃으심)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알았던 것처럼 아무런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으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기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독교·불교·힌두교·시크교·도교 등 모든 종교 경전에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스승을 숭배하고 믿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돼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발밑에 엎드려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단지 진리를 말했을 뿐이지요. 실제로 이런 스승들

은 사람들의 공양이나 숭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스승의 가르침을 숭배해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람으로서의 나를 숭배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율을 지켜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 스승을 숭배하라는 뜻입니다.

왜 진정한 스승들은 사람들의 공양이나 숭배를 받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겸손하고 모든 이의 내면에 진정한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스승, 본래면목, 내면의 왕국이나 ‘참 나’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스승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찾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미 내면의 진아를 일깨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진정한 스승이란 우리의 진아를 일깨우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게 “우리 내면에 천국이 있고 우리 마음에 불성이 있다면 왜 혼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까? 왜 스승을 찾아가야만 합니까?”라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 찾을 수 있다면 좋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러기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은 면도날과 같아서,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가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탈의 길은 왜 그다지도 어려울까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역류인 거죠.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

로, 감각적 즐거움이나 쾌락의 방향으로 헤엄을 칩니다. 역류를 타고 헤엄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헤엄치기 전에 좀더 힘이 세고 물길을 알며 좀더 능력이 발달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처가 되려면 우리는 부처의 길, 부처가 깨달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능엄경』에서 석가모니불은 “내면으로 귀를 기울여 내면의 자성을 듣는” 법문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면의 자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은 분명 어떤 ‘소리’를 의미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지점에 이르면 내면의 소리의 진동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로 듣는 것은 아니지요. 내면의 ‘귀’를 여는 것은 그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비행기 조종법을 배워서 조종할 능력을 갖추고 조종 허가를 얻은 비행사의 일인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스승, 깨달은 성인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갈 수 있으며, 자신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표를 사거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스승을 따르는 데는 비행기 표나 돈은 필요 없지만 ‘천국의 재화’, ‘돈’인 공덕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고자 할 때는 이것을 표로 써야 하지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경전에서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스승들도 그럴 것이고요. 훌륭한 스승이라면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숭배하면 영혼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숭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영혼을 위해 육신을 버려라.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해 부처나 천국의 수준에 걸맞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동양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미국의 기준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집도 미국의 기준에 맞게 지어야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하던 식으로 멋대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되며, 자기 나라에서 하던 방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다르니까요. 미국의 생활 방식은 청결하고 질서 있고 단정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또 영주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모두 우리 쪽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의 훈련과 자기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야 하며, 미국의 생활 방식을 익히고 이런 생활에 적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모사에서는 사람들이 차를 날듯이 운전하고, 택시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쌍’ 하고 가며, (스승님이 흉내를 내심) 순식간에 택시들이 사라집니다. 모두들 돈벌이를 하느라 바쁩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택시들이 그렇게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는 그렇게 운전합니다.”라고 말함) 뉴욕이요? 아! 그 도시는 말도 하지 맙시다. 뉴욕은 달라요. 뉴욕은 미국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웃음) 캘리포니아가 전형적인 미국의 도시지요. 뉴욕은 온갖 사람들이 뒤섞여 있고 워낙 복잡해서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뉴욕이 미국을 상징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뉴욕은 국제적인 도시로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지요. 차, 기차, 벽에는 온갖 구호와 낙서가 씌어 있고,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나는 처음 미국에 와서 뉴욕에 도착했을 때 놀란 나머지 ‘이게 미국이란 말인가? 아니야, 여긴 내 나라보다 못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더 많이 알고 나서야 ‘아니야, 아니야. 이긴 온갖 것이 혼합돼 있고 인구가 밀집돼 있어 통제 불능이라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말고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 뉴욕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오면 캘리포니아의 법규를 따라야지 그렇게 엉터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 나는 기분이 대단히 편안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온통 산타클라라·새너제이·샌프란시스코 등 ‘성인’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스승님 웃음) 정말로 ‘성스런’ 분위기였으며, 나는 환영받는 것 같아 편안했습니다. 매연도 없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내 건강에도 무척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교통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 맞아요. 규칙 때문에 그렇군요. 만약 부처가 되고 싶거나 불국토, 천국으로 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신의 왕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살아 있지만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것을 배워야 살기 시작하리라’는 거지요. 그럼 죽는 법에 대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자신을 죽인다고요? 에고를 죽인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우리는 에고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로, 육체적으로 정말 죽습니다. 우리는 잠시, 또는 몇 시간 죽었다가 다시 일하러 갑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죽습니다. 즉 실제로 죽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이른바 ‘은줄(silver cord)’로 육신과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때는 은줄이 끊어지고 육신과의 연결이 잘려 우리는 영원히 갑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들, 내면의 신의 힘으로 깨달아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동안 천당이나 지옥 또는 ‘동물의 옷을 파는 상점’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점’에서는 동물의 ‘옷’을 팔고 있는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 옷을 입고 나서야 인간의 ‘옷’으로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약 길을 잃어 이런 동물 옷을 파는 상점으로 가면 한동안 ‘동물’ 옷을 입게 됩니다. 또 천국에 가면 천국의 옷을 입고, 지옥에 가면 뜨거운 불로 만든 ‘바비큐용 옷’을 입게 됩니다. (대중 웃음) 거기서 한동안 통째로 구워지고 나면 인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소위 부덕한 사람은 지옥이나 축생계로 갑니다. 이것은 불교의 해설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면 믿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지혜안을 열어서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눈은 사실 하나밖에 없으므로 ‘제3의 눈’ 또는 ‘불안佛眼’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과거 힌두교에서는 관습적으로 이마에 ‘눈’을 붙여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그 ‘눈’을 기억하도록 상기시켰습니다. 지금은 관습

만 남아 있고 본질은 없어져서 모두들 제3의 눈, 지혜안에 대해 들었어도 아무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스승님이 당신의 이마를 가리키심) 단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눈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을 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 스스로 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열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내가 좀 허약하니까 내 ‘눈’이 아마 여러분의 ‘눈’보다는 좀 약할지도 모릅니다. (스승님 웃으심) 아닙니다. 지혜안은 갓난아기부터 팔순 노인까지 모두 같습니다. 일단 열리면 같고 열리지 않을 때도 같습니다. 단지 여러분은 지금 그 눈을 사용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마치 돋보기와 같은 겁니다.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작은 세계를 볼 수 없지요. 또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지혜안은 무지와 과거의 악행으로 인한 장애물로 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손과 신의 위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므로 마개만 열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마치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지만 마개가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설비 기사가 깨끗이 청소하거나 마개를 새것으로 바꾸어 마개를 다시 정상적으로 열기만 하면 물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물은 이미 그곳에 있으므로 설비 기사가 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은 이미 파이프 안에 있으니까요. 그저 마개를 조절하고 수리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면 나는 무료로 어떤 조건도 없이 그 마개를 고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화하고 덕 있는 삶을 살고 덕 있는 식생활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고, 어떤 생명도 죽이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십계명이나 불교의 5계인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술·도박·마약을 금하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담배도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의 힘에 중독되어야지 이런 싸구려 대용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그래도 땀거나 무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불행한 데다 뭘지 모르는 그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했으니까요. 돈과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데도 우리 내면은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족스러워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담배나 마약·도박·섹스와 같은 것들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되리라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지치고 공허하고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봐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바라게 되고 몸과 마음이 더욱 황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중독'은 이런 모든 것을 대신하고 여러분을 만족시켜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바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많은 제자들도 오랜 기간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지만 입문한 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끊어집니다. 신은 그 까닭을 아시며 나도 그 이유를 압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우며 세세생생 갈구해 왔던 '그것', 진정한 만족,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기쁘고 행복하며, 또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것'을 얻고는 집으로 갑니다.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이생을 배회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몫과 진화에 필요한 일들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 역시 깨달은 스승과 진정한 길을 찾아 모든 세속적인 집착과 욕망을 끊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진정한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명상할 때 죽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는데, 이것이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죽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상할 때 잠시 동안 천국이나 불국토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막연한 단어입니다. '천국'은 사실 '신의 왕국'보다 낮은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천국'과 신의 왕국이 같은 것이라고 압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말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뜻인 불교의 '열반'이란 말을 쓰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인에게는 열반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에게는 신의 왕국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나 가장 높은 신의 왕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잠시 죽어서 육체를 떠나 더없이 행복한 곳으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매일 죽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원할 때 죽고 언제라도 마음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장 박동과 호흡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법을 알고 매일

수행한다면 천국과 불국토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면 언젠가는 비행기를 조종해 미국에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종법을 배웠고 훈련도 받아 익숙해졌으니까요. 알겠지요?



11장

단혀 있는
내면의 힘을 열어젖히자

11장

닫혀 있는 내면의 힘을 열어젖히자

1989. 6. 8. 코스타리카

잠시 눈을 감고 우리에게 대한 신의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고 신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행복과 슬픔에 감사드립니다. 행복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슬픔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코스타리카에 온 이후 며칠 동안 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나 학교 어린이들, 버스 승객들, 식당 손님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내게 보여 준 사랑 때문에 나는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두들 나를 알아보아서 나는 코스타리카의 모든 사람들을 아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동안 신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며,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엮어 주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드문 감상에 젖어 나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그 강렬한 감상이 줄어들 테니까요. 나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즐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그렇게 느끼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적어도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하나이며 서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감상을 떨치고 여러분에게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 하고 여기서 2시간 동안 울기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무슨 스승이 이 멀리까지 와서는 아무 말도 않고 울기만 할까!” 하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어찌면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 보다 친숙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대하고자 합니다. 청중의 기대에 맞춰 뭔가를 말하는 거지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와 예시로써 나 자신의 내적 깨달음을 통해 말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기자가 내게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내게 질문을 하면서 뭔가를 분명히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신은 지상에 당신의 사랑과 메시지·진리·계율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 많은 사자(使者)들을 보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이해하고 따릅니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사명을 수행할 것인지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든 안 듣든 지상에서 그들 나름대로 신의 뜻에 따라 한몫을 맡고 있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기에 내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곳에서의 일을 마치지 않아서 신의 뜻에 따라 세상의 즐거움·부·쾌락·일·의무나 애정에 애착을 갖고 얽매이게 됩니다. 지상에서 자신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은 몹시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며 신의 왕국으로, 신에게로 돌아가기를 갈망해 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할 일이 더 이상 없다고 느끼며, 오로지 만물의 근원인 신께로 돌아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자 의무입니다. 즉 사람들을 신의 왕국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의무는 준비된 영혼을 그들이 왔던 곳인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으며 불안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꾸짖고 무례히 굴고 내 말을 믿지 않아도 나는 화내거나 동요되거나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와 나의 사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앞으로 많은 생을 거쳐 수백 수천 년 뒤에는 그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부처와 예수의 생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있으며, 수천 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많은 경의와 존경을 받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자라

서는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에게 돌아가는 방법은 이미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선을 베풀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도문을 외우거나 명상을 합니다. 예수나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목주를 돌리는가 하면 금식도 하고 성지 순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하이 스승은 무슨 말을 또 하려는 거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군요. (스승님 웃으심)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위대한 힘인 신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그렇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힘, 그 최고의 전능한 힘에 도달하려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기계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러나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진 않다’고 하는 까닭은 바쁜 일과와 일상의 압박으로 인해 신실함을 대부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명상을 하고 염불을 하고 경전을 외우는데도 신에게 이르지 못하거나 아주 드물게 이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을 보고 싶어하고 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누구와 닮았는지를 알고 싶어하기도 하며, 왜 그런 ‘사랑의

신'이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불행과 장애를 주는지 간절히 알고 싶어 합니다.

나 역시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의 수염을 붙잡고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치 화난 아이가 아버지에게 발을 동동 구르듯, 여러분도 신에게 “왜 그렇습니까? 모두들 당신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신은 사랑이고 자비롭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 세상이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해석해 주면 믿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직접 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신께 묻자 그는 내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신은 내게 많은 비밀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여러분과 나눌 수 있지만 나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밀은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이해력으로 파악이 되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어떤 비밀들은 그러한 의식 수준이나 체험, 내적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알아보라고 권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표현할 수 없는 의식과 깨달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면 도리어 그 참되고 강력한 의미를 망치게 될 테니까요.

자! 신에게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책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모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식 수준에 도달하고, 정도는 각각 다르지만 신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관음법문 또는 신의 빛과 신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소리와 접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법문이 우리를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즉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른바 죄라는 짐 덩어리, 원죄의 압박에서 우리를 즉각 해방시키고, 신과 함께하는 가운데 즉시 위로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방법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갑자기 밖에서 차의 경적이 울리기 시작함) 이것은 신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차가 부르는 소리입니다. 나는 신의 내적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저 차는 밖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화 아닙니까? 이것이 긍정과 부정의 균형을 뜻하는 '음양의 평형'이라는 것입니다.

왜 관음법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고 힘 있고 즉각적이며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줄까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힘이며 타고난 신의 본성, 불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근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타고난 본성, 타고난 힘, 진정한 힘, 자아의 힘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아는 불성을 뜻합니다. 대자아는 인간적인 자아가 아닌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용어로 ‘우리 내면에 있는 신의 왕국’ 또는 우리 내면의 타고난 ‘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신의 본질을 갖고 있으며 신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과

동등하거나 또는 신에게서 태어났다면 적어도 우리는 신의 자녀입니다. 감히 신과 같다고 말할 수 없다면 신의 자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신은 왜 그렇게 영광스럽고 저 높이 있고 자애롭고 아름다우며 모든 이의 숭상을 받는데,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온갖 고통과 슬픔에 허덕여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외부의 뭔가를 손에 넣고자 생각하고 계획하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쉬거나 순종하는 것을 잊었고, 내적인 신의 본질, 내면의 진정한 영혼, 내면의 진정한 ‘우리’, 진정한 자아가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돕게 하는 것을 잊었으며, 우리 자신의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 우리 내면의 힘을 사용하는 걸 잊었습니다. 이 힘은 신의 왕국, 신의 본질, 신의 모습 또는 불성 등으로서 신이 우리 내면에 주신 것입니다. 신은 우리를 만들었을 때 이 생명을 구하는 힘을 잊지 않고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걸껍질만을 사용하고 진정한 자아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마치 차가 도로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안에서 잠자거나 술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운전기사를 깨우는 것입니다. 운전기사에게 술 깨는 약이나 찬물을 주어 졸음을 깨우면 그가 차를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차를 밀기만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차 안에서 자고 있고 차 문은 모두 닫혀 있으며 시동도 걸려 있지 않은 데 차를 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차가 너무 무겁다느니 방향을

조종할 수 없다느니 차가 고물이고 자동차 회사도 엉터리라고 한탄합니다. 그러곤 차를 너무 많이 밀어서 지친 나머지 다시는 그런 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른이나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누군가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아이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야! 애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만둬! 조용히 해라! 운전기사를 깨우기만 하면 그가 다 알아서 할 거야.”라고 말하겠지요.

성인聖人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또는 열심히 수행해서 신을 깨달은 사람들은 매우 확실하고 논리적으로 사물을 보며, 사람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운전기사가 깨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를 밀 필요도 없이 차 안에 앉아서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한정된 힘과 제한된 육체의 힘, 지능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이 세상에서 일한다 해도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대학을 졸업했어도 완전히 지혜롭지 못한 것은 지혜와 지능이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능은 지적인 씨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며칠에 걸쳐 신에 대해 논쟁할 수는 있어도 신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력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방법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문장을 구사하는 방법은 알아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은 모릅니다.

지혜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유익하도록 지혜의 일부분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혜에 대해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 임무는 언어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내면으로 깨달은 진리의 2, 30%만을 전할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눈을 통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랑, 치유의 에너지를 이용해 청중들을 감동시켜 그들의 마음을 이완시키고 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압박으로 인한 그들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고,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치유할 수 있으며, 그들 자신과 그들 내면의 왕국에 존재하는 진정한 힘에 대한 의심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눈길과 말, 사랑에 넘치는 우리의 에너지만으로도 육체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깨달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슬픔도 없어지고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이며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한가를 알게 되며, 그에 맞게 치료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적인 신의 힘으로써 말없이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신과 하나가 되면 못 하는 것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으며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고 어디에나 다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모르고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내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한다.”라고 말한 다음, 다시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바오로 역시 “나는 산다. 아니,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런 성자들이 에고라는 의식, 개인적인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신 자신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오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한 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을 때 “나는 의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존재도 때때로 이 세상의 형제자매들의 반응에 놀라워합니다. 의과 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결혼해서 “나는 이제 남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모두들 축하해 줄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나 부처 같은 사람들이 신과 하나가 되었다고, 신과 결혼했으며 신과 하나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공표하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학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

람은 의학을, 어떤 사람은 공학을, 어떤 사람은 법학을, 어떤 사람은 건축학이나 농학 등등을 공부하며, 대학에서 수많은 학문을 공부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예를 들어 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공학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아, 나는 기사다. 나는 이런저런 기계를 수리할 수 있고 이런저런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 학문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진아와 신의 보이지 않는 힘을 아는 방법이나 이 행성에서 저 행성으로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여행하는 방법 등과 같은 거지요. 이것 또한 학문의 일종이며, 태곳적부터 이런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박사 학위나 의사 면허증이나 졸업장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누가 그런 학교를 졸업했고 누가 안 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의 힘과 사랑의 진동, 그들 개개인에게서 방출되는 강력한 에너지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거나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신실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신에게 “이분이 당신이 보낸 진정한 분입니까?”라고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신께 신실하게 요청한다면 신은 응답할 것이며, 우리는 누가 신이 보낸 진정한 사자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나 부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들은 부처나 그리스도의 사명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한 데다 난폭하고 방탕한 생활에 젖어 있던 탓에, 시간을 들여 인내심을 갖고 신을 깨달은 사람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겐 그럴 시간이 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에게 기도하고, 그 상대에게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라면 제자로서의 헌신을 몇 년씩이나 시험하느라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고 즉시 증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른바 스승이나 신의 사자가 있는 곳을 알기도 매우 어려웠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나 성인을 찾아가서 수년간 섬긴 후에야 내적인 비밀을 좀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승을 찾기 위해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 산속에 있는 수행지에 가서 약간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년간 머물면서 야단맞고, 매맞고, 학대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대가가 비싸지요! 우리 처자식들도 못 돌보고요.

옛날에는 남편이 집을 떠나면 아내와 자식들은 부잣집에서 일하거나,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또는 수공예 같은 단순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처자식을 남겨 놓고 떠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빌려야 합니다. 옛날과 같이 아무데서나 살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집이 없더라도 나무 밑이나 들판에 오두막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땅마다 주인이 있어서 아무데나 다니거나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집집마다 하인을 둘 형편이 안 돼서 일거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문명이 발달했고 편의품이 많으며 물질적인 안락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런 편리함을 얻기 위해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생활이 편안할수록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 체면 때문에 소형차인 닛산 대신 고급 승용차인 벤츠를 타야 하기도 합니다. (대중 웃음) 또 시골에서 살지 못하고 호사스러운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인 위세에 걸맞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야 하지요.

우리는 사회적인 위세는 떨치겠지만 비싼 차값을 일부로 지불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고급 주택가의 집은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이런 경비 때문에 우리는 그 지위를 못 떠납니다.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위에 계속 매달려야 하지요. 우리는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돼 결국 직장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돈은 대부분 지위를 지키고 사치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중으로 갠 셈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부담과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 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좀 작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에 살고 값싼 차를 갖는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0년이나 20년 있다가 직장에서 은퇴한 후 여가와 취미를 즐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직업과 명성에 맞는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타협을 해야 되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 더 오랜 세월 동안 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탈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호랑이 등에 탄 사람처럼 호랑이의 목덜미를 붙잡고 함께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 상황이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멈추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문명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안락한 생활에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칭하이 스승은 뭐 하러 또 말하지? 문제점을 너무 많이 말하는군!’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게임에도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우리 목덜미를 짓누르며 우리를 거북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 속에서 해방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신의 존재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홀로 동떨어져 이 세상의 온갖 무게에 짓눌린 듯 느끼는 것뿐입니다. 내 말은 우리가 신의 존재를 어렵듯이라도 볼 수 있다면 스스로 신의 도움과 사랑, 충고를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신과 직접 다시 만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하는 매 순간마다 다시는 신의 존재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힘은 또한 여러분이 자각과 깨달음

을 얻은 후, 신과 직접 만난 후 여러분 삶의 매 순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사랑 때문에 현재 느끼는 압박감은 없어질 것이며, 사회적 지위와 여유 있는 생활을 그대로 누리되 아무런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신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만약 이 순간에 그가 어떤 슬픔을 준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무상한 속성을 알려 주고 안전한 요새인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다시 잊을 때마다 그는 우리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신은 먼저 부드러운 방식으로 일깨우다가 우리가 그의 부드러운 충고를 듣지 않으면 조금씩 더 강하게 밀어붙여 마침내는 매우 거세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신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제발 신이 거세게 밀어붙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강한 충구를 받고 있다면 어서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 신이 내면에서 베푸는 모든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모른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고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업·지위·믿음·종교·가정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 모양도 나처럼 바꿀 필요가 없고요. (대중 웃음) 긴 머리도 좋습니다. 미용실에 일거리를 만들어 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원망할 겁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회의 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12장

지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

12장

지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

1989. 12. 16. 아르헨티나

나는 여러분의 나라에 뭔가 좋은 것을 전해 주고자 하며, 나의 방문이 여러분의 마음·영혼·육신에 최소한 인간 대 인간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이해할 기회가 거의 없는 동서양의 문화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흘만 머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에 좋은 것도 전해 주지 못하고 그냥 떠난다면 매우 섭섭할 것입니다.

모두들 평화를 전하는 게 유엔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신의 왕국을 알리는 게 성직자나 출가승의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만일 성직자가 신에 대해 설교할 때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깨달음에 대해 말해도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신과 인류를 향한 나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

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나 또한 이 세계의 한 시민이니깐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단체만이 세계 평화와 같은 일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조국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누군가 나에게 우리가 대학살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지 물어서 나는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 폭탄 전쟁이 아니면 수소 폭탄 전쟁,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또 다른 폭탄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폭탄이나 다른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면 불안·질투·증오·무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마음은 항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전하는 건 나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석해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평화에 대해 뭔가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생각·행동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사장이나 비서가 여러분이 아닌 자기 부인이나 남편에게 무척 화가 나 있을 때 여러분이 들어서게 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절대 편치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어디라도 숨고 싶을 것입니다. 반대로 거리에서 밝게 웃으며 행복해하는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받아 우리 역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런 작은 예를 보아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이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평화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어주고 사랑과 열린 마음으로 나를 성원해 준다면 여러분 자신을 성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 누군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개인 사업이나 평판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은 남의 사업이나 평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진리를 전할 때 그 당시 고위 성직자들은 걱정이 대단했으며, 당시의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명성이나 사업에 영향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해 돈과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신들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않고 교회나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기부도 하지 않고 말도 듣지 않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은 이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역시 불안했습니다. 예수가 너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를 왕으로 선출할까 봐요! 이것이 정치권의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교회나 이 지상의 왕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의 왕국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깨달은 사람이나 스승은 이 세상의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물질계가 그저 환상적인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완전히 꿰뚫어 보므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합니다. 그들은 천당과

지옥의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그들은 물질적인 부나 명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깨달은 사람에게 저절로 매료되게 마련인데, 이것은 그들의 빛과 보이지 않는 지혜, 자비,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보이지는 않지만 뚜렷이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사랑 때문에 여자에게 끌리고, 아이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부모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보다도 훨씬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은 이의 사랑에 이끌립니다. 사람들은 깨달은 이에게서 환영과 사랑을 받고 안전과 보호를 느낍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탐욕스럽고 세속적인 눈으로 예수와 같은 깨달은 사람들을 봅니다.

만일 예수에게 온 세상을 주고 다스리라고 했어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사막에서 4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그에게 삼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한 국가의 통치권을 사양한다면 그는 이미 매우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온 세상을 사양한다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지요!

이제 삼계에 대해 설명해 주겠습니다. 삼계는 불교에서는 잘 알려졌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 대해 들어 봤습니까? 성경에는 누군가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세 번째 천국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천국은 삼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른바 영계의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상 세계 또는 물질세계라고 하는데, 이것 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

만 천안으로는 보이는 또 다른 3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상을 수행하면 이따금 천안이 열려 보이지 않는 높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 중 일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아스트랄계의 경우, 그 경치나 집의 형태, 사람들의 소망들은 우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으면 아스트랄계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아스트랄계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당은 덕을 쌓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며, 지옥은 이를테면 환자들을 위한 병원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 몸 어느 부위에 암이 있으면 의사는 그 부위를 수술해 암을 제거해서 우리 몸을 낫게 합니다. 만일 몸 전체가 중요·탐욕·정욕 등으로 병들면 모든 세포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옥이라는 곳에 보내져 일종의 레이저 광선으로 수술해 나쁜 세포를 모두 제거해 그러한 특성들을 없앱니다. 그래서 지옥에선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고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모든 정신 질환을 없애는 일종의 치료입니다. 우리가 자신이나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정신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생이나 많은 생을 계속 이렇게 산다면 몸의 세포는 모두 이런 자비롭지 못한 행동·생각·습관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위 아스트랄계의 의사들은 우리의 아스트랄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주파 광선으로 세포를 전부 복원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탐욕·중요·정욕 등 모든 특성이 깨끗이 씻겨질 때까지 계속 치료합니다. 이는 사실 일종의 치료이지만 그 과정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곳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스트랄계는 삼계 중의 하나입니다. 아스트랄계의 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소위 멘탈계라고 합니다. 이 멘탈계 위에는 세 번째 천국 혹은 브라마의 세계로 불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높은 세계일수록 더 아름답고, 더 빛이 나고, 힘이 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삼계의 왕이라면 그는 모든 창조물 위에 있는 것이므로 삼계의 왕이 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지위입니다.

삼계의 왕은 이른바 마야의 왕입니다. 그의 지위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는 환상의 왕이며, 지혜와 사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왕이 만들고 창조한 것이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미에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생긴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으로서의分別심과 품위도 없이 야수같이 생겼거나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왕이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완벽하지만 이 세상을 포함해 삼계 중의 하나로 내려오게 되면 누구나 이런 종류의 불안정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삼계를 넘어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라야 비로소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삼계의 왕은 이른바 마야의 왕입니다. 그의 지위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는 환상의 왕이며, 지혜와 사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왕이 만들고 창조한 것이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미에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생긴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으로서의分別심과 품위도 없이 야수같이 생겼거나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왕이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완벽하지만 이 세상을 포함해 삼계 중의 하나로 내려오게 되면 누구나 이런 종류의 불안정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삼계를 넘어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라야 비로소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예를 하나 들어 보지요. 바닷속으로 잠수하려면 물안경, 산소마스크, 큰 산소통과 잠수복을 걸쳐야 합니다. 그러면 물고기나 개구리처럼 보이지도 않고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닷속에 잠수할 때 꼭 필요한 장비이지만 여러분이 바닷속에서 이런 물건을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깊은

바닷속에서는 그 물건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벗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원래 그런 모습인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다시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이런 장비가 필요 없게 되고, 여러분은 다시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마음 또한 도구이지요. 하지만 이 도구가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있던 게 아니니까요. 잠수복을 입을 때 발이 너무 커서 움직이기 힘들고 코는 거추장스런 산소마스크 안에 구겨져 있으며 등과 얼굴, 손발에 달린 여러 장비들 때문에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두뇌는 영혼이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컴퓨터를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너무 의존하다 보니 컴퓨터가 고장나도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컴퓨터가 가끔 고장이 난다는 건 알 것입니다. 수개 국어로 번역해 주는 컴퓨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독일 사람이 이 컴퓨터를 중국으로 가져가 독일어를 중국어로 번역했는데, 이 컴퓨터는 독일어로 ‘금빛’을 뜻하는 단어를 ‘금발’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얽매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이지요. 어제 어떤 사람이 내게 “만일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왜 전쟁과 재난과 불행이 있나요?”라고 물었는데, 이는 잘

못된 정보가 입력된 컴퓨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말하는 바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어졌다고 칩시다. 내면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직관이 있으면서도 갑자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 우리 선생님도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또 내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도…….’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사람들에게서 배운 방식대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하고선 결국엔 그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래의 직관에 따라 그 일을 달리 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엔 다시 시도해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많이 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입니다. 지혜는 직관적이며, 이른바 ‘본래 자아’, 신의 지혜입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이나 책, 전통, 나라의 풍습 등을 통해 익힌 것으로 꼭 옳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간혹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갈등과 그릇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몇 사람을 거친 구태의연한 지식만을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직접적인 지혜를 이용하려면 그 본래의 지혜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한 부분을 열어 어떤 장치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모두들 우리 두뇌의 95%가 사용되지 않은 채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이 지상에 평화가 깃들길 원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바로 이 부분들을 열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계 평화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과학적 연구나 발명품을 인류에게 봉사하

는 데 사용하지 않고 파괴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살은 일어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천연자원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는 호흡에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주를 안정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소를 뽑아 이른바 수소 폭탄이라는 것을 만들면 대기 중의 공기층은 점점 얇어지고 공기 중의 수소가 점점 줄어서 마침내 우주 전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치 벽돌과 눈에 보이는 물질들로 집을 이루듯이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일 우리가 이 구조의 한 곳이라도 교란시키면 우주는 안정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집 한 부분을 헐거나 벽 하나를 부수면 집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주선이나 UFO가 많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어제 누군가 외계인에 대해 물으면서 그들이 존재한다면 왜 전에는 오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그건 그때는 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까닭은요? 우리가 지금 그들과 우리 자신을 너무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게 위협한 물건을 가지고 놓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UFO는 미국이나 러시아에 착륙합니다. 왜 다른 나라에는 착륙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만일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도 러시아를 공격할 테고, 그럼 아르헨티나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어느 한두 단체, 한두 사람, 한두 나라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입니다. 내가 불교를 전하러 왔다거나 여러분의 동정 또는 여러분의 재산을 바라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이 평화로워져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일들은 대부분 동물의 행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동물도 먹고 새끼를 낳고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면의 불성이나 신을 모른다면 우리는 동물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내게 화내지 마십시오. 때로는 누군가가 진리를 말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계속 잠자고 꿈꾸면서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랑스럽단 말입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이요? 이 세상의 빈곤? 불행? 증오? 폭력? 인구 과잉? 굶주린 아이들이요? 우리는 이 천국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이 전에는 천국이었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이 아름다운 행성을 걱정할 뿐 다른 사람들은 자고, 먹고, 사랑하고, 돈을 벌니다. 그들이 교회에 간다 하지만 가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에게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들 자신의 복과 사업, 아들딸을 위해 기도하지요.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요? 사실 기도는 적극적인 일은 아니므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강연에 오는 사람은 수백 수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

다. 그러나 축구 경기장이나 극장, 유명 가수들의 공연장에 가 보면 수만 명이 축구공을 가지고 선수들이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선수들만이 경기를 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경기를 한다면 “좋아, 운동을 하고 있으니 좋은 일이야. 모두들 승부를 겨루느라 흥분했구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직 한 무리의 선수들만이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 밖의 4, 5만 명의 관중들이 흥분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환상의 게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놀랍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평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를 구경하는 건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죄도 아닙니다. 극장에 가는 일도 때로 여가를 보내거나 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신이 누구이며, 이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떠남을 준비할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출생·죽음·노후에 대해서는 모두 준비하면서 내세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이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세상을 좀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여러분에게 불교나 기독교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책을 읽거나 교회나 절에 가서, 또는 성직자들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모두들 불교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전할 마음이 없

으며, 단지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이므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자고 할 뿐입니다. 평화는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것이지 환상적인 상상 혹은 어떤 회의나 나라에서 돈을 낭비하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치가나 성직자, 승려가 되면 이 지상에, 적어도 그들의 국가에는 어느 정도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잘못될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만 지혜가 있고 그 나라의 다른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본래의 지혜와 접촉해야만 일들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원하고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자 간절히 원해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나라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무력으로 내 말을 듣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신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과 여왕이 있었지만 이 세상이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정도로 깨달은 왕이나 여왕을 못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어울라키나 중국에서는 훌륭한 왕을 깨달은 왕(聖王)이라고 부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지혜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성을 초월해 대단히 현명해지면 평범한 상태의 시각과는 다르게 모든 사물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기가 어린이었을 때는 비록 말하고 먹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사업이나 집안일을 돌볼 만큼 지혜롭지는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두뇌의 5%만을 사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는 “먼저 깨달아라. 그러면 가정을 돌볼 수 있고 그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그러면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수행하면 덕과 빛이 커지게 되는데, 그때서야 가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우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게요? 그리고 가정을 돌볼 수 있어야 세계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부처 같은 분들만이 참된 평화의 사자이자 이 세상의 참된 왕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사람을 ‘위대한 왕’ 또는 ‘왕 중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왕 중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건설하려는 꿈은 가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행복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로만 평화를 운운하면서 지상에서 평화가 실현되길 바라고 스스로 평화롭지 못하다면 그건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절만 짓고 살아 있는 성전은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길 “우리는 신의 성전이며, 성령이 이곳에 거한다.”(스승님이 가슴을 가리키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신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성전을 순결히 지키십시오. 우리 자신부터, 여기에서부터 (스승님이 이마를 가리키

심) 평화가 시작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한다면 그 어떤 교회도 필요 없고 성경이나 불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승도 필요 없고 어떤 단체나 유엔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도 평화를 찾고, 자기 내면에 있는 지혜와 신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일깨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지 불교나 기독교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가정을 잘 돌보고, 여러분 나라를 더 잘 다스리며, 우리가 함께 이 지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13장

어디에서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13장

어디에서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1992. 3. 22. 한국 부산

어질고 지성적인 한국인 여러분, 나는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나라에 감탄해 왔습니다. 추천을 받은 차 중의 하나도 현대 차이고요. (대중 박수) 맞습니까? 한국에서 만든 차지요? 아주 좋은 차입니다. (대중 박수)

내가 한국에 탄복한 것은 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정신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나를 감동시킨 거지요. 이 일을 맡기 전, 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을 때 한국 스님들과 평신도들을 많이 만났고 절에도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지나갈 때마다 인삼이나 김치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공식적인 모임이 있기 전부터 나는 한국인들과 인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한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강연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대중 박수) 서울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애정과 훌륭한 정신, 호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벅찬 사

랑에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내면에 아주 많은 사랑이 있어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은 바깥세상으로 표현해야 하지요.

이곳에 도착하고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겨 주고, 작은 방으로 나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 따스함은 지금까지 가슴 벅찬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 힘껏 여러분의 나라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분이 불교의 출가승이니 불교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문화가 발달한 만큼 물질적인 도움은 필요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국민들의 의식과 책임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 어제와 오늘,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고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신, 또는 여러분이 부처라고 부르는 존재가 이 나라를 아낌 없이 축복하고 있음을 압니다. 시내와 교외에서 많은 절과 스님들을 보고 부산과 서울에서 여러 종교 사원도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도 다른 종교 사원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매우 고양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높이 고양되어야만 마음이 열리고 관대하며 아량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모든 종교의 근간이 훌륭한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를 문명이라 부릅니다. 문명은 부나 과학의 발달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발달했는지로 가늠됩니다.

흔히들 수행과 세속적인 성공은 함께 병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성불하거나 신의 왕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리고 은둔하여 혼자서나 여럿이서 수행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이 말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도 진보하고 물질세계도 보살피 이 세상에서 보람된 삶을 살고 편안함을 누리는 동시에 지혜도 계발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위대한 한국인들은 이 두 가지 일을 어느 정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양자간의 균형 잡힌 삶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대중 박수) 그리고 이런 저력으로 이 나라는 영적·물질적으로 계속 발전하여 평화와 행복과 번영을 이루는 위대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약하고, 마음도 때로는 나약합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불편한 생활은 우리의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러면 내적으로 평온해지거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히말라야에 있든 시장에 있든 그건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명상 체험을 얻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족이 있고 나라의 일을 맡고 있거나 국제적인 무역과 사업들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산이나 동굴에 숨어서 수행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곳에서 가족과 나라의 일을 보면서 수행의 길을 찾는 것이 더 실질적입니다.

히말라야나 조용하고 외진 곳에서 지내며 명상의 성과인 희열을 즐기면 매우 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수행, 수행의 성과를

대중과 더불어 나누면서 수행하는 건 더욱 큰 즐거움입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열반을 놓기도 힘들었습니다. 내적인 평정과 행복을 얻은 후에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속세로 다시 내려가기로 마음먹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복의 상태에 있을 때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보기엔 세상이 완전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자가 『도덕경』에서 “천하본무사天下本無事”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할 일은 있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깨닫기 전에 무지했던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 달라고 청할 때 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깨달음이나 영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엔 어떤 스승도 이 세상으로 나와 자신이 얻은 지복과 지혜를 나누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말은 스승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노자에게 『도덕경』이라는 훌륭한 책을 쓰게 했던 거지요. 노자는 강제로 『도덕경』을 썼습니다. 그는 억지로 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비밀을 밝혔는데, 극소수만이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이 아니라 노자가 선택된 소수에게만 밝힌 신비, 씩어지지 않은 말들입니다. 부처도 깨달았을 때 세상에 나와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 다. 그냥 열반을 즐기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열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얘기하자면,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로 매우 높은 의식의 상태, 한없이 기쁘고 평온하며 모든 욕망이 끊어진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때 브라마가 부처에게 나타나서 세상에 나가 신실한 중생을 가르치도록 호소했습니다. 아마 그때 부처는 어딘가 운둔해 있어서, 아무도 그를 찾아가 깨달음을 달라고 간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마가 그렇게 해야 했던 거지요.

그러면 브라마가 왜 그런 간청을 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브라마에게 깨달음과 구원의 축복을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브라마는 세 번째 천국의 신입니다. 힌두교에 따르면 브라마는 이 세상,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신들의 모임이 아니라 한국인을 초대한 거니까요. 농담입니다. 여하튼 신들은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이므로 이 자리엔 3, 4천의 신이 있는 거지요.

자, 이제 브라마가 당시 부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하도록 요청한 이유를 알 겁니다. 브라마는 우주 정부의 서열에서 최고의 신은 아니었지만 신들 중 하나로서 세상의 고통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반면, 당시의 부처는 최고의 깨달음에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라마 같은 존재가 그를 일깨워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처, 전지전능한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최고의 힘에 의해 온전한 상태에 있으며 세상의 모든 고통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겪어야 할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한 최고의 신, 최고의 부처는 그다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신은 좀 다른 신, 낮은 보살들입니다. 이건 마치 교육계의 고위층들이 일선 교사들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라고 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혹은 답을 못 맞힌 학생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학생들을 보살피고 도와줍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내용을 말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이제까지 한 말을 이해합니까? (대중 박수) 좋습니다. 그럼 계속하지요.

부처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본래의 자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아는 언제나 희열에 차 있었고 영원토록 평화롭기 때문에 그는 자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무지한 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브라마는 세상에서 누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지와 세상의 안녕을 보살피는 존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장관이나 국회의원들과 같

이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신하들에게 의존해 국민의 소원을 보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무지의 속박이나 암흑으로 실컷 고통 받은 사람들은 절대자나 최고의 부처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절대자에게 보고되면 절대자는 사람들을 고통스런 마음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이곳으로 내려보냅니다. 부처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파견된 성인들 중의 한 분이었으며 예수 또한 그렇습니다.

간혹 다른 많은 성인들도 때로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보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는 당시 인도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또는 어떤 스승의 은총으로 깨닫기 전에는 우리 또한 부처인지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라는 것을 알도록, 또는 여러분이 부처인지 아닌지 알도록 여러분을 초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처가 “모든 이는 부처다.”, “모든 이의 내면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불성이 있다.”라고 한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능력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만약 두 사람의 의식 수준이 같다면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을 길을 뜻하는 ‘도道’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얼마나 갔느냐에 따라 보는 것들이 달라질 뿐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간 거리가 같다면 같은 경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약 ‘도’가 다르다면 어떻게 모든 부처들이 같은 부처의 경지에 도달했겠습니까? 만약 그 외 수많은 길이 있다면 각자의 체험들이 모두 달라야 할 텐데, 불교 경전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에 따르면 사람은 달라도 신성한 ‘길’을 수행한 사람은 체험이 같거나 비슷합니다.

내면을 깨닫게 되면 수많은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중 몇 가지 실례만 들겠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종교에서는 신의 위대한 빛, 부처의 위대한 빛, 또는 불국토의 광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종교의 다양한 경전들을 공부했는데 한결같이 서로 비슷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런 문제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한국인들이 매우 고양되었으며 높은 의식 수준을 지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인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교의 근본적인 유사성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도인들이 많은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인도에 여러 계층의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인들이 과거와 현재의 여러 종교의 지도자, 스승들을 모두 상징적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절과 교회들, 수행 센터들이 있지만 그 정신은 서로 흡사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좀더 실제적인 생활면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면도 이해하는 한편 물질적 안락도 돌보고 있으니,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지요. 우리는 깨달

음을 얻기 위해 물질세계에서 얻은 모든 것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 앉아 편안한 생활을 누리며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깨달은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과 죽음, 우주, 그리고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 좀더 이해하는 한편,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상에 봉사하고 우리 자신과 온 우주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깨달음을 신실하게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처럼 생각하고 부처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부처를 숭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는 우리가 미래의 부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2,600여 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미래에 있으므로 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부처의 길이나 부처가 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지요.

부처의 길은 모든 경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부처가 되는 방법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부처를 숭배하면서도 부처가 되려는 꿈은 꾸지도 않았습니니다. 부처가 되는 방법은 말로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힘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이를 행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위대함을 드러낼 수 없다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고 혼자서 익힐 수 없으면 훌륭한 영어 선생님을 찾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일로 모든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그 길은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기 전에는 많은 샛길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의 길만이 있는 겁니다.

성불에 이르는 궁극적인 길에 대해서는 『능엄경』과 세계 여러 종교의 많은 경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나면 내가 말한 내용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능엄경』에서는 관음법문이야말로 궁극적인 방법, 마지막 길이라고 했습니다. 관음법문은 여러분 내면의 본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일종의 진동, 에너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 부처의 이 침묵의 말씀은 모든 지혜의 근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고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들린다면, 그것은 내가 수행하고 모든 창조의 근원으로부터 직접 배운 관음법문 덕분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나만이 이해하고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문할 때, 즉 『능엄경』에 나오는 관음이라는 법문을 배울 때 여러분은 소위 깨달음이라는 것을 즉시 얻을 수 있으며, 앞서 말한 여러 세계적인 종교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체험, 또는 일정 정도의 체험, 또는 한 가지 체험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깨달음을 계속 갖게 되고, 이 깨달음을 발전시켜서 깨달음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불성, 신의 왕국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제자들은 내 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편지로 물어볼 수 있습

니다. 미국 제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영국·유럽·중국·어울락·필리핀·싱가포르·태국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골라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관음법문이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 적어도 5대 종교와 정말로 일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교란 부처나 예수와 같은 옛 스승들의 말을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들의 계명과 계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며, 또한 매우 지혜로운 방법으로 매일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불교인이라면 내면의 부처를 만나고 부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 또는 신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처가 실재한다면, 진정한 불교인은 적어도 불국토의 뭔가를 보거나 부처의 위대한 빛을 좀 보거나 부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음법문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부처는 평범한 영어나 한국어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조용한 소리로, 아름다운 음률과 매우 흡사한 우주의 언어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는 한 가지 언어로만 말하지만 모든 중생이 자신의 언어로 이해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전이자 부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소리를 들을수록 더욱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의 빛, 부처의 내면의 빛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지며, 이것이

바로 부처, 예수의 진정한 추종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나 불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관음법문과 관음법문 수행자들의 체험만 언급되어 있을 뿐,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령 언급되어 있더라도 깨달은 스승의 힘이 없다면 진짜가 아닙니다. 부처의 길은 언어나 행위로는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관음법문은 내면의 지혜로부터 우리 자신의 지혜로 전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입문,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두뇌나 마음이 아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열반으로부터 부처의 힘을 가져와 우리의 고유한 부처의 힘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입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열반이라고 말할 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왕국과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나도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종교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력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처음 갖는 만남인데도 한국이 매우 좋게 느껴지나 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경전에는 그 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체험들이 있으므로 그 수행의 결과들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은 체험을 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법문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법문은 지혜의 힘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지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줄 한 가지 법문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뭔가 배우고 알고 발전시킬 것이 있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

으면 그런 방법이 있다거나 글로 써어 있더라도 스승의 힘, 전수의 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대로부터 그런 법문이 글로 써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되는 수행을 신비롭고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건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못 찾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반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일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즉각 깨달을 수 있지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신실하고 스승이 우리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터득한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록 물질적인 것은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으면 잘 알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벌써 피곤합니까? (대중 박수) 계속 할까요? (박수 갈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한 국가를 일구어 낼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우주의 많은 것들과 전에는 이해 하리라고 꿈도 못 꾸었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이웃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부처의 세계는 비범하고 예외적이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에 비견되거나 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후 계속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면 그 일부가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되어, 우리는 더욱 사랑이 넘치고 총명하고 보다 현신적이고 세계를 위해 더욱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질적으로도 더 나아집니다.

물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지만 깨닫기 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큰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스님이나 히말라야 은둔자, 산속 토굴에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왜 내가 우리 지혜의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지혜의 어떤 부분은 불국토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중 극히 일부만이 이 세상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한계, 물자의 부족, 다양한 정보의 부재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대부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행으로 조금만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불국토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최고의 높은 경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불국토와 부처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최고의 경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높은 경지이긴 하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방금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불국토 내부나 부처를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수행의 중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국토를 본다면 중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대충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아가야 하지만, 불국토를 볼 수 있다면 이미 대단히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명상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또는 잠자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겠지요.

입문 후에는 자는 동안에도 높은 경지로 가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 두 시간 반의 수행으로는 충분치 않습

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도 활용해 배웁니다. 모든 행동이 부처의 지혜에 이르는 과정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불국토를 보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우고 집을 짓는 색다른 방법을 알게 됩니다. UFO 같은 많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며, 불국토의 건물은 벽돌과 시멘트가 아닌 수정·다이아몬드·금으로 지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매우 비범한 많은 기계들도 봅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 사실입니다. 명상을 통해 불국토를 여행한 후 이 세상으로 돌아와 인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계나 집을 만들고자 해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수정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집과 그런 기계들을 만들 만한 그토록 놀라운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은 사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지혜의 상당 부분이 이 세상에서 사용되지 못한 채 있다고 말한 거지요. 하지만 모든 인류가 깨닫게 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반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기운이 변하여 모든 재앙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과 슬픔도 없어질 것입니다. UFO도 필요 없게 되지요.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 스스로 수행하고 이 세상에 만족해야 합니다.

관음법문 수행자는 이 세상을 떠난 후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부처나 보살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관음법문 수행자들은 갈 만한 더 아름답고 신비로우며 장엄한 세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스런 세계

에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나면 지혜와 진동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영광스런 신의 왕국, 또는 열반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빛과 영광이 두렵고 견딜 수 없는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지가 왕궁에서 사는 게 거북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불편하고 창피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가장 지위가 낮은 하인이라도 그보다는 더 훌륭해 보이며 자신만만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국토, 천국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지혜를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주파수인 진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마다 주파수가 서로 다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때는 편안하게 느껴지는 반면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매우 거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가승이나 종교 지도자, 요가 수행자, 혹은 특정 수행자들을 만나길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부처가 생존했을 당시 그들을 보고 싶어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이는 그 당시의 이른바 '수행자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건 그런 이들을 보면 그들의 진동, 성스런 주파수, 높은 깨달음으로 인해 생긴 편안한 치유력이 주위 사람들에게 매우 큰 편안함과 기쁨,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다른 진동과 다른 주파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함

니다.

관음법문을 얼마간 수행하고 나면 다양한 사람들 간의 각기 다른 진동을 스스로 느끼고 감지할 수 있게 되며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등급에 있는지 알게 되지요. 우리가 등급이 없는 등급, 분별심이 없어진 등급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부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아무런 비용이나 부담, 조건이 없으며 누구나 환영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경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강제로 나온 것이 아니니 안심해도 됩니다. 신은 내게 필요한 모든 돈을 주시는데, 필요 이상으로 주시기도 해서 나는 이 세상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은 내게 영적인 부유함도 필요 이상으로 주셨기에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많은 재능을 주신 덕에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나의 제자들 역시 재능이 많아 우리는 영적·물질적으로 가진 것을 세상과 함께 모두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와 동참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며, 우리는 결코 떠보거나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고 가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제 질문이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장

이 세상을 새 시대로 이끌자

14장

이 세상을 새 시대로 이끌자

1992. 4. 10. 포모사 시후 센터

선禪은 4월 15일에 끝납니다. 닷새 후에는 예외 없이 여러분을 공항까지 데려다주겠습니다. 알겠지요?

가끔 나를 보러 오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 일과 가족들을 보살피고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휴가가 생기면 좋아합니다.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어하지요. 하지만 때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휴가는 1년에 한 달이면 충분한데도 여러분은 그 이상의 휴가를 보냅니다. 여기 올 때마다 1주일, 2주일, 3주일씩 머물지요. 그러니 더 이상 휴가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과 시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봉사하기를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인지를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잘못되

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봉사하길 요구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옷과 음식이 충분하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우리 자신의 영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남은 시간을 활용해 내적·외적으로 세상에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의 지혜와 좋은 진동과 공덕을 가지고 사람들과 주변 환경을 축복해야 하며, 외적으로는 우리의 시간과 육체적 건강, 명석함, 재능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언제나 뿌듯하고 만족스러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늘 충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받기만을 원한다면 항상 불행하고 실망하며 곤란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면 신은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순조롭게 잘 돌아가 누구도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햇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야에서뿐 아니라 세상의 성취 면에서도 세상의 선구자,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운동이나 혁명적 운동을 하는 선구자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빛나는 모범을 보이는 선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그저 빈말이 되어선 안 되며, 오히려 이 말이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기본적인 생활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식마저 없어질 때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세수하고 밥 먹는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어느 누구도 칭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좀 이상하게 느낄 것입니다. 왜요? 내 손을 씻고 내 입에 밥을 떠 넣는데 왜 칭찬을 들어야 합니까?

예,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실습하고 있는 중이라서 정말 그런 사랑이 있지도 않고 진심으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가, 혹은 모든 이가 자기 있는 곳에서 지도자가 되어 온 인류를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과 참된 사랑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상 수행에서나 일상에서 세상사를 처리할 때 겪는 사소한 장애에 개의치 말고 여러분의 기분이나 좌절, 사사로운 감정, 분노, 두려움, 슬픔에 상관없이 보다 큰 이상과 더 훌륭하고 숭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고귀한 목표를 간직하고 작은 가시나 길에 깔린 자갈이나 돌멩이들은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장화를 신고 이 모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커다란 보호의 장화는 고귀해지고자 하고 어려움과 좌절과 시련에 맞서 용기와 신념으로 봉사하려는 우리의 굳은 결심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위대해져

야 합니다. 이웃에게 바라는 기대치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훌륭해져야 하며,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들, 동료들의 요구보다 더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고귀해지는 법과 희생하고 사랑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도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하면서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을 모르고, 희생한다는 생각이 없고, ‘희생’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만 이 우주의 행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상이 있으면 열반의 세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상을 가슴에 새겨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백, 수천 명의 호응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꿈이나 안일한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이 일을 최대한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한 선물을 위해 인류와 전세계, 온 우주의 진보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이상은 삶보다 더욱 커져야 하고, 그 이상은 우리가 더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고귀해져야 합니다. 이런 위대한 이상을 품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이상 안에서는 모든 장애물이 아주 작아지고 사사로운 불편 따위는 아주 무의미해집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이 꿈이나

환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온 사방으로 뻗어 나가 새순, 새 꽃, 새 가지를 만들고 더 크고 더 장대하고 더 빨리 자라서 사랑과 무조건적인 봉사의 정신이 온 세상을 뒤덮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지탱해 줄 몇 벌의 옷과 음식이 있으면 됐지 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부와 재산, 지위, 권력, 세상의 평판을 걱정해야 합니까? 만일 하루에 두세 끼 이상은 먹을 수 없고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줄 몇 벌의 옷만 있으면 될 뿐 필요한 것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 육체의 옷을 벗어던져야 할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육체가 필요하면 또 다른 몸이 생길 것입니다. 필요 없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달리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는 머지않아 죽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우리의 지난 수십 년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무 의미도 없으며 영광스럽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말고는 누구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양심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신이 우리를 용서하고 온 세상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 모른다 해도 우리 자신은 압니다. 우리는 자신만은 속일 수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으며 그로부터 달아

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건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건 곧 우리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그 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세상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진보하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실히 봅시다.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높으며 위대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마찬가지로 먹고 일하고 자식 낳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높은 이상도 없고 고귀한 동기도 없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처럼 위대한 힘과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보잘것없는 범부로 지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들의 존재와 지혜와 끊임없는 은총으로 이 행성을 축복한 여러 스승들에게서 많은 고귀한 가르침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우리가 이생에서 한 것을 보고 느끼고 아는 우리 양심을 이롭게 할 더 관대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영혼이 되지 못하고 일개 평범한 생명체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숨쉬고 있는 동안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이자 우리의 영혼을 고귀하게 만들고 성장해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이 길 이외에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처말고 어떤 부처가 되리라고 기대합니까? 쓸모없는 부처요? 우리가 부처가 되더라도 쓸모도 없고 좋은 일도 안 한다면 그런 부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처의 직함이 필요한 것

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양심에 비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처라고 부른다 해도 우리는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이 압니다. 이것만은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위인들은 큰일만 하고 사소한 것에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견해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위대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환상을 갖고 있었다면,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소위 위대하다는 사람들, 진실로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명성을 갈망하거나 속임수와 정치적인 술책으로 권력을 빼앗는 사람들 말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며, 그런 사람들은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는 위대하겠지만 현실과 진리의 세계에서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 본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도 매우 주의 깊게 제2의 천성인 양 자연스럽게 처리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들이 위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압니다. 내 말 이해하겠습니까? 일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주의력을 집중하려고 해도 주의력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들은 주의력을 쏟아 부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세한 부분을 살피지 못해 일을 망치고 완벽하게 끝내지 못합니다. 내가 본 위대한 사람들은 참으로 겸

손하고, 정말 기쁘고도 흔쾌하게 일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 손에 맡겨진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빙자해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사소한 일은 신경쓰지 않으며 하찮은 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떠들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길이 위대한 길이며 평상심이 도道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만큼 평범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을 돌볼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저런 일을 하기엔 자신이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위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보잘것없어서 거론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는 기분이나 좌절감, 장애물에 그리 신경쓰지 말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무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즉시 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잊어버리십시오. 우리의 잘못이나 단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단점을 알고 최대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나 명상, 또는 스승을 위한 일 등 영적·세속적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장애물은 모두 무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장애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은 하되 그것을 극복하고 해내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장애가 나타나도 나는 뚫고 치우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장애 때문에 몇 분 또는 몇 시간 지체할 수도 있지만 멈추지는 않겠다. 나는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굳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장애로 길이 막힐 것이며, 장애가 생길 때마다 멈춘다면 힘이 남아나질 않을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길을 닦고 산을 허물고 바위 등을 깎아내고 길을 포장해야 합니다. 몇 달,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수많은 노동과 희생, 인내심과 끈기, 굳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길을 내는 기술자가 길을 내기 위해 바위를 치워야 하는데도 오히려 앞에 놓인 큰 바위를 보고선 “아, 바위가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길을 내고 있는데 왜 바위가 저기 있는 거야? 굴치 아프게!”라고 말하고는 그냥 주저앉거나 내내 바위 탓만 하거나 또는 아예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 잠을 잔다면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대지혜의 길을 갈 때 장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때도 어려움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와! 나는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어. 내게는 문제가 있을 수 없어!’라고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겠지만 우린 그 문제로 곤란해지진 않습니다. 그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거나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의 좌절감은 당초보다 세 배 정도 커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예상치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과감히 극복하고 계속 정진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계속하며, 그런 경우에는 방해물이나 문제가 훨씬 더 적습니다. 이해합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미 예상한 일이고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떤 방해물에도 여러분은 자기 일을 그만두거나 스승을 위한 일, 여러분의 이상을 실현하는 일, 세상 사람들과 난민·동수들·세계를 돕는 일 등의 모든 일들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세계와는 달리 완벽한 장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수행하고 영성의 발전을 도우면 좋은 환경에서보다 공덕이 몇 배나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더 높은 세계에 살 만한 많은 지혜와 공덕을 쌓기 위해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발전시킬수록 더 많은 천국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새로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 나무도 없는 사막에 가서 우물을 파고 나무와 채소를 심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황무지를 비옥하고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공원이자 정원, 집터를 새로이 만듭니다. 아니면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오기 전에는 이곳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곳도 황무지였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전기가 큰 나무도 없었습니다. 망고나무 세 그루와 주방 옆에 있는 나무 몇 그루가 전부였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는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모사에서 땅값이 가장 싼 거지요. 물은 없고 바람은 세고 비는 많이 오는 등 모든 것이 너무 많거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했지만 세 번째엔 성공했습니다. 다른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곧바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첫 번째 우물을 파고선 내가 “됐어, 물이 안 나오니까 판 곳으로 가자!”라고 했거나 좀더 인내심을 갖고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도 물이 안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옮기겠지요. 그럼 어디로 옮기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여기보다 땅값이 더 비쌀 것이고, 또 그 땅을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며, 또 그 땅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걸려 있지요.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양계장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양계장은 안 돼! 난 닭이 싫어!”라고 했다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느라고 평생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닭이 없으면 오리가 있든가, 오리가 없으면 돼지가 있었겠지요. 또 물이 있으면 나무가 없고, 나무가 있으면 물이 없는 등 문제가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개받아 이곳을 구했고 어떤 상황이든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냄새와 흙먼지를 막기 위해 담을 쌓고 우물을 세 차례 파고 난 후에는 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우리가 판 우물은 수천 명이 써도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천 명이 몇 주일간 한꺼번에 써도 괜찮습니다. 물이 없던 곳

에서 수천 명에게 음식과 식수를 제공하고 온갖 관목과 가시덤불투성이였던 쓸모없는 황무지를 생활 터전과 살아 있는 작은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입문자들에게만은 낙원이지요. 그들은 이곳을 낙원이라고 느끼며 나 역시 그렇게 느낍니다.

밖에 나가 다른 곳, 심지어 공원이나 더 아름다운 환경과 이곳을 비교해 봐도 이곳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대규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주위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이 세상을 돕는 일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국가가 아닌 전세계를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힘닿는 데까지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부르면 언제나 올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을 모두 견디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며, 어떤 분야에서든 인류를 이롭게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욕과 칭찬을 넘어서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몸에 닿았다가 떨어져도 아무런 자국이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남성의 길이며, 위대한 여성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세계가 위대해지길 바란다면 우리부터 위대해져야 합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길 바란다면 우리가 이 지상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갖고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엄격하게 단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안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것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잡니다.

지금은 긴장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비범하리만큼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독립적인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돕고 영적·물질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의 발전을 돕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볼 수 있고 자신이 있으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인가 며칠 전에 벽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벽에 돌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누구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했습니다. 나는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전문가들보다 잘하진 않았지만 그만큼은 해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어울락 사람들과 출가승들도 보고 따라했고, 모든 사람들이 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배운 적은 없었지만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해냈습니다. 올바른 도구가 있으면 우린 못 할 것이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존중하며, 이 지구를 영광되게 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외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닭이요? 개요? 예! 개가 좋긴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스승님은 왜 저 사람을 꾸짖으실까?” 그는 개처럼 좋은 겁니다. 알겠어요? 먹고 자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언성도 높이지 않지만, 도대체 그렇게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개나 소, 닭이 시끄럽게 주위를 돌아다니긴 하지만 남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 것처럼 좋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남의 기분을 거슬리지 않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다’는 것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겠습니까? 그가 매우 좋은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며 아주 용감하고 처신을 잘한다든가 하는 따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합니까?

그가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도대체 무엇이 좋다는 것입니까? 좋은 사람으로 일컬어지려면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게 만들며, 그들이 자신을 더욱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정도가 돼야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깨닫게 하고 고양시키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은 사람이란 항상 다정하고 조용하며 언성을 높이지 않고 꾸짖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요. 영어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He is good for noth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나쁘다거나 지독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좋기만 할 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남을 이롭게 하지도 않고 지혜도 없으며, 지혜를 활용해 세상을 더 활기차고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럽고 살기 좋게 만들지 않는다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어도 항상 꼬리를 흔드는 개와 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면 감히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하지 마십시오. 아니, 개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니 오히려 개가 더 낫습니다. 개는 사랑을 보여 주고 주인을 위해 항상 대기해 있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옵니다. 언제라도 주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평생 빈둥거리며 사는 쓸모없는 사람보다는 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먹는 음식과 입는 옷 등으로 이 세상에 많은 빛을 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것은 신에게서 나오고, 신은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신은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 왔으므로 그 도구들이 손상되거나 고장나면 우리에게 그것을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쓸 건 아니더라도 다음 사람을 위해 수리해야 합니다. 그 도구가 낡은 것은 고의적이든 아니든 우리가 그

도구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동료가 바로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들은 전체를 위해 봉사하느라 영적·육체적으로 낡았습니다. 그들이 좋은 의도로 했든 나쁜 의도로 했든 봉사한 건 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들 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구들이 고장나거나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신에게서 나온 것이니 나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나 난민들을 돕는 것은 사실 빛을 갚는 것이며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또 하지 않으려고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필요한 도구를 나중에 다시 사용할 때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때를 대비해 수리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명상 수행이나 성불을 구하는 지혜를 빙자해서 여러분의 게으름과 태만, 그리고 여러분의 나쁜 성격과 단점을 감추고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에 대한 변명을 깨달음이라고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여러분이 나와 함께 센터에서 머무는 며칠 동안 내 말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보다는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또는 무심코 노력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우 간단히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곤란해집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해야 하는데, 나는 그러는 게 제일 싫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 척하지 않

습니다. 나에게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두 가지를 똑같이 참아냅니다.

높은 단계에 도달한 수행자에게 모든 것이 다 같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만일 모든 것이 다 같다면 여러분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을 하나 안 하나 같고, 깨달음과 무지가 같고, 남자와 여자가 같고, 채소를 먹든 풀을 먹든 같다면요. 사람과 소가 같다면 여러분이 나가서 받을 갈면 됩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같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같은 인내심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내가 뭔가를 말할 때는 빨리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배려하지도 않고 내가 반복해서 말하도록 못 들은 척 하기도 합니다. 나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시간이 자신들만의 것인 양 내게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나의 모든 기력을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내가 언성도 높이지 않는 돌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비논리적이고도 어리석은 짓을 여러분은 이해합니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놀라울 뿐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영리함에 놀랍니다. 미안하지만요. (스승님 웃으심)

어쨌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터무니없는 말이나 장황한 말을 늘어놓고 싶다면 내가 한 말을 모른 척하고 싶을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이런 점을 감안할 수 있도록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 주는 것뿐입니다. 세상을 돕기 전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자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선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가장 친한 친구나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어 이 작은 체구에 쓸데없는 요구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필요할 때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쓸데없는 짓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며 가식과 모든 쓰레기를 줄이라는 것 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일은 짧고,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요긴한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저 시간만 보내려는 식의 엉뚱한 짓은 일체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보낼 만한 취미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으니 시간을 보내려고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낭비시키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업을 짓는 일이니 정 할 일이 없으면 명상을 하거나 잠을 자십시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대로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할 일

이 있습니다. 나는 수시로 각기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거나 여러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말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을 처음 보지만 나는 이미 지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나만이 압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겹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가슴에 압박감을 느껴서 목소리를 내려면 정말 힘껏 애를 써야 합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사는 실상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영광스럽지 않으며 호화롭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려면 나의 에너지와 시간,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나와 가까이 있지 않아서 이런 것을 못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정을 바라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많이 있어 주지 못하거나 어떤 이유로 자리를 떠나 할 때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말하기도 싫습니다. 나는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은 느끼지 못합니다. 나만이 이 압박감을 느낍니다. 대개는 이런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압박감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부디 나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웃고 즐긴다고 해서 스승이 되는 게 즐겁고 좋은 것이란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스승의 삶이 영광스러울 거라는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오, 그것은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스승은 정말 모든 중생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의미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모두들 잘 자고 내일 만납시다. 내 목소리 때문이 아니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15장

이 세상 너머의 신비

15장

이 세상 너머의 신비

1992. 6. 26. 뉴욕 UN

유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가 가진 것과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한 가진 것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처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계 난민과 전쟁 희생자, 군인, 여러 나라 정부와 유엔 지도자들 모두 원하는 일을 이루고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구하면 얻을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강연의 주제는 ‘이 세상 너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 너머에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 우리 동수가 말한 기적 같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어떤 환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

고, 논리적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각 종교 경전에서는 일곱 개의 천국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의식의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면에 신의 왕국, 불성佛性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이 세상 너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전에 약속된 이런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많지 않다고만 했지 한 사람도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인구에 비하면 내면에 있는 신의 왕국, 혹은 이른바 ‘이 세상 너머’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이 세상 너머를 묘사한 책들을 읽을 기회가 많을 겁니다. 미국인들이 만든 일부 영화들이 모두 허구만은 아니며, 일본인들이 만든 영화도 허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세상 너머에 가 보았거나 신의 왕국을 얼핏 보고 온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신의 왕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린 이미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직장도 있으며 안전한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신의 왕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왕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왕국이라고 하면 너무 종교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이것은 높은 의식 차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불렀지만 학술 용어로 말하자면 서로 다른 차원의 높은 지식·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그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삼매에 들게 하는 최신 발명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계를 사용해 봤습니까? 미국에서 팔고 있는데 원하는 경지에 따라 400불에서 700불까지 합니다. 이 상품은 명상하기는 싫고 바로 삼매에 들고 싶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 기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기계는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이완시켜 지능 지수를 높여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가 높아져 스스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외부의 특정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어폰이 필요하며, 전류의 자극으로 어떤 빛을 볼 수 있게 하므로 눈가리개도 필요합니다. 이어폰과 눈가리개만 있으면 삼매에 들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좋은데 400불이니 아주 싼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삼매는 그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돈도 전혀 안 들고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건전지나 전기로 충전할 필요도 없고 플러그를 꽂았다 뺐다 할 필요도 없으며, 기계가 고장나 고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공적인 빛과 인공적인 음악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이완시키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신문에서 읽은 것이지 내가 직접 그 기계를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니다. 이 기계는 인기가 아주 좋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인조품조차도 기분을 이완시키고 지능을 높일 수 있다는데 진짜 빛과 소리라면 우리의 지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습니까? 진품은 이 세상 너머에 있지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 내면에 있는 천상의 음악, 천상의 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음악과 빛의 세기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 너머로 갈 수 있으며, 보다 깊은 이해력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로켓을 중력 밖으로 쏘아 올리려면 막대한 발진력이 있어야 하며,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갈 때는 빛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너머로 빨리 간다면 빛도 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일종의 진동력으로서 우리를 더 높은 경지로 올려 주지만 아무 소음도 없고 문제도 없으며 돈도 들지 않고 '체험자'에게 불쾌감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너머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너머는 이 세상보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해 줄 수는 없으므로 일단 우리가 체험해 보면 압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이를 확고히 믿고 정말 신실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누군가가 유엔에서 일하고 여러분이 그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 대신 밥을 먹고 우리가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므로 그 방법은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먼저 체험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별다른 체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험한 사람의 힘으로 몇 번, 또는 며칠 동안 애쓰지 않고도 매우 자연스럽게 빛과 소리를 조금씩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대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직접 체험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 너머에는 다른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세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곳은 서구식 표현으로 이른바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스트랄계에는 100여 개의 경계가

있으며 각 경지마다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이해 정도를 나타냅니다. 마치 대학에 다닐 때 학년이 올라가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서서히 졸업을 향해 나아가게 됨을 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스트랄계에서는 많은 종류의 신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통에 현혹될 수도 있고, 신통력이 생겨 병자를 치료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여섯 가지 신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보고 들을 수 있으며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천안天眼, 천이天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거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1세계에 도달했을 때 얻어지는 힘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1세계 안에는 수많은 경지가 있으며, 이는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줍니다. 예를 들어 입문을 한 후 명상을 하여 1세계에 이르게 되면 아주 많은 능력이 생깁니다. 전에는 없었던 문학적 재능이 계발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많은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천상의 선물처럼 재정적인 면에서나 직업 면에서, 또는 여러 다른 면에서 많은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전혀 할 수 없었던 것들, 또는 가능하다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세계입니다.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글월을 사용해 시를 짓거나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아마추어 작가였다면 지금은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의 첫 번째 세계에 도달했을 때 이런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신의

선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내면의 천국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일깨웠기 때문에 되살아나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이것이 1세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그보다 좀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다른 많은 것을 보고 얻게 됩니다. 시간상 여러분에게 전부 다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탕이나 과자에 대해 온갖 달콤한 얘기만 듣고 직접 먹어 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식욕을 약간 통제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요. 나중에 진짜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먹고 싶다면요.

이제 1세계보다 조금 더 높은 2세계(조금 단순화시키기 위해 2세계라고 하는 거지요.)로 간다면, 신통을 포함해서 1세계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취는 바로 달변, 논쟁에서 이기는 능력으로, 어느 누구도 2세계에 도달한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달변의 능력을 지닌 데다 지성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지요.

평범한 두뇌나 지능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지능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으니까요. 두뇌만 많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신기한 힘, 천국의 힘, 우리 내면에 있는 본래의 지혜까지도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는 이 등급을 '보리(Buddhi)'라고 하는데, 이는 지성의 경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얻으면 '부처(Buddha)'가 됩니다. 부처라는 말은 바로 이 '보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란 정확히 이런 것일 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처에 대해서만 소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2세계 이상을 모른다면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예, 그는 자신을 생불生佛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자들도 그를 부처라고 부르며 자랑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가 2세계에 이르러 원하는 사람의 과거·현재·미래를 다 볼 수 있고 완벽한 달변의 능력을 얻었다 해도 그 세계 신의 왕국의 전부는 아닙니다.

과거·현재·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선 누구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서양식 용어로 아카식 기록(Akashic record)이니깐요. 요가나 특정한 명상법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아카식 기록에 대해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옆의 유엔 도서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랍어·러시아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 등 온갖 언어로 된 기록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언어들 읽을 수만 있으면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2세계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일대기를 보듯 한 사람의 생을 아주 명백하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두 번째 세계에서는 그 밖에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2세계에 이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며, 생불인 셈입니다. ‘보리’, 즉 지력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력이 이제 막 열렸고, 우리 삶을 순조롭고 아름답게 안배해 주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치유

의 근원과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보리’, 지력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거나 새롭게 안배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전에는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을 몰랐지만 지금은 그것을 알고 아주 간단히 해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계속 몰랐다면 이웃은 속으로 반감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오해하고 있거나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이웃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웃을 초대해 오해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력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을 저절로,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안배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것들을 안배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삶의 여정이 더 순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의 원천과 접촉해 많은 사고와 예기치 않은 상황들, 달갑지 않은 일들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세계에 도달하기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요.

따라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은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므로 요가 수행자나 명상하는 사람을 신비하다거나 외계인 같은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존재로서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보한 것뿐입니다.

미국에서는 노하우에 의존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고들 합니

다. 그렇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과학을 초월한 것이긴 하지만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더 높은 세계의 것일수록 더 단순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기 위해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훨씬 간단합니다.

2세계 안에도 서로 다른 수많은 경지가 있지만 천국의 비밀을 날 날이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으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여행해 본 스승과 함께 여행하면 여러분도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될 테니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 경지마다 수많은 하위 경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일이 멈춰서 그곳을 관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스승은 때로 여러분을 데리고 이 경지에서 저 경지로 획! 획! 매우 빠르게 이동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승이 될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골치만 아프지요. 여러분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건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학과 마찬가지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그날부터 대학생이 되지만 그건 박사 학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년이나 6년, 또는 12년 뒤에나 졸업하게 되지요. 그러나 대학이 진짜 대학이고 여러분이 정말 대학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입학하는 즉시 대학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쪽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뉴욕에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재미 삼아 이 세상 너머로 가고 싶어할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린 맨해튼·롱비치·'쇼트'비치 등 모

든 비치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대중 웃음) 그래서 외계인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가 보고 싶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닷물에 몸 담그러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가는 데에도 엄청난 돈을 쓰니, 가끔씩 우리의 이웃 행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 세상 너머 다른 세계로 보러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단지 육체 대신 정신과 영혼으로 하는 좀더 먼 여행일 뿐입니다.

여행에도 두 가지가 있지요. 이걸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하기도 쉬운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다른 세계도 알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국민이지만 이웃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이 아니라고 짐작되는데, 아납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행성, 삶의 다음 경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걸어간단든지 로켓이나 UFO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계는 UFO로 날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습니다. UFO, 미확인 물체 말입니다! 비행 물체요. 지금 우리 내면에는 그 어떤 UFO보다도 빠른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때로는 영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우리는 연료나 경찰, 교통 체증, 그 외 어떤 문제도 없이 이 영혼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팔지 않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중 웃음)

자체적으로 해결되니까요. 우리가 우주의 계율을 어기고 천국과 지상의 조화를 깨트려 영혼을 손상시키려 하지만 않는다면 절대 고장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주 간단히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다면 그 방법을 말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설교가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교회로 데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 뿐이지요.

이 세계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교통 법규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빨간 불이면 멈추고 파란 불이면 가고, 좌측통행, 우측통행, 그리고 고속도로 제한 속도 등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의 물질계에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 물질세계 너머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아무 법칙도 없으며, 그때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시민이 됩니다. 하지만 저 너머에 도달해야만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의 법칙을 지켜야만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행기구 또한 손상되지 않아 아무 문제없이 더 빨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은 성경과 불경, 힌두교 경전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해치지 마라, 즉 ‘죽이지 말지어다’, 외도를 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그리고 오늘날의 마약을 비롯한 중독 물질을 금하라 등과 같이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부처는 20세기에 코카인 같은 것들이 발명될 것을 알았는지 마약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마약에는 갖가지 도박과 물질적인 쾌락에 우리 마음을 빠트려 영적 여행을 잊게 만

드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만일 우리가 위험 부담 없이 빠르고 높이 날기를 원한다면 이런 물질적인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물리 법칙인 셈이지요. 로켓을 발사시키려면 과학자들이 일정한 법칙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UFO보다 빠르고 로켓보다 높이 날아가려면 아주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더 많은 세부적인 일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입문 때가 돼서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계율로 여러분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에요. 성경에서 읽었어요. 열 가지 계율, 맞지요? 10계명이요!”라고 말할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율을 읽긴 했어도 그것을 크게 신경쓰거나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이해하고 싶긴 한데 그 정확한 뜻대호가 아닌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거나 좀더 깊은 뜻을 듣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서 첫 장에 보면 신은 “내가 모든 동물이 너희를 돕고 너희와 친구가 되도록 만들었으니, 너희는 그 동물들을 잘 다스려라.”라고 하며 각 동물에 따라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우리에게 동물을 먹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 그러진 않았어요! 신은 “내가 들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 열매를 만들었느니, 맛도 좋고 보기도 좋구나. 이것이 너희 양식이니라.”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추종자들이 신의 진정한 속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더 깊이 연구해 본다면 인류가 육식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 즉 장·위·치아 그 모든 것은 과학에서 봤을 때 채식에만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들고, 빨리 늙고, 피로하고, 둔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태어날 때는 아주 총명하고 슬기로웠지만 매일 조금씩 둔해지고 늙을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다가 끝장이 나는 데, 이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비행기구', 비행 물체, 우리의 UFO를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비행기구'를 좀더 오래,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보지요. 모두들 운전을 할 테니 차에다 엉뚱한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지 잘 알 것입니다. 아마도 얼마 못 가서 멈추겠지요. 이걸 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맞지 않는 연료를 넣었기 때문인 거지요. 또는 물이 섞인 기름을 넣었다면 한동안은 달리겠지만 역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한 엔진 오일이 너무 더러워졌는데도 새로 갈지 않으면 한동안 달리다가 문제가 생기겠지요. 차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때로는 폭발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여기에서 영원으로, 높은 과학 기술과 높은 지혜의 경지로 날아갈 때 이용하는 비행기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것을 손상시키고 올바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직장이나 친구가 있는 먼 곳으로, 또는 다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돌보지 않고 잘못된 기름을 넣거나 오일이나 물탱크 등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차는 빨리 달리지 못하고 오래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잔디밭

이나 뒤뜰에서만 몰게 되지요.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차를 산 목적을 잃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돈과 시간·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밖에 되지 않지요. 그저 그런 것일 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이 벌금을 물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차를 타고 멀리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다른 경치를 즐길 수 있는데도 자신의 차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너머로 날아갈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이 이 육신 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주 비행사가 로켓 안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로켓은 우주 조종사의 도구로서, 조종사가 물리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로켓을 잘 다루어야 로켓이 안전하고 빠르게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켓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로켓이 우주 비행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긴 하지만 주체는 로켓이 아니라 우주 비행사와 목적지입니다. 겨우 룽 아일랜드에 가려고 로켓을 사용한다면 시간 낭비이자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몸 안에 바로 스승이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하느님의 사원이고, 너희 안에 전능하신 하느님이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해도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전능하신 신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대충 읽고는 이 구절의 중요함을 이해하거나 깨닫지도 못하며 알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들이 내 가르

침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의 험겨운 싸움, 돈벌이, 파업 등과 같은 이런 물질적인 문제들과는 별도로 우리 내면에 누가 있고 이 세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더 많은 아름다움,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만나는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모두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있으니까요. 단지 열쇠를 든 곳을 모르고 오랫동안 집을 잠가 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보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스승이란, 그 문을 열도록 도와서 원래 우리의 것이었던 것을 보여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시간을 내서 그 속에 들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물을 하나씩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2세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관심이 있습니까? (대중: 예!) 노력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알기를 원하는군요. (스승님 웃으심)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 보지는 못했어도 다녀온 사람은 그곳이 어떻게 생겼다고 최소한 말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적어도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고 싶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젠 2세계 이후로 가 보겠습니다. 아직 2세계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내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2세계를 넘어가면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3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른바 3세계란 더 높은 단계입니다. 3세계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이 세상에 진 빛을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만일이 물질세계의 왕에게 빛진 것이 있다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 전과 기록이 깨끗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는 국경을 통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진 빛에는 물질적 삶의 과거와 현재에 했거나 미래에 할지도 모를 슬한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3세계에 도달하기 전, 세관을 통과하듯이 이 모든 빛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2세계에서부터 지난 생과 이생의 업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업이 없으면 이생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승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업이 없지만 이 세상에 내려오기 위해 업을 빌려 오는 스승이고, 다른 부류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존재이지만 업을 씻은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예비 스승, 미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은 때로 업을 빌려서 높은 세계에서 내려옵니다. 업을 빌린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스승님 웃으심)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에도 여기 온 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많은 생이나 수백 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은 후 여러분은 천국이나 머나먼 여러분의 보금자리로, 최소한 5세계인 여러 다른 차원으로 돌아갑니다. 5세계는 스승의 집이지만 그 너머에도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후 우리가 자비심이나 신에게 받은 어떤 임무로 인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과거 사람들과의 인연 때문에 그들 구좌에서 업을 조금 빌릴 수 있습니다. 좋은 거라고는 전혀 없는 빛일 뿐이지요. 우리는 빛을 조금 빌려서 내려와 이 세상에서 우리 임무를 마칠 때까지 천천히 빛을 갠아 나갑니다.

이런 유형의 스승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출신으로 졸업하듯 수행을 마친 후 곧바로 스승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에 교수가 있고, 학생으로 있다가 졸업하고 나서 교수가 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참 교수도 있고 이제 막 졸업한 신참 교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막 졸업한 스승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3세계로 가려면 모든 업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업이란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법칙입니다. 오렌지 씨를 뿌리면 오렌지가 나고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가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이른바 업입니다. 이는 산스크리트어로 인과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업이란 말 대신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고 말했는데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도 짧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성경본이 꼭 영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많은 지도자들의 정책에 의해 검열을 받고 변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분야의 것들을 사고팝니다. 그런 브로커들이 사회 곳곳에 가득 차 있지요. 그러나 진짜 성경은 약간 다릅니다. 좀더 길고 보다 명확하며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여하튼 그 대부분은 증명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도 있는 얘기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말하면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2세계, 3세계, 4세계가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걷는다면 같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나도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수천, 수만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당신이 나 대신 걷고 내게 모든 것을 말하고 보여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유엔에 있는 이 방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방에 대해 내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 있는 안내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방에 있는 여러 국적을 가진 나의 제자들은 내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체험했습니다.

3세계를 넘어갔다고 다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한 토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에 관해 대충 이야기한 하나의 여행담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그게 실제 그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 관한 여행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도 직접 그곳에 가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스페인·테네리페·그리스에 대해 알지만 이런 것은 영화나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실제로 지내는 기쁨을 맛보고 그곳 음식과 달콤한 바닷물, 멋진 날씨, 친절한 사람들, 온갖 분위기 등 책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자, 3세계를 지났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당연히 더 높은 4세계가 되겠지요. 4세계는 이미 비범의 범주도 넘어선 세계입니다. 그저 단순한 말로는 그 세계의 모든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그 세계 왕의 비위에 거슬릴 것입니다. 이 세계는 정전이 된 뉴욕 밤거리보다 더 어두운 곳도 있지만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기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예! 그보다도 더 캄캄합니다. 그러나 빛에 이르기 직전이 더 캄캄한 법입니다. 이곳은 일종의 금단의 도시로서, 신의 지혜에 도달하기 전 우리는 그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경험 있는 스승과 함께라면 그곳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에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세계에 이를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변화뿐 아니라 물질적인 변화, 지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고, 다르게 생활하고 다르게 일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일조차 다른 의미를 띠게 되고,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하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또는 왜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어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으며, 아주 조화롭고 참을성 있게 지구에서의 임무가 끝나길 기다립니다.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사는 동안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이른바 ‘살아서 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말을 들어 봤으리라 생각되지만, 그 말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스승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군요. (스승님 웃으심)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느껴 봐야 합니다.

누가 벤츠를 달리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수밖에 없지요. 벤츠를 소유하고 있고 벤츠를 아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묘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벤츠는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비록 평범한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며, 우리 자신이 신실한 노력을 통해 체험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안전합니다. 우리 혼자서 해낼 가능성은 백만분의 일이고, 설령 그런 경우에도 위험과 모험이 뒤따르며, 그다지 안전하지도 않고 결과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스웨덴보르그나 구제프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해낸 경우입니다. 아마도 구제프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에 관해 읽어 본 바로는 그들에게 많은 위험과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으며, 그들 모두가 높은 세계에 도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세계를 넘으면 더 높은 세계, 5세계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스승의 고향으로 모든 스승은 여기에서 옵니다. 그들의 경지가 5세계보다 높더라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이 스승의 거처인 거지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의 많은 면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선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니면 입문 후 여러분이 좀더 준비가 되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막힌 것들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신에 대한 많은 관념이 때때로 어떻게 잘못되는지 말입니다.

질문(이하 Q): 깨달은 스승은 사람들의 업을 빌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칭하이 스승(이하 A): 그 스승이 원한다면 어느 누구의 업이라도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 입문 때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생의 업은 모두 다 없어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생의 업만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죽습니다. 업이 없으면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스승은 그 사람이 깨끗해지도록 축적된 업만 없애 줍니다. 또한 약간의 업을 남겨 둬으로써 그가 이생에서 할 일을 계속하다가 이생이 끝났을 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가 이생에서 깨끗했다 해도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리고 전생은 또 어떻고요? 이해하겠습니까?

Q: 수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A: 목적이 뭐냐고요?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지혜를 알고 이생에서도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Q: 각 세계마다 다 업이 있습니까?

A: 모든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세계까지만 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두뇌, 즉 컴퓨터가 2세계에서 '제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은 세계에서 각 세계를 거쳐 내려와 이

물질세계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스승조차도 5세계에서 물질세계로 내려오기 위해 2세계를 거쳐서 이 '컴퓨터'를 골라 착용해야만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잠수부가 바다에 들어갈 때 산소마스크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수부 자신은 이상하지 않을지라도 산소마스크와 잠수복을 입으면 개구리처럼 보입니다. 이 컴퓨터나 물질적 장애물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의 원래 모습과 비교하면 아주 못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 일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장비들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세계를 지나 더 높은 세계로 갈 때는 컴퓨터를 두고 갑니다. 이젠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요. 잠수부가 해안에 닿으면 산소마스크와 모든 잠수 장비를 벗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때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요.

Q: 스승님께서 2세계의 끝에서 더 높은 세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업을 남겨 두어야 한다고, 즉 모든 업을 없애거나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생에 오게 된 과거의 업 전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A: 그렇습니다. 기록할 '컴퓨터'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업이 있는 것은 이 '컴퓨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뇌, 마음이 물질세계의 모든 경험을 기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모두 여기에 입력됩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 뭐냐고요? 바로 좋고 나쁜 모든 경험들, 많은 생 동안 우리가 반응하고 배운 경험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른바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나쁜 짓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업은 우리를 숨도 못 쉬게 짓누릅니다. 산에 올라갈 때 엄청난 쓰레기나 짐 같은 나쁜 것들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 우리를 끌어내리고 올라가기 힘들게 하는 것과 같지요. 이 세상의 수많은 도덕규범들, 여러 나라의 수많은 법률과 풍속·관습들이 이른바 선과 악, 죄와 무죄의 개념으로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때 그 나라의 법률과 관습·풍속에 따라 선과 악, 죄와 무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저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란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두뇌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하는 것이고 이 물질 세계나 약간 높은 세계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높지도 못하고 충분히 자유롭거나 위로 날아갈 만큼 가볍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생각과 편견 때문이지요.

Q: 태어날 때마다 그 생애 어떤 등급에 도달할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A: 아닙니다. 우리에게 빨리 달리거나 느리게 달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100리터의 기름을 넣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차를 빨리 운전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늦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지요.

Q: 저는 천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어떤 등급입니까?

A: 어떤 등급이냐고요? 아, 그것은 어떤 종류의 천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Q: 수호천사들이요.

A: 수호천사들은 2세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인간보다 낮습니다. 위상이 다소 떨어지지요. 그들은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Q: 그 이상으로는 못 올라갑니까?

A: 그렇습니다! 인간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신이 머무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겐 신과 하나가 될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긴 좀 복잡하니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쓰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류가 각기 다른데, 예를 들어 신이 만든 천사라면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상을 넘을 수도 있지만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어떤 것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집에 뭔가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여기 앉아서도 집안이나 정원의 불을 끄고 켤 수 있으며, TV도 끄고 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멋진 것이라 해도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에게 봉사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더 낮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여기 앉아서 다 조절할 수 있다 해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에게 봉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여러분보다 낫다고 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으니까요.

Q: 칭하이 스승님, 우리가 지금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 전에 잘못해서 해탈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는 늘 이런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상태였나요? 지금과 똑같은 상태였나요? 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나 견해가 바람직한가요?

A: 육신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예, 방법을 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를 남겨 두고 이 세상 너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도 많습니다. 어떤 방법은 멀리 가지 못하고, 어떤 방법은 아주 멀리까지 가며, 어떤 방법으로는 끝까지 갑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도 젊어 보이긴 하지만 그땐 더 젊었지요.) 온갖 방법들을 연구 비교해 본 결과 우리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멀리, 가장 끝까지 갈 수 있지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으니 체험하고 싶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아스트랄계까지 가고 어떤 것은 더 멀리 3세계나 4세계까지 가지만 5세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법문, 우리의 수행은 여러분을 5세계로 데려가고

그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혼자 가게 하지요. 그리고 5세계를 넘어서서는 신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는 높을수록 더 좋으리라고 상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궁전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면 거실에서 시원한 음료와 훌륭한 식사, 모든 것을 대접받습니다. 그러다가 집안 구석구석을 좀더 들어가 구경하고 싶어지면 과감하게 쓰레기장에도 가 보고 하면서 그 집안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게다가 집 뒤에 있는 발전실로 들어가면 감전되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깊이 들어간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험 삼아 해볼 수는 있겠지요.

Q: 칭하이 스승님,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억은 몇 세계의 것입니까? 두 번째, 과거 생은 현재의 업장, 그리고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이해력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초과 수하물'의 일부인가요?

A: 예,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과거의 업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은 전생의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전생의 기록은 아카시 기록에서 비롯됩니다. 예. 이는 2세계에 있는 일종의 도서관으로 2세계에 이른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유엔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볼 순 없지만 나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연설하도록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도 여러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주하고 있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세계에 도달하면 과거 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세계의 어떤 곳에서도 누군가의 전생 일부분을 슬쩍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높거나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생의 경험이 현재의 업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생에서 잘 살아가도록 배워 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습득했던 것이 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전생에 불쾌한 경험을 많이 했다면 그와 비슷한 어떤 상징을 보았을 때 무서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생에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어둠 속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지금도 계단을 내려갈 때 좀 두려울 겁니다. 특히 밑이 캄캄해서 어두운 계단인 경우엔 갈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이 전생에 과학 분야를 깊이 공부하고 연구했다면 이생에서도 여전히 흥미가 생기고, 지금은 과학자가 아닌데도 과학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두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대단한 천재였던 것입니다. 그가 네 살 때 피아노를 연주한 얘기는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그가 천재였던 것은 수많은 생에서 음악을 연습하다가 대가에 이르렀을 때 곧 죽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적 생애가 정점에 이르기 직전에 죽은 그는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냥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배운 음악적 재능을 모두 가지고 다시 온 것입니다. 죽을 때 음악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구가 아주 강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아스

트랄게나 2세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음악·문학·발명 같은 면에서 일반인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며 발명할 꿈도 꾸지 못하는 매우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데, 그건 그들이 이미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와 이 세계 너머에는 두 종류의 학습이 있는 셈입니다. 천재들처럼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은 아스트랄게나 2세계와 같은 이 세상 너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3세계에서 스스로 선택해 이 세상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탁월합니다. 천재들이지요.

Q: 입문의 조건은 무엇이며, 입문 후에는 매일 어떤 수행을 해야 하나니까?

A: 우선 이 입문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어떤 구속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해서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말입니다. 경험이나 요가나 명상에 대한 사전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채식해야 합니다. 계란은 안 되고 치즈나 우유는 괜찮습니다. 살생하지 않은 것은 모두 괜찮습니다.

계란은 반살생(半殺生)이기 때문에 무정란이라도 안 됩니다. 또한 계란에는 부정적인 힘을 끌어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신통을 부리는 많은 사람들이나 부두고인들이 마장에 걸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끌어낼 때 계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압니까? (누군가 안다고 대답함) 안다고요? 아, 대단하군요. 내가 즉각 깨달

음은 못 주더라도 (대중 웃음) 적어도 즉각적인 증거는 댈 수 있는 셈이네요.

입문할 때 여러분은 신의 빛과 소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음악은 여러분 의식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깊은 평화와 희열인 삼매를 맛보게 해줍니다. 그후 여러분이 진지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면 집에서 계속 수행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수행하면서 내 도움을 원한다면 나도 계속 도울 것이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2시간 30분 명상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자기 전에 2시간 명상하고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명상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강연하러 오지 않았다면 여기 점심시간은 1시간이니까 어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명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1시간은 해결된 거지요. 그리고 저녁에 1시간이나 30분 더 명상하면 됩니다. 아침에 한 시간 일찍 일어나고요. 생활을 보다 짜임새 있게 조정하십시오. TV를 덜 보고 잡담과 전화를 줄이고 신문 보는 시간을 줄이면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만 때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마치 차를 타고 룡아일랜드에는 가지 않고 뒷마당에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질문자: 예!)

평생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외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좀더 나은 여러 가지 변화와 삶의 기적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수행한다면 이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제자들이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따르는 겁니다. 정말 신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체험을 하니깐요.

Q: 의식의 속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의식의 속성이요? 좋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이용해 상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의식은 일종의 지혜입니다. 마치 어떤 것에 대해 전보다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예,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뭔가를 알고, 전에는 몰랐던 이 세상의 뭔가를 알게 되며, 예전이나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 혹은 이른바 지혜라는 것이 열리면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곳에 왔으며, 이 세상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고 우리말고 또 어떤 존재가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주에는 아주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의식의 단계는 이해력의 등급과 같습니다.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졸업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추상적인 것이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각입니다. 자각도 설명하기가 어렵군요. 다양한 높은 의식 수준에 이를 때마다 자각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사물에 대한 이해와 느낌이 달라지지요. 완전한 평화·고요·법열만을 느끼며,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물질적인 수준에서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니 내면의 느낌이 어떨지는 여러분만이 알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떨지는 당사자만 아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대신 느껴 줄 수 없습니다.

Q: 존경하는 스승님,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께서 제 마음속의 의혹들을 풀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빨리 배울 기회를 주는 스승들이 많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예, 물론이지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통신 수단이 발달해서 스승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스승이 없었다거나 스승을 찾아갈 수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스승은 다른 스승에 비해 접근이 좀더 손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건 스승의 선택이나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 또는 대중들과의 인연에 달렸지요. 그래도 어떤 시대건 한 분에서 다섯 분 정도의 스승은 항상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르지요. 단지 우리가 지금 경지가 제 각각인 수많은 스승의 존재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현대에는 다행히도 대중 매체와 TV 및 라디오 방송, 그리고 순식간에 수천 수백만 권씩 나오는 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책을 한 권 인쇄하려면 먼저 한 번 쓰고 나면 못 쓰는 투박한 도끼로 나무를 통째로 베고 다시 그것을 가늘게 쪼개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 같은 것으로 나무 조각을 다듬은 다음 한 글자씩 새겨 넣어야 했지요. 그러니 성경 한 권을 옮겨 적으려면, 그 당시에 트럭

이 있었다면 큰 트럭들이 끝없이 이어져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스승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주 운이 좋지요. 쇼핑하듯 자신이 원하는 스승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자기가 최고라고 속일 수 없으니 여러분에게도 정말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비교할 수 있고 지혜로 총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스승이 더 낫다.”, “나는 저 스승이 더 좋아.”, “끔찍한 얼굴이야.”, “아, 저 사람, 진짜 못생겼다.” 하고요. (대중 웃음)

Q: 쇼핑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미 다른 스승에게 입문한 사람도 입문시키십니까?

A: 그 사람이 내가 자신을 더 높은 세계로 더 빨리 데려다줄 수 있다고 진실로 믿기만 하면 입문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스승을 믿는다면 그 스승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 낫습니다. 자기 스승이 최고라고 믿는다면 바꾸지 마십시오. 하지만 계속 의심이 나고 내가 말한 빛과 소리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 봐야 합니다.

빛과 소리는 진정한 스승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빛과 소리를 즉시 주지 못한다면 유감스럽게도 그는 진정한 스승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선 빛과 소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마치 바다에 잠수하려면 산소마스크와 온갖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각각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에게 후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빛입니다. 여러분

이 이 법문으로 수행하면 예수를 그린 그림에 있는 것과 똑같은 빛을 발산하게 되며, 영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와 부처를 그릴 때 주변에 후광을 넣는 것입니다. 이곳이 열렸다면 (스승님이 당신의 지혜안을 가리키심) 수행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그런 빛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Q: 전 오라를 볼 수 있습니다.

A: 아, 하지만 오라는 빛과 다릅니다. 오라는 다양한 색깔인데, 검정색이나 커피색일 때도 있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이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지요. 그러나 강력한 영적 오라를 가진 사람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Q: 사실 저는 질문할 게 없습니다. 저는 한때 라자요가를 했는데, 저 역시 오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지만요.

A: 그럼 지금은 안 보입니까? 가끔씩만 보나요?

Q: 예, 지금은 명상을 안 하거든요.

A: 아, 예. 그래서 당신이 힘을 잃은 겁니다. 다시 명상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그 길을 믿는다면 명상해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해롭지는 않을 거예요.

Q: 책자에서 5계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일단 입문하면 5계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A: 예.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Q: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그것은 이미 남편이 있으면 또 다른 남자를 생각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중 웃음) 아주 간단하지요. 보다 단순하게 살며 감정적으로 복잡하거나 다툼 없이 살아가십시오. 예,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갈등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과 갈등을 피하고 그들을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욱 그래야 하고요. 그뿐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남편에게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면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냥 서서히 조용하게 해결하고 남편에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간혹 사람들은 외도를 하고는 집에 가서 부인이나 남편에게 고백하는 게 아주 현명하고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좋을 게 없습니다. 이미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안겨 줘니까? 배우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렇게 괴롭진 않을 겁니다. 안다는 사실이 상처를 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됩니다.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Q: 저는 많은 영적 스승들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행과 유머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A: 아, 그건 그들이 마냥 행복하고 이완되고 만사에 있어 홀가분하기 때문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매달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웃을 수 있고, 인생의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 웃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행하고 나면 우리는 '느슨해져' 더 이상 심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게 되면 죽고 살게 되면 삽니다. 모든 걸 잃게 되면 잃고 모든 게 생기면 그냥 가지지요. 깨달은 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생기므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초연하게 느끼며 얻고 잃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다 해도 그건 오로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로움을 위해서일 테니 그냥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삶을 고군분투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지켜 낼 만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 종일 못 침상에 앉아 명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수공예를 해서 생활비를 벌지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보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꽤 되어서 난민들과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능과 능력이 많은데 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깨달은 후에는 삶이 아주 편안해져 걱정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연

스럽게 이완이 되지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서 유머 감각을 발견했나요? (대중: 예.) (대중 웃음과 박수) 그럼 나도 스승인 게 틀림없겠군요? (대중 웃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한 스승의 말을 듣느라 두 시간이나 낭비한 게 아니게 되니까요.

Q: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면서 언제나 질문하고 이론이나 이야기를 듣는데, 스승님께서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첫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곤경에 처하게 됐으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고향을 떠났으며,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요. 또한 스승님께서 5세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이상 더 높이 가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높은 세계가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면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A: 지금 유머가 발휘되고 있군요. (대중 웃음과 박수) 좋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사(禪師)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뉴욕에 넘쳐나니까 전화번호부를 보고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대중 웃음)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당신이 여기에 있는가?'는 아마 당신이 여기 있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신의 자녀인데 어느 누가 우리를 이곳에 억지로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신의 자녀란 신

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는 어느 면에서 왕과 비슷하며, 거의 왕과 같거나 미래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만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겐 천국이나 몸소 경험할 어떤 곳에 있고자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주 오래전, 태초에 모험이 가득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배우려고 이곳을 선택했을 겁니다. 무서운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왕자는 궁전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자연 탐구를 즐겨 밀림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일 수 있지요. 우리는 천국에서 너무 따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궁전에는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고 그곳에선 온갖 시중을 다 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진 거지요. 마치 왕족들이 때로는 자기 손으로 요리하고 싶어서 하인들이 옆에 있는 걸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온 궁전에 케첩과 기름 범벅을 해 놓고도 좋아합니다. 전혀 왕자답게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요.

또 나 같은 경우엔 나를 위해 운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내 운전기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운전하고 싶어져 세 발 달린 작은 전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매연도 없이 전기로 가는데 시속 10km로 달립니다. 나는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몰라보는 곳에 가고 싶지요. 나는 강연을 위해 말할 때 빼고는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내서 유명하게 만든 후로는 강연이 나의 임무가 되어 버려 자주 도망가지는 못

하지만 가끔 두세 달 동안 도망가기도 합니다. 마치 남편에게서 도망가는 바람난 부인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선택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한동안 여기에 있기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워서 더 이상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여행에도 지쳤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쉬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 집에 가서 우선 쉬고 난 후 모험이 넘치는 여행을 다시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5세계이고 6세계는 아닌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5세계 이후에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위로도 세계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5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중립적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너무 강력할 것입니다. 잠시 가 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집에도 어느 한구석엔 화장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곳에서 영원히 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비록 그것이 집보다 멋지고 산처럼 높고 아름답다 해도 실 만한 장소가 못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 집에 있는 발전실이 도움이 되긴 해도 발전기 소리가 시끄럽고 열이 나서 뜨겁고 위험하므로 그곳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랑이 더욱 넘칠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사랑에는 격렬한 사랑, 강한 사랑, 부드러운 사랑, 중립적인 사랑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정도의 사랑을 줍니다. 경지마다 다른 신의 사랑을 받지요. 하지만 어떤 사랑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Q: 저는 주변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동물에게도 잔인하고요. 스승님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해탈하고자 노력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파괴에 대항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이 세상 너머로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이런 고통을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도움이 됩니까?

A: 예, 도움이 되지요. 최소한 우리와 우리 양심에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우리 동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합니다. 당신이 물어본 일을 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을 겪고 있는 다른 단체나 나라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랑하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질문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작년에는 피나투보 화산 이재민들을 위해 필리핀에 원조를 해주었고, 어울락과 중국의 홍수로 인한 수재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엔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울락 난민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우리 도움을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있고, 또한 유엔의 은총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난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이 요청한 그러한 일을 모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고 세상의 도덕적 수준에도 이바지하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 돕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서 영적인 도움은 원치 않고 물질적인 도움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물질적으로 돕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보시를 받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모든 출가 제자들과 재가 제자들은 여러분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도움을 주고, 고통 받는 사람을 도우며, 세상의 고통을 없애도록 돕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 삼매나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부처(깨달은 존재)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부처를 원치 않습니다. (대중 웃음)

Q: 스승님께서 어떤 경지에 이르면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그 힘은 자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자신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 힘을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만약 그 힘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주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어떻게 참으십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아주 더디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때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더 좋고 빨리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한 그

힘을 활용해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말씀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A: 이해합니다. 당신의 뜻은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일들이 관료적이고 더디게 진행되면 어떻게 그것을 참아 내느냐는 것이지요? 그냥 기도만 하겠는지, 아니면 신통을 부려 손가락으로 밀어 버리겠느냐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혼란을 불러오지 않으려면 이 세상과 보조를 맞춰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는 뱀을 뱉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급하거나 뛰고 싶다고 해서 아이를 뛰게 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테니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달릴 힘이 있어도 아이와 함께 걸어야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좌절하고 마음이 급해지지만 스스로를 참으라고 다독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도 난민들을 위해 이 대통령, 저 대통령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 재산, 수백만, 심지어 수천만 달러도 다 줄 것이지만 행정상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라.”라고 했으니까요.

나는 유엔을 움직이려고 머리를 쓰거나 신통을 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 할 겁니다. 영력이나 신통력을 쓴다면 이 세상에 재난을 일으키게 되므로 순리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치유하고 영적인 지혜나 깨달음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면 그들도 이해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신통을 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살면서 어떤 방면에서든 결코 의도적으로 신통력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에게는 기적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서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기는 뱀을 뱉 수 없는 법이니까요. 됐습니까? 내 대답이 만족스럽습니까?

내 대답 중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더 설명할 테니까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여러 나라에서 선택된 가장 지적인 사람들이므로 굉장히 총명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계에 유엔이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상의 갈등과 전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을 줄입니다. 유엔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우리 모두가 유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도 유엔의 일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 왔으며,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인질들을 효율적으로 구해 낸 노력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구해 내지 못했는데 유엔의 한 임원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재난 구호와 난민 문제에 관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유엔이 1,200만이나 되는 난민을 책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납니까? 일이 아주 많지요. 전쟁과 온갖 일들도 처리해야 하고요. 그러니 유엔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 정말 좋은 일입니다.

Q: 칭하이 스승님, 지혜를 나눠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환경 오염, 식량 부족에 관한 질

문인테요. 급격한 세계 인구 증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업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업이 되나요?

A: 이 세상에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게 뭐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더 시끌벅적하고 더 재미있어지지 않아요? (대중 웃음) 사실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뿐이에요. 세상에는 개발되지 않은 광대한 황무지와 무인도도 많고, 울창한 숲 외엔 아무 것도 없는 광활한 고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뉴욕 같은 곳에 모여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중 웃음) 여기가 더 재미있으니까요. 만일 어떤 정부든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일자리와 산업, 여러 가지 고용 기회를 마련해 놓으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일하러 갈 겁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은 그곳이 일자리를 찾기 쉽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지역에서도 안전이 보장되고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곳에도 갈 겁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곳이나 생계를 찾기 마련입니다.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죠.

그러니 인구 과잉에 대해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더 이로운 일자리와 주거 공간, 안전의 혜택을 주기 위해 보다 조직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나 똑같아져서 결코 인구 과밀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식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더 잘 알아봐야 합니다. 미국에는 세계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채식은 세계 자원을 보존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식

량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막대한 의약품과 전기·에너지·곡물들을 낭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사용해 사람들을 직접 먹여 살릴 수가 있지요.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곡물과 채소 등을 아주 싼 가격으로 팔긴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식량이 골고루 배분된다면 채식은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동물과 전세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잡지의 한 보고서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채식을 한다면 전세계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쌀겨로 영양 식품과 우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약 30만 달러가 있으면 스리랑카의 가난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과 부녀자 등 약 60만 명을 먹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많은 나라에서 천연자원을 낭비하는 게 문제지 천연자원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신은 우리를 여기서 굶주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스스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재조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국가 정부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절대적인 정직과 청렴함, 품위, 그리고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의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 정부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와 좋은 경제 조직, 우수한 인재, 정직한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나 대부분 사람들 또는 모

든 사람들이 영적일 때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들이 규범을 알고 계율을 알며, 정직하고 청렴해지는 방법도 알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많은 일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삶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Q: 그것은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오늘날 일어나는 대다수의 환경 파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거 공간 및 주택, 그리고 20세기에 걸맞은 생활양식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밀림을 예로 들면, 그곳에서는 환경이 남용되고 열대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고엽제를 뿌리는 바람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건 인구 과잉과 무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A: 예. 물론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가지가 아닌 뿌리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영적인 안정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대중 박수)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영적인 수양을 계속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죠. 전기 장치에 플러그를 꽂고 어떤 빛과 윙윙거리는 음악으로 삼매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규범이 없다면 때로는 그 힘을 나쁜 일에만 쓰게 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먼저 계율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계율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 힘을 잘 조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힘, 자비심이 없는 힘, 도

덕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힘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용되어 흑마술이 될 것입니다. 예, 흑마술은 바로 이런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깨닫기는 쉬워도 그 깨달음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법문에서는 제대로 절제하지 않거나 도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스승은 여러분이 그 힘을 남용해 사회에 나쁜 일을 못하도록 그 힘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 점이 다릅니다. 스승, 스승의 힘이 통제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지적인 질문에 매우 기쁩니다. 매우 지적이군요.

여러분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이 땅을 남용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는 지혜, 바로 영적 수행에 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관음법문 입문과 5계

【관음법문 입문】

칭하이 스승은 진리를 구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관음법문에 입문시킵니다. 한자로 ‘관음觀音’은 소리의 진동을 관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문은 내면의 빛에 대한 명상과 내면의 소리에 대한 명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면의 체험은 고대로부터 세계의 모든 종교 경전에 반복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요한복음 1장 1절).”라고 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로고스Logos·샤브드Shabd·도道·음류音流·나암Naam, 또는 천국의 음악으로 불려 왔습니다. 칭하이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내면에 진동하고 있으며,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선율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갈망을 실현시키며, 모든 세속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강력하며,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소리와 만나면 우리의 가슴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줍니다. 이 소리를 들은 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보다 올바른 모습으로 상당히 바뀝니다.”

내면의 빛, 즉 신의 빛은 ‘깨달음(enlightenment)’이라는 말에 언급된 것과 같은 빛입니다. 이 빛의 강도는 희미한 빛에서부터 수백만 개의 태양빛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내면의 빛과 소리를 통해 우리는 신을 알게 됩니다.

관음법문 입문은 밀교적인 의식이나 새로운 종교를 갖는 의식이 아닙니다. 입문 중에는 내면의 빛과 내면의 소리를 명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으며, 칭하이 스승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법을 전합니다. 침묵 속에서 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칭하이 스승의 육신이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심전심의 전수야말로 이 법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스승의 가피가 없다면 명상법 자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문할 때 즉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빛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돈오頓悟’ 또는 ‘즉각개오(卽刻開悟)’라고 하기도 합니다.

칭하이 스승은 어떤 배경이나 종교에 구애됨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입문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현재의 종교나 신앙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라거나 참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비건 채식을 해야만 합니다. 평생 동안 비건 채식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입문의 필수 조건입니다.

입문은 무료로 행해집니다.

관음법문으로 매일 명상하고 5계를 지키는 것이 입문 후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계율은 여러분이 자신과 다른 모든 중생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첫 깨달음의 체험을 더 깊고 강력하게 해주며, 마침내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의 최고 경지, 또는 성불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매일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잊게 되어 평범한 의식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칭하이 스승의 목표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님은 어떤 장치나 버팀목 없이 누구나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스승님은 추종자나 숭배자, 제자들을 구한다든지 회비를 걷는 단체를 설립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스승님은 여러분의 돈이나 선물 또는 큰절을 받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이런 것을 공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님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신실함과 여러분 스스로 성인聖人으로 진보하기 위한 명상 수행만을 받아들입니다.

[5계]

1.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해치지 마라.¹⁾
2.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마라.
3.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마라.
4. 성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마라.
5. 중독 물질을 취하지 마라.²⁾

1) 이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육류·유제품·어류·가금류·계란(유정란이나 무정란 모두)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2) 이에는 술·마약·담배·도박·음란물, 그리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화나 서적, 비디오 게임과 같은 모든 종류의 독극물이 포함됩니다.

간행물 안내

책

족각 깨닫는 열쇠

독일어(1-2), 몽골어(1, 6), 스웨덴어(1), 스페인어(1-3), 어울락어(1-15), 영어(1-5), 인도네시아어(1-5), 일본어(1-4), 중국어(1-10), 태국어(1-6), 티베트어(1), 포르투갈어(1-2), 폴란드어(1-2), 프랑스어(1-2), 핀란드어(1), 한국어(1-11), 헝가리어(1).

족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독일어(1), 러시아어(1), 불가리아어(1), 어울락어(1-4), 영어(1-2), 인도네시아어(1-3), 일본어(1), 중국어(1-3), 체코어(1), 포르투갈어(1), 폴란드어(1), 프랑스어(1), 한국어(1-4), 헝가리어(1).

1992년 선철 특별판

어울락어, 영어.

1993년 세계 순회강연집 특별판

영어(1-6), 중국어(1-6).

사제지간의 편지

스페인어(1), 어울락어(1-2), 영어(1), 중국어(1-3).

신기한 감응

어울락어(1-2), 중국어(1-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한국어.

삶을 다채롭게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후광이 너무 꼭 꺼요!—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머집

영어/중국어.

쉽게 수행하는 비결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

영어, 중국어.

신과 인류의 이야기—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영어, 중국어.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영어, 중국어.

나는 여러분을 고행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체코어, 터키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한국어, 헝가리어.

감로범어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영어/일본어, 영어/중국어, 영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무상 주방(1)—전세계 채식 요리

어울락어, 영어/중국어, 일본어.

무상 주방(2)—가정식

영어/중국어.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어울락어/영어/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집

영어, 중국어.

S.M. 천의집

영어/중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깨들(1, 2)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한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고귀한 아생

독일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천상의 예술

영어, 중국어.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아네즈 드르노프세크 박사의 저서)

중국어.

위기에서 평화로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태국어, 한국어, 헝가리어, 텔루구어.

<http://www.crisis2peace.org>

시 작품집

침묵의 눈물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 어울락어/영어/중국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한국어.

무자시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잃어버린 기억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조약돌과 황금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나비의 꿈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전생의 발자취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그 옛날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천년의 사랑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뮤지컬 진정한 사랑 영어.

뮤지컬 진정한 사랑 DVD.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DVD 1, 2(19개 언어 자막).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저명한 어울락어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지난날과 지금 (어울락어 시 낭송): CD.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어울락어 시 낭송): CD.

황기로운 손길 (유명 가수들이 어울락어로 부른 노래 공연): CD.

한밤의 꿈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시간의 그늘(시경을 초월하여)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사랑으로 보살피주세요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칭하이 무상사 창작 가곡 모음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노래 공연): CD & DVD.

사랑의 노래 (어울락어, 영어 노래 공연): DVD.

황금 연꽃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보석 시집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CD 1, 2 & DVD 1, 2.

고대의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조국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DVD.

잘 자라, 아가야 (영어 노래 공연): CD.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음악·콘서트가 담긴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MP3, CD, DVD는 다음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광둥어, 그리스어, 네덜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즈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줄루어, 중국어 간체·번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태국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필리핀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등. 우리 서점 웹사이트를 방문하신다면 칭하이 무상사의 최신 출판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의 출판물 온라인 주문

<http://www.theCelestialShop.com>

<http://www.EdenRules.com>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사이트(80개 언어)

<http://sb.godsdirectcontact.net>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미국)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오스트리아)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주요 연락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P.O.Box 9, Hsihu, Miaoli Hsien, Formosa, Republic of China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수퍼릴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kr>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온라인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http://www.EdenRules.com> (영어, 중국어)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2226-1345/ 팩스: 886-2-2226-1344

<http://www.sm-cj.com>

러빙푸드 온라인 쇼핑몰

<http://www.lovingfood.com.tw>

러빙헛 인터넷서널

전화: 886-3-468-3345

팩스: 886-3-468-1581

이메일: service@lovinghut.com

<http://www.lovinghut.com/tw>

포모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t@yahoo.co.kr

전화: 82-54-535-925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82-54-532-5821/ 팩스: 82-54-532-5822

(해피요기·SM 보석·천의·만세등·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퍼릴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로드하거나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는 열쇠 제2권

펴낸곳: SM출판사

주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3길 205번지

전화: (054) 535-9251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출판 신고: 제511-5110000251002006000002호 2006년 3월 7일

이 책의 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얻으면 이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해도 좋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과거 구도의 힘든 과정에서 완전히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진정한 법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참스승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이 법문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문을 수행하여 대단히 큰 이로움을 얻은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일세해탈—世解脫을 갈망하는 많은 구도자들을 돕고자 스승이신 칭하이 무상사(The Supreme Master Ching Hai)가 세계 각지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은 생명, 삶과 죽음, 수행과 진리 등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